진리
평화
창조

외대학보

창간 1955년 4월 11일 1958년 3월 27일 제3종 우편물(가)급인가 등록 1960년 7월 1일 등록번호 제 다253호

발행인 황병태
편집인 현승두 영
편집장 차재훈
외대신문사 (직통전화 962—7128)
외대학보 (직통전화 965—7048)
131—00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1
170—41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왕산리
인쇄인 한국경제신문사 이규행

제478호 〈주간〉 THE OE DAE HAGBO PUBLISHED BY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1987년 11월 24일 (화요일)

신입생 입학원서 27일(금)부터 접수

수험생 시험장소및 감독관 절대부족, 대응책마련 부심

88학년도 신입생 입학원서교부가 23일 (월) 부터 시작된 가운데 현재 본교의 수험생 수용능력및 시험감독관부족등 제반시험준비관계가 절대부족해이에따른 대응책강구가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학교측은 수험생의 수용한계가 초과될 경우를 대비, 3개 중·고등학교사용을 신청해놓은 상태인데 본교의 시험담당 수험생 수용능력이 약5천명 정도이고, 입시제도의 변경, 입학정원감소와 수험생증가에 따라 올해의 입시경쟁률이 4대1정도가 필것을 감안할때 절대다수의 시험장소가 부족, 그이상의 시험장소를 확보해 놓아야 할 상태이다.

감독관과 시험준비관계 또한 절대부족한 관계로 수험생이 몰릴 경우 교수, 교직원이 총동원되어도 사실상 이를 모두 충당할수 없는 형편인데 학교측은 이에따른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한편, 본교에 특수학과가 많이 편재되어 있는 것을 감안할때 선지원, 후시험제에 따른 영향이 타대학에 비해 지원율저조 현상으로 나타날 것으로도 예상되는 데 이에 대해 교무처 입학관계자는 『선지원으로 입시제도가 변경돼 외대에 뜻을 두지않는 학생은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 설명한뒤 『그러나 그로인해 외대의 질적향상에 도움을 줄 가능성도 없지않다』고 밝혔다.

입시생 입학원서접수는 11월27일 (금) 시작, 30일 (월) 마감을 하게돼 원서마감날인 30일 (월) 에는 학교전체가 상당히 혼란스러울 것으로 예상되는 데 이에대해 학교당국은 담임정도에는 모든 수업이 중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나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경대회장에 김태규군 법과대회장에 박웅서군당선

7시30분부터 법과대 학생회실에서 진행된 개표에서 박웅서후보 193표, 추병호(법학·3) 후보 100표, 무효17표로 박군이 당선된 것이다.

지난 20일(금) 7개 단대중가장 먼저실시된 상경대학생회장 선거에서 단독입후보한 김태규(무역·3) 군이 3백62표중 찬성 2백90표 (80.1%)를얻어 당선되었다.

김군은 이날 오후5시 개표결과, 찬성 2백90표, 반대62표 (17.1%), 무효 10표 (2.8%) 를 각각 득표했다.

이날 선거에서는 유권자 6백45명중 3백62명이 참가, 56.1%의 투표율을 보였다.

한편 11월23일(월)실시되었던 법과대 학생회장 선거에 박웅서 (법학·2)군이 당선되었다. 전체 유권자 5백29명중 3백10명이 투표해 58.6%의 투표율을 보인 가운데 오후

「외대학술상」 시상식거행

본보제정 제5회 외대학술상 시상식이 지난 11월19일 (목) 오후4시30분 총장실에서 있었다.

이날 시상식에는 황병태총장, 조규철교무처장, 손주영본보주간교수와 본보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상자들에게 상패와 상금을 수여하였다.

각부문별 수상자와 수상작품, 상금은 다음과 같다.

▲인문과학부문 당선작 : 김영식 (문리·철학4) 「헤겔철학에 나타난 역사관」 상금30만원 ▲사회과학부문 가작 : 장명숙 (서양·영어4), 이귀애 (서양·독어4) 「여성해방이론과 중국여성해방운동 소고」, 정은섭 (법정·신방2) 「언론의 집중화와 독점화 연구」 상금 각15만원.

동양어대, 대동제 개최

동양어대학 대동제가 11월23일(월)부터 25일(수)까지 열린다.

23일(월)김놀이로 시작되는 이번 대동제에는 각과의 심포지움과 영화상영등이 있을예정이며 마지막날인 25일 오후 5시 대강당에서 열리는 동대인의 밤에서는 사물놀이, 촌극, 각과 구호및 짚밟고연대회, 개사곡 경연대회, 새물결공연, 춧불제등이 진행된다.

행사일정은 다음과같다.

▲영화상영 : 「핵」 23일 오후4시, 25일 오후4시, 대강당▲태국어과 심포지움 : 「한국학생운동과 태국학생 운동의 비교·고찰」 24일 오후 3시, 대학원 6104▲중국어과 심포지움 : 「중국의 문화대혁명과 개방정책」 23일 오후5시, 대학원6105▲법아시아 모의총회 : 「미국의 대아시아정책에대한 아시아각국의 입장」 25일 오후2시, 대강당.

본교 직원노조 출범

학교측 무성의로 노조사무실 확보못해

「한국외국어대학교 직원노동조합」 출범식이 지난 21일(토) 오후3시 경희대, 덕성여대 노조 조합장, 내·외빈, 1백50여명의 조합원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출범식에서 강영은 (학생처 학생과) 노조 조합장은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끝까지 싸워 나가 성과를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한뒤 「이번 노조의 출범은 조합원 모두가 외대를 위해 헌신할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오후 3시40분경 출범식을 마친 조합원들은 교내식당에서 축하연을 갖고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한편 노조측은 출범식에 앞서 현판식을 가질예정이었으나 노조사무실이 확보되지 않아 무산되었다.

이에대해 노조측은 『사무실의 확보가 가능했으나 학교측의 무성의한 태도로 인해 어렵게 됐다』며 『학교당국의 직원노조에 대한 성실하고 진취적인 자세를 촉구한다』고 노조측 입장을 밝혔다.

문리대 주최 민주애국문리인한마당

문리대 학생회 주최 「민주애국 문리인 한마당」이 지난 제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11월20일(금) 오후2시30분 용인캠퍼스대운동장에서열렸다.

길놀이를 시작으로 약4시간가량 민주정취패 (화학, 수학과) 와 민족풀이패 (전산, 물리, 철학과) 로 나누어 종를놀이, 패싸움놀이등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강강수월래, 횃불이날 행사는 강강수월래, 횃불놀이로 막을 내렸다.

교직과정 이수신청 원서 접수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원서도

사범대학에서는 87학년도교직과정이수신청서및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12월1일 (화) 부터 10일 (목) 까지 접수받는다.

교직과정이수 신청대상자는 11월현재 교직과정이 설치되어있는 학과의 4학기를 이수중인 학생으로서 교육과목을 부전공 선택하고 졸업후 중등2급 정교사자격증을 취득하려는 학생이다. 제출서류는 소정양식의 이수신청서 1부이며 사범대교학과 (야간강좌는 야간강좌교학과) 에서 접수한다.

교직과정은 각학년 졸업정원의 30%이내의 인원만이 이수할수 있으며 졸업시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전공, 교직과목의 평점이 B학점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한편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원서를 87학년도도 전기졸업예정자중 사범대및 교직과정이수자를 대상으로 접수한다.

신청희망자는 무시험 검정원서 1부, 전학년 성적증명교부원 1부, 주민등록등본 1부를 사범대 교학과 (용인캠퍼스는 교무과) 에 제출하면 된다.

용인·야간강좌,선거일정 확정

인문과학대 내년3월선거 동구어대는 미정

용인캠퍼스 각 단대학생회장과 야간강좌 총학생회장 선거일정이 확정 발표되었다. 11월16일 (월) 확대운영회의를 통해 확정된 용인캠퍼스 각단대학생회장의 선거일정을보면 동양·서양어문대가 25일(수)후보자등록을 마감하고 26일(목)과 27일 (금) 각각 어문대식당에서 1차유세를 가지며 사회과학대의 경우 26일 후보자등록마감, 27일 1차유세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투표는 동양어문대가 12월1일 (화), 서양어문대가 2일 (수) 에 실시되며 사회과학대가 3일 (목) 치뤄진다.

한편, 학교측의 공식인가를 받은 인문과학대는 언어학과신입생이 입학한 후인 내년3월 학생회장선거를치를예정이다.

내년 유고어등 3개과가 신설된 동구어 계열의 경우 학교측에 88학년부터 동구어대학으로의 승격을 요구하는 동시에 학생회를 따로 구성, 선거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으나 노어과의 동구어대 편입문제로 노어, 동구어과 학생들의 외견이 상충, 미해결 상태이다.

인문과학대와 동구어대 학생회가 따로 분리 선거할 경우 사학, 철학, 플란드드, 루마니어과 학생들은 사회과학대와 서양어문대 학생회장 선거에 참여할수 없게된다.

23일 (월) 후보등록을 마감한 야간강좌 총학생회의 경우, 26일 (목) 30일 (월) 오후6시30분 대강당에서 1차, 2차유세를 가지며 12월1일 (화) 투표를 실시한다.

「모현학사」 입사생모집

용인캠퍼스 기숙사 「모현학사」에서는 88학년도 1학기사생을 11월30일 (월) 까지 모집한다.

원서교부는 모현학사 운영과 및 각전률안내실에서, 접수는 각단대 교학과와 모현학사 운영과에서 한다. 제출서류는 입사원서 1통, 1학기성적증명서및 주민등록등본 각1통씩이며 선발기준은 지방학생및 원거리통학자를 우선적으로 뽑되 학점을 고려하여 선발한다.

한편, 학점통보는 내년1월15일부터 31일까지 개별통지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현학사 운영과로 문의하면된다.

용인, 「써연제」성황리 진행

25일까지, 총 17개 써클참가

용인캠퍼스 써클연합회 주최 제3회 써클연합제 (이하 「써연제」) 가 지난 11월16일(월) 시작, 오는 25일 (수) 까지 치뤄진다.

학원민주화 투쟁으로 연기되었던 「써연제」는 총17개 써클이 참가한 가운데 대강당과 강의실등에서 개최되며 써클연합회 기획협사부 강연회와 비매오상영등이 준비돼 있다. 한편, 써연제 마지막 날인 25일 (수) 진석, 조종혁, 김우룡, 김홍규교수등 신방과교수 4명은 『학생지도에 한계를 느낀과 동시에 이런 상황에서는 연구에 전념할수 없다』는 이유를 밝히고 4명전원에게한 사표수리를 조건으로 사표를 일괄 제출했다.

한편, 신방과 조교를 비롯한 일부 대학원생과 학부생들은23일(월)학생들의 주장과 관련, 객관성이 없다는 내용의 반박대자보를 게재하기도 했다.

신방과 김진홍교수 퇴진요구 농성

김교수 사퇴거부, 신방과교수 4명 일괄사표 제출

지난 18일 (수) 부터 진행된 신문방송학과 학생들의 「김진홍교수 퇴진」 요구 농성이 김교수의 사퇴거부의사표명과 이에 학생들이 무기한 철야단식농성을 결의함에따라 장기화될 전망이다.

지난 18일 신방과 학생들은 대자보를 통해 성명서를 발표 『김교수는 사업가와 교수로서 이중적 입장을 지니고 있으며 교수신분에 어긋나는 언행을서슴지 않았다』며 『이러한 교수직 악용, 강의불성실, 학문적무능등의 이유를 들어 김교수의 퇴진을 강력히 촉구한다』고밝힌바 있는데 이에 김진홍 교수는 『학생들의 본인에 대한 비리주장은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이므로 사퇴를 수락할 수 없다』고 밝혔었다.

이에따라 신방과학생들은 18일(수)학과장실을점거, 철야농성을 진행중에 있으며 지난19일 (목) 부터 서명운동 작업에 착수, 23일 (월) 현재 1천5백69명의 서명을 받은상태다.

이에대해 지난22일 (일) 정오 2시30분 용인캠퍼스대운동장에서열렸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학생처 학생과 노조 조합장은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끝까지 싸워 나가 성과를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한뒤 「이번 노조의 출범은 조합원 모두가 외대를 위해 헌신할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오후 3시40분경 출범식을 마친 조합원들은 교내식당에서 축하연을 갖고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한편 노조측은 출범식에 앞서 현판식을 가질예정이었으나 노조사무실이 확보되지 않아 무산되었다.

이에대해 노조측은 『사무실의 확보가 가능했으나 학교측의 무성의한 태도로 인해 어렵

장학생 선발

12월20일까지 접수

88년 1학기 교내장학금 신청접수를 11월25일 (수) 부터 12월20일 (일) 까지 받는다. 신청을 원하는 학생은 장학금수혜지원서 1부와 재산세과세증명서를 작성하여 학과장실에 제출하면 된다.

또 학생처에서는 고시합격자를 대상으로 12월1일(화)부터 88년 1월20일까지 고시장학금 신청을 받게 된다.

한국

▲민정 (民正), 야당의 유세장 위법고발방침
—공정선거 주장 탄압은 왜 고발못하나

▲총장, 퇴진결정후에도 계속 집무수행중이란 소식
—입기도 얼마 안남았겠다, 대충…

▲88학년도 신입생 모집 박두
—88꼴나무(?)의 빛나는 건승을

혼들리지않게 우리 단결해

『흔들리지 흔들리지않게 물가에 심어진 나무같이 흔들리지 않게.』

최근 한 일간신문은 노태우 후보의 지지자들이 지방유세중 운동권의 노래를 불렀다고 크게 보도했다.

막대한 자금, 강력한 들러리를 가진 아이돌 것 없는그들이 왜이 노래를 불렀을까. 야당 후보들의 「군정종식」에 대한 공통된 주장에, 「학살원흉처단하자」는 대학가의 외친 시위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게』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파묻은 자신들의 자리를 계속 움켜쥐겠다는 결연한 각오에서 인가.

▲일찌기 어느 시인은 동족을 죽인 학살자가 권좌에 있는나라에선 우리가 갈곳은 전선이요, 감옥이요, 무덤이라 했다. 『흔들리지 않게』는 지난6월의 뜨거웠던 아스팔트 전선 (戰線) 에서 군부독재와 음흉하고 거대한 벽을 부수기 위해 우리 모두가 쏟아지는 최루탄속에서, 쇠몽둥이를 들고 달려드는 하이바앞에서 서로서로 어깨를 부여잡고 외쳐대듯이 불렀던 바로 그 노래가 아닌가.

▲얼마남지 않은 이 혼탁한 선거국면은 우리들에게 또다시 『흔들리지않게』를 요구하고 있다. 6월의 쏟아졌던 외침들을 다시금 「미완의 외침」으로 남게 하지않기 위해선 보다 치열하게 군부독재와 자주적 정부의 수립을 위한 실천적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공정선거의 보장을위한 거국중립내각의 건설과 학살원흉에 대한 지속적인 폭로작업을 통하여 저들의 부정선거 음모를 뿌리채 뽑고 대중들의 반군부독재의식을 고양시키는 동시에 보다 구체적으로 야권의 확실하고 완전한 승리를 위해 후보단일화 문제를 강력하게 추동해내야 한다. 단일화 문제는 단순히 어느특정후보를 지지한다는 차원에서가 아닌 분명한 원칙아래 이뤄내야 하는 일이다.

「국민의 뜻에 의해」 단일화약속을 어길수 밖에 없다고 한 양김씨의 정견표를 정책의 진보성에 따른 전 국민적 지지와 합의속에 단일화토록 어내야 하는 것이다. 설령 이번 선거에서 군정이 종식되고 민간정부가 들어선다해도 그 정부가 민족의 주체성을 또다시 팔아넘기고, 민중의 이익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미국의 신식민지지배질서하의 또다른 민간 (民間) 파시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결국 『흔들리지않게』는 미완의 6월의 외침을 결실로 맺기 위해 바로 지금 군부독재를 위해 불러야 할 노래인 것이며, 민족자존심을 회복하고 민중이 주인되는 그날을 위해 득재와의 전선에서 끊임없이 불러야 할 바로 우리들의 노래여야 한다.

<이재효>

여군사관 후보생 모집요강

1. 응시자격
가. 4년제 대학졸업 또는 졸업예정자
나. 연령20~27세미만 미혼 여성 (1968년7월23일~1961년7월23일)
다. 신장157, 체중48이상인 자
라. 군 인사법 제10조 장교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구비서류
가. 지원서(육군양식) 1부
나. 전학년 성적증명서 및 대학입학 학력고사 성적증명서 각 1부
다. 최종학교 졸업 또는 예정증명서 1부
라. 호적 및 주민등록등본 각2부
마. 사진(4×5) 5매
3. 전형방법
가. 1차 : 서류전형
나. 2차 : 논술고사, 면접, 신체검사(1차 합격자에 한함)
4. 모집일정
가. 공고 및 지원서 접수 : 1988년 1월16일까지
나. 1차합격자발표 : 1988년 1월20일
다. 신체검사 : 1988년 1월21일
라. 논문및면접 : 1988년 1월22일~1988년 1월23일
마. 최종합격자발표 : 1988년 2월29일
바. 입교 : 1988년 3월7일
5. 지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각지방 병무청 모병관실
나. 육본 병정안내실 여군 모병 안내
6. 특전
소위 임관후 능력과 적성에 따라 전문분야 보직 활용
가. 국내외 민간대 학위 위탁교육 : 학위교육(석박사 과정)
나. 국내 특기분야 교육
(1)전산 (2)공수 (3)헌병 (4)외국어(불어 및 교관)
다. 도미유학
(2)정삼대학졸업 - 월평학교)
(2)어학과정(미합중국 국방 언어학교)
7. 복지
가. 급여 : 계급에 상응한 보수 지급
나. 숙소 : 군인아파트 제공(독신자숙소 입주 가능)
다. 피복 : 개인피복 소지기준에 의한 각종 군복 제공
라. 휴가 : 년2회 10일간 정기 휴가 실시
8. 기타
가. 어학능력보유자 우대 (영어, 일어, 중어, 독어, 불어, 스페인어, 기타)
나. 문의에 대한 자세한 문의 : 각지방 병무청 또는 인근 여군부대
○서울 : 793—3540, 754—3843 (교환 551), 7902—4893, 3240
다. 1차합격자 및 접결일자는 해당 병무청 게시판에 공고 및 여군모병관 문의

육 군 본 부

한국외국어대학교

1988학년도 전기

각 대학원 학생모집

무역대학원 (야간)

1. 모집인원 : 사학과정 각각 00명 (직)962—7118 (교)965—7001 (구내2109)
2. 모집학과 : (간)경영학과·무역학과·국제경영학과·통번역학과·관광개발학과·보험경영학과
3. 시험과목 : 연구계획서·무역영어·국제경제학·국제경영학·통번역·관광개발학·보험경영학
4. 원서교부및접수 : 1987년 11월9일 (월) ~ 12월1일 (화)
5. 시험일시 : 1987년 12월5일 (토) 오후2시

*비고 상경계 전공도 입학수강생 제한없이 수학가능
실무경험이 다년간있고 해외업무 위주이므로 한국 본교 우대함.
본 대학교 박사학위 과정 입학자격은 석사학위 취득자 수 있음.

교육대학원 (야간)

1. 모집과정 : (직)963—6881 (교)965—7001 (구내2116)
2. 모집전공분야 : 영어교육·영어학·영어문학·불어교육·불어학·불어문학·독어교육·독어학·독어문학·일어교육·일어학·일어문학·교육학·심리학·교육행정·교육과정·교육과정·교육사회학·교육공학·교육측정·교육과정·교육사회학·교육공학·교육측정·교육과정·교육사회학·교육공학·교육측

반독재연합전선과 선거시기의 전술적과제

김 재 혁 (어문·마인어3)

Ⅰ. 머리말

현시기는 미국과 군부독재정권으로 대별되는 지배세력과 반외세 반독재민주화세력 사이의 균형이 유동화되어 40여년간 계속되어온 친미독재정권을 철폐시키고 민족 자주적 통일과 사회 민주화를 이룩할 것인가 아니면 또다시 친미괴뢰독재의 압제의 사슬에 얽매일 것인가 하는 중차대한 전환기이다.

이런 중대한 시점에서 활화산처럼 터져 올랐던 6월민주화대투쟁을 투마하고자 일시적으로 후퇴했던 미국과 군부독재정권은 여·야타협과 야권분열의 공간을 파고들어 대국민 선심공약을 남발하며 후보단립과 국민대중의 분열을 조장하고있으며 현내각을 내세워 관권, 금권을 동원한 부정선거를 획책하는등 재집권을 기도하고있다.

또한 부정선거를 치뤄내는데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애국민주세력에 대하여 좌경척결을 구실로 파쇼적탄압을 가속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선거를 통하여 미국의 식민지체제 재편음모에 파렬구를 내고 군부독재를 종식시켜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기초를 닦고자 벌사투쟁해야 할 애국민주세력은 지금껏 좌·우편향을 노정시키며 올바른 투쟁방침을 설정하지 못한채 각자 분열되어 있으며, 후보단일화의 실패는 국민적 외지와는 투합하게 계파간의 갈등, 지역감정등 절대절명의 반독재 투쟁의 부작용을 낳아 범국민적 통일 단결을 저해하고 반독재투쟁전선을 약화시키고 있다.

이에따라 현 선거전의 양상은 군부독재 종식이라는 대의명분이 희석화되고 오히려 지역감정을 비롯한 전근대적 과제가 유도 확산되어 부각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따라서 87·88년 식민지통치체제의 재편국면을 민족민주운동의 승리로 전환시키고 군부독재를 종식시키며 자주적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농민등의 근로대중과 청년학생 그리고 제도정치세력까지도 하나의 정치역량으로 결집하여 대통단결 통일투쟁으로 반독재민주연합전선을 강화·발전시켜야 한다고 보여진다.

그러므로 이글에서는 반외세 자주화, 반독재민주화를 기본임무로 하는 전국적 규모의 통일전선 건설이라는 전략적 과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현실적 더딤돌이 되고 있는 반독재연합전선의 외미를 살펴보고 민중의 구체적 이해와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여 해방의 대도로 전진할 수 있는 당면 투쟁의 실천적 지침을 제시코자 한다.

Ⅱ. 몸말

우리의 구국운동은 6월항쟁의 평가와 향후 투쟁방향을 둘러싸고 각기 제분파적 입장만을 고수하며 분열되었으며 선거환상론적 대기실리에 빠져 투쟁을 중단함으로써 현 군부세력으로 하여금 반군부독재 포위망을 벗어나 애국민주세력에 대한 조직적 탄압을 허용하고 자발적인 민중투쟁을 지원하고 조직화해내지 못하였다.

그 결과 독재를 청산하고 민주를 세우기 위한 각계각층의 대오의 단일한 결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군부독재의 완전한 종식이라는 과제가 남아있는 한 분명한 것은 반민족적 반민중적 핵심자들의 즉각적퇴진과 공정선거보장을 위한 거국중립내각을 쟁취하기 위한 반독재연합전선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럼 먼저 반독재민주연합전선을 개괄적으로 검토해 보고 당면 시기의 전술적과제를 설정하겠다.

①반독재민주 연합전선

미국은 한국내의 민족민주운동의 성장에 따라 강압적 파쇼통치를 후퇴시키고 기만적 친미보수대연합을 강화하여 반미민족민주운동세력을 고립화시켜 한국에 대한 합구적 지배를 유지하고자 식민지 체제개편을 기도하며 선거에서 민정당의 승리를 목표로 직·간접적인 공작정치를 행해왔고 지금도 여전히 골몰하고 있다.

이것은 반미의 무풍지대였던 한국에서<양키고홈>이우럼차 한편 이것은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지식인등의 민중운동을 전면화시켰넘으로써 민족민주운동이 민족자주화를 위한 투쟁으로 발전해 나가는 과도기적 단계에서의 주체역량을 강화시키는 공동투쟁전선으로써 통일전선 구축을 위한 탬아적 성격을 갖는다고 할수있다.

즉 이것은 민족민주운동의 역량이 낮은 단계에 머물고 있는 시점에서 타도대상에 대한 공동투쟁을 점차 높은 형태의 공동투쟁으로 발전시키며, 부분적인 연합을 전면적인 연합으로 발전시켜 주요타격방향을 고립시키는 통일전선전술의 기본방침을 수행하는 과정속에서 제기되어 나타난 과제인바 노동자등 사회변혁주체군의 지도력이 미성숙한상태하에서의 긴박한 과제해결을 위한 열쇠로서 일정한 전술시기에서 정취성과에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정당, 단체및 민주인사들이 공동의 대상에 대한 공동투쟁을 전개하기 위해 결집하는 정치적 연합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것은 원칙이 없는 무원칙한 단결투쟁은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제휴에 불과할 뿐 곧 개량화의 길을 걷게되며 오히려 타락하여 반혁명세력으로 변질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울든 현시기에 있어서 변혁을 위한 주여망과 보조여망을 동시적으로 강화시키고 파쇼적 탄압을 딛고 민족민주운동의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범국민적 포위망을 구축하는 반독재연합전선이 필실한 요청이 되고있다 할 것이다.

②선거시기의 전술적 과제

전술적 시기 구분의 기준은 매시기의 구체적 주·객관적조건에 따른다.

이에따라 대중의 이해와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나 그것이 대중추수적 개량주의에 함몰되는 것을 방지하고 올바른 전략적 과제에 집근하기 위한 가장 합당한 전술적 목표를 정하고 이것의 쟁취에 가장 효율적인 술로건, 투쟁형태, 조직형태를 설정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현시기의 전술적 과제를 정하는데 있어서는 대중정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지배세력및 주요정파의 현황, 민족민주세력의 주체역량 등을 면밀히 평가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입각한 올바른 전술적 지침만이 우리의 흩으러진 운동 대오를 정비하여 모든 좌·우익적 편향을 극복하고 6월항쟁의 과정에서 획득한 각계각층의 광범위한 정치적 각성과 투쟁경험을 민족자주화, 통일, 독재타도 사회민주화운동으로 발전시켜나갈수 있는 근거로 제시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토대로하여 당면선거시기의 실천적 과제를 파악할때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는 학살원흉들의 즉각적퇴진과 공정선거보장을위한 거국중립내각 수립을위한 전면적인 투쟁과 아울러 근로민중의 생존권보장등 민주 제권리 쟁취를위한 대중투쟁속에서 광범한 선전교육을 통하여 대중의 의식을 고양시키고, 이를 대중조직화로 고착하여 반독재민주연합전선을 강화하는 것이라 여겨진다.

이것은 현 군부독재정권의 정면공격이 어려울 경우 타도대상내부의 분열과 대립을 최대한 이용하여 가능한 동맹자와 제휴하고 타협하여 타도대상을 공동으로 포위공격하는통일전선전술에기초하여그것을주체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상의 과제로서, 분산된 반독재투쟁을 단결투쟁으로 묶어세우고 통요하는 제도정치권의 지도자들과 중간계급으로 하여금 비타협적인 투쟁을 벌이도록 견인하는 전술인 것이다.

따라서 군부독재의 강도높은 파쇼적 탄압이 가속화되고 있는 지금 야직 정식적인 통일전선을 구축할 조직적, 정치사회적, 심리적 기초가 취약한 우리로서는 연합과 공동의 기치하에 투쟁을 거룩적으로 벌여나가는 과정에서 반독재연합전선을 강화하여 그안에 결집가능한 재야·종교계의 민주세력을 틀튼 제도정치세력도 군부독재와의 이해가 상충되어 흔들하고 있는한 우리의 한편으로 끌어들여 함께 싸워나가야 할 현실인 것이다.

물론 여기에서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제해야 할것은 민족민주운동세력은 항상 중간집단에 대하여 제휴하며 투쟁하고, 투쟁하며 제휴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점이다. 다시말해 독자적인 정치계급적 입장과 투쟁원칙을 견지하면서 진정한 변혁주체의 헤게모니를 강화하기 위한 전제조건을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원칙이 없는 무원칙한 단결투쟁은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제휴에 불과할 뿐 곧 개량화의 길을 걷게되며 오히려 타락하여 반혁명세력으로 변질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울든 현시기에 있어서 변혁을 위한 주여망과 보조여망을 동시적으로 강화시키고 파쇼적 탄압을 딛고 민족민주운동의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범국민적 포위망을 구축하는 반독재연합전선이 필실한 요청이 되고있다 할 것이다.

②선거시기의 전술적 과제

전술적 시기 구분의 기준은 매시기의 구체적 주·객관적조건에 따른다.

이에따라 대중의 이해와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나 그것이 대중추수적 개량주의에 함몰되는 것을 방지하고 올바른 전략적 과제에 집근하기 위한 가장 합당한 전술적 목표를 정하고 이것의 쟁취에 가장 효율적인 술로건, 투쟁형태, 조직형태를 설정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현시기의 전술적 과제를 정하는데 있어서는 대중정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지배세력및 주요정파의 현황, 민족민주세력의 주체역량 등을 면밀히 평가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입각한 올바른 전술적 지침만이 우리의 흩으러진 운동 대오를 정비하여 모든 좌·우익적 편향을 극복하고 6월항쟁의 과정에서 획득한 각계각층의 광범위한 정치적 각성과 투쟁경험을 민족자주화, 통일, 독재타도 사회민주화운동으로 발전시켜나갈수 있는 근거로 제시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토대로하여 당면선거시기의 실천적 과제를 파악할때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는 학살원흉들의 즉각적퇴진과 공정선거보장을위한 거국중립내각 수립을위한 전면적인 투쟁과 아울러 근로민중의 생존권보장등 민주 제권리 쟁취를위한 대중투쟁속에서 광범한 선전교육을 통하여 대중의 의식을 고양시키고, 이를 대중조직화로 고착하여 반독재민주연합전선을 강화하는 것이라 여겨진다.

이것은 현 군부독재정권의 폭력적 탄압속에서 자행되는 정치일정과 선거는 군부독재의 재집권을 위한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기에 거국중립내각을 새로 구성, 권력을 집중시켜 공정선거를 치루고 모든 파쇼적 폭압기구를 해체하여 민중의 민주주의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대중적 인식의 확산속에서 제기된 실천적 지침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침이 범민중적 요구에 의해 설정되었다 할지라도 현재의 민족민주운동세력내의 좌파적 입장을 반독재연합전선에 편입시키고 우파적 입장을 견인, 통일된 연대의 틀을 강화하여 변혁운동의 유리한 주·객관적인 조건을 확보해야 하는 동시에 단결투쟁을 강화할때에만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Ⅲ. 맺음말

현 단계에서 우리 변혁운동의 과제는 미국의 식민지 통치체제 재편기도에 파렬구를 내고 민중의 민주주의적 권리를 철저히 보장하는 자주적민주정부를 수립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선거를 통하여 군부독재를 권좌에서 끌어내리고 자유주의적 기회주의 좌파와 민족민주운동세력이 적절히 제휴하여 성립하는 민주연합정부를 수립하여 자주적민주정부로 나아가기 위한 확고한 교두보를 확보하여야 하는 절대절명의 시대적 과제를 임무로 부여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순간에도 끊임없이 시도되고있는 미국과 군부독재의 반혁명예봉을 분쇄하기 위한 당면의 반외세 반독재투쟁을 수행 할 강고한 투쟁연합인 반독재민주연합전선을 구축하여 통일전선으로 전화 발전시켜 나가야하는 것이다.

현시대의 전술적 과제는 미국의 체제재편
기도를 막고 파쇼를 고립화시키는데서 출발
반독재 연합전선을 통일전선으로 발전시켜야

사설

선거의 승리를 위한 과제
조직정비와 대동단결이 선결돼야

근자에 다시 「양심수」의 수가 급격히늘어나고 있다. 노태우씨의 소위 「6·29선언」후 일시적 유화기속에서 석방된사람들의 몇배에 달하는 수가 7·8월노동투쟁과, 계속되는 선거국면 속에서 또다시 0.7평(坪)의 차가운 석벽속에 가두어졌다. 6·29선언의 본질적 속성이 결코 군부독재의 그것과 다를 바 없음이나무도 명약관화한데도 관제언론에 의해과대포장된 「선언」의 선입관속에 6월의전민중적 혁명투쟁열기가 일시 좌절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런 틈 속에서 종말을 목전(目前)에 두었던 현 정권은 한숨을 돌리며 현하 (現下) 7·8월 노동투쟁에 대한 잔혹하고 철저한 보복과 자신들의 권좌유지의 최후의 보루인 대통령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해 골몰하고 있다.

3·15부정선거의 주역, 공주학살의주범들이 포진한 현내각의 구성에서부터 부정선거를 치르기위한 현정권의 포석이라는 점은 일반에게도 널리 알려져있는 사실이며 대규모부정선거의 조짐이 이미 여러 사실에서실증적으로 보여지고있다. 이런 금권, 관권에 의한 부정선거 획책은 익히 알려진바 차치하더라도 서두에 언급한 것과 같이 「좌경·용공세력 척결」 「선거법위반」 등의 빌미로 군부독재 자신들의 운신(運身) 의 폭을 죄어오던 애국민주세력에 대한 전폭적 탄압의 확대는 현 상황의 위기성을 새삼 실감케 해준다. 이렇듯 현 군부독재가 선거에서의 패배는 곧 종말이라는 자각속에서 많은무리를 감수하며 부정선거를 획책하고애국 민주세력에 대한 극렬한 탄압을 가해오는 현 시점에서 애국민주 운동세력내부의 전열 재 정비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주지하다시피 우리 애민 (愛民) 운동 진영은 거국내각 쟁취, 민중정당 건설로 민중후보 추대, 특정인에 대한 비판적·조건부지지등 각 운동점파 (政派) 의 시각차이 에따라 작금의 선거시기에 대응하는 전술도 다양하게 구사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여러정파의 이견 (異見) 속에서도 「선거에서의 승리」라는공통된 외견은 변함이 없을것이다. 여기에서 승리라고 함이 특정인의 대통령 당선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타도 대상인 현 군부독재의 완전한 퇴진을 이루어내고, 차기 민선정부가 그다음의 통일을 지향하는 진정한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는데 진초적 역할을담보해낼 수 있도록 모든 민중·민주·민족운동세력이 견인해 나갈 수 있는 주·객관적 조건들까지의 마련이선거에서의 「승리」라고 말할수 있을 것이다. 이 승리를 현 시기 공동의 전술적 목표라고 삼정했을때 지금나타나고있는 정파적 모습은 자칫 애민운동역량의 분열을 초래하지 않을까하는 심각한 우려를 낳고있다. 하지만 이런 우려가 있다해서 무비관적으로 「뭉쳐야 한다」는 식의 공허한 메아리만을 되뇌일 수는 없다. 다만 우리의 완전한 「승리」를 쟁취하기위한 결정적 순간에서의 「일치단결대동투쟁」은 꼭 필요한것이다.

허리잘린 식민지 조국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자기의 주장만을 신성시하는 당파적 모습이아니라 우리의 내밀수없는 깃발을 두손에 움켜쥔 반도열혈청년의 드거운 의지와 강고한 단결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말자.

미백화백

▲바람부는 날/바람에 팔래 펄럭이는 날/나는 결혜가 되고 싶구나/우리나라오욕과 오염/그 얼마나고 쓸지 않겠다/오로지 결혜가 되어/단 한준메라도 결혜하게 닦고싶구나/…/닦은 뒤 더러운 결혜 몇번이라도/몇번이라도/못견디도록 헹구어지고 싶구나/새로운 나라 새로운 결혜로 태어나고싶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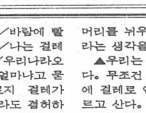
▲사람들은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을구별하기를 꽤나 좋아한다. 어떤 것이깨끗한 것이고 어떤것이 더러운 것인지, 판별기준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대체로 외양을 봐서 사람들의 마음에 들지않거나 냄새가 좋지않으면 더러운 것으로 피하고싶은것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어느 집이나 마루한구석에 처박히게되는 것이 결혜이다. 남을 욕할 때도 「이 결혜같은 자식」이라는 소리를 많이 한다.

그러나 곰곰히 생각해보자. 우리는 방이 더럽다는 생각이 들때 결혜로 방을 닦는다. 그런데 일단 방을 닦고 나면 결혜는 후미진 곳으로 옮겨나가진 우리는 그 더럽게 여기는 결혜로 닦은 방바닥에 눕는다. 그 결혜로 닦았으니 결혜위에 눕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런데도 결혜를 갖다놓고 그위에 머리를 뉘우라면 열에 아홉은 「더럽게…」라는 생각을 할 것이다.

▲우리는 결혜의 용도를 생각하지 않는다. 무조건 더럽다고 치부해 버려왔기 때문에 결혜로 인해 방이 깨끗해진다는 것은 모르고 산다.

옛날에도 결혜는 하인들이나 만지는 것이었다. 역시의 일부는 관습이고 전통인지라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우리네 양반, 고관대작들은 하인, 미천한이들에게 결혜를 떠맡겨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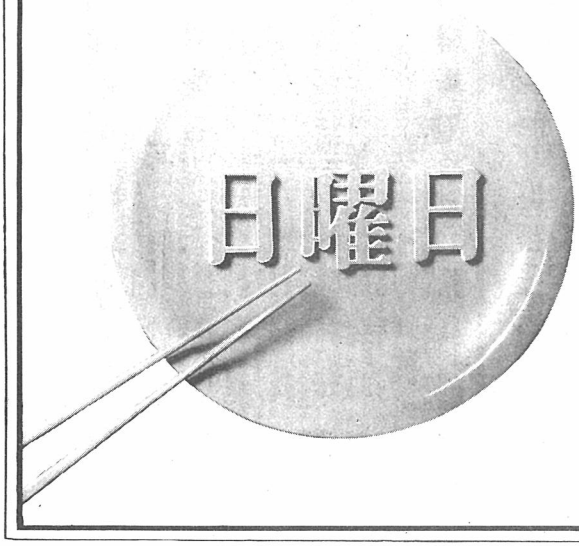
걸 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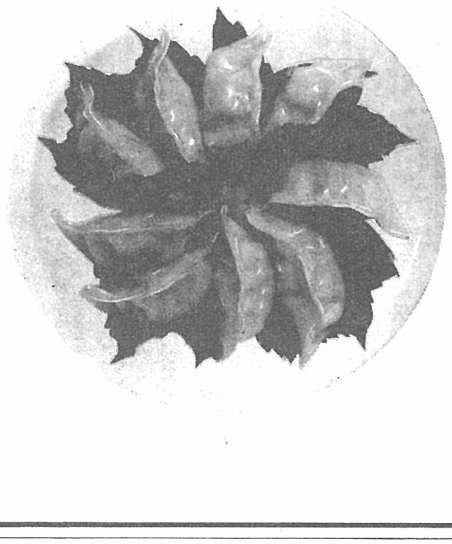
그래서우리가 「어르신들, 결혜같은 분이 되어 주십시요」라고 말하면 대번에 화를 낸다. 그러나 「이나라 방방곡곡의 더러운 곳을 깨끗이 닦아내는 결혜가 되어달라는 말입니다」라고하면 그제서야 「아아—그런 결혜」라며 담박에 되마고 약속한다.

▲요즈음은 결혜하겠다는 사람은 많은데진짜 결혜가 될 사람을 찾아내기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닌것 같다. 오욕과 오염으로 뒤덮혀 썩고 있는것이 현실임에도 그것을 말끔히 닦아낼 결혜를 찾기어렵다는것이다.

모두가 새로운 나라, 새로운 결혜로 태어날 사람임을 자처하는 오늘은 과거 어느때보다도 처절한 고민과 진통을 겪어야 할때인것 같다.

<진>





"만두曜日"

온가족의 만점요리
해태도투락 고향만두

가족이 함께하는 일요일—
달력의 색깔처럼 다른 날이라 식탁도
색달랐으면 하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해태도투락 고향만두는 요리가 간편하면서도
전통 별미로서의 매력을 지녀 가족의 기대에
꼭 맞는 일요일 만점요리 입니다.

속은 푸짐, 맛은 깔끔
해태도투락 고향만두

고향의 후한 인심을 담아 빚어 속이 푸짐한
해태도투락 고향만두는 싱싱한 야채와
좋은 질의 고기를 사용해 맛이 정말
깔끔합니다.

해태도투락
고향만두

변혁운동과 한국의 국가 <7>

박 영 수
<서울대 석사과정졸업·경제학>

Ⅰ. 머리말

한국에 있어서 해방이후부터 지배블럭으로 등장한 세력은 고유의 메카니즘을 지닌 통치기제를 통하여 그 지배를 관철시켜왔다。 그리고 그 지배의 과정은 반민중성·폭력성·억압성의 반복이었다。 지배의 이러한 성격은 역사적으로 구조화된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한국에서의 국가 (정치권력)의 성격과 통치기제의 구조적 메카니즘을 분석하는 일은 변혁운동의 관점에서 매우 유용한 작업이라고 볼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분석을 필요로 하고 있는 한국 국가권력의 형성과정및 성격과 그 지배기제를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은 아직 부분적으로밖에 연구된 것이 없기때문에 시론의 수준을 벗어날 수는 없다고 여겨지지만, 작금의 긴박한 정치적 상황에 비추어볼때 한국의 국가권력과 그 통치기제에 대한 분석은 하나의 연구범위로 정착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이를 통해서 한국에 있어서 현존하는 제 모순의 제현자인 군부독재의 성격을 규명함과 동시에 그 폭압적 통치기제의 분석을 통한 구체적 상황인식을 담보로 올바른 변혁운동의 구현에 작으나마 기여할 수 있으리라 보여진다。

Ⅱ. 국가와 변혁운동의 대립구조

(1) 해방, 분단, 친미 예속 정권의 성립

1945년 8월15일 이후 이땅의 민중들은 자신들의 자주적인 민중정권의 수립과 계급적 해방을 기원하였다。

그러나 미·소 냉전구조 속에서 한반도는 분할되고 미국은 극동에서의 자기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군사적 예속화와 세계자본주의체제로의 경제적 편입을 완성하고자 국가권력의 재편을 적극화하였다。 즉 그들은 한국민중들의 「자결(自決)을 위한 폭발적인 열망을 무시한채 한반도내에 친미 독재정권래동의 바탕을 형성하는 것이었다。

아울러 민중부문의 탈정치화와 친미·반공국가라는 성격은 식민지경험에서 유증되는 강력한 군사·행정체계가 정부수립 이후에 표면화되면서 가속화되었고 이러한 성격은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절대화되어간다。

이때의 분단과 한국전쟁은 오늘날까지 한국국가의 성격을 규정짓는 특수요인이 되었다。 요컨데 이시기는 첫째, 냉전논리의 민족내화 반공이데올로기의 내면화를 초래하여 진보적 또는 중도적 입장마저도 세력화할 수 있는 내적 근거를 파괴해 버렸다。 둘째, 전쟁이후 지속적으로 강화된 국방력은 때때로 정치적으로 민중반압용으로 사용되었으며 군 통수권까지 제국주의의 손에 내맡겨졌다。

세째, 휴전은 전시체제라고 강조하여 안보이데올로기를 투기로 국민의 생활, 사상의 통제는 물론 민주주의와 자유에 대한 요구까지도 탄압하는 근거가 형성되었다。

이렇듯 50년대는 반공이데올로기를 전국민적 합의기반으로 확대해가면서 제국주의적 가치를 점차 투시시켜 갔다。 이승만은 북진통일론을 비판하고 「남북한 총선거를 통한 평화통일안」을 주장하던 진보당의 조봉암을 제거하면서 냉전주종형의 마키아벨리스트가 되어갔다。

그후 4·19에 반격을가한 5·16군사쿠데타는 「반공을 국시의제일의로 삼고」 분단이데올로기를통치의 수단, 사회통합의 기조로부리 내려간다。 이로 인해 한국사회는 냉전형으로 획일화된 인간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군사형사회」로 변모하게 된다。

(2) 군부집권의 배경과 폭압통치의 체계화

60년대에 이르러 자본주의화한 제3세계의 일련의 국가들에서연쇄적으로 군부가 권력을 장악하게되는 계기를 맞으면서 군부의정치 개입은 근대사회에서 일어나는 돌발적이고 단편적인 사건이 아니라 항구적인 현실로 부각되었고 특히 제3세계의 근대화과정에서 군부의 역할은 한 사회내 정치·경제적 변천과정에서 분리할수 없는 통합적 요소로 인정할수밖에 없게 하였다。

주지하다시피 한국의 군부통치는 1961년 소수정치군인에 의한 쿠데타로부터 출발하였다。 2차대전과 동서냉전의 산물로, 그리고 6·25를 거치면서 거대한 물리력을 갖게된 한국군부는 사실상 당시 한국에서 가장 조직화되고 현대화된 세력이었다。

삼·하부구조의 불일치로 인해 이울러 가장 현대적인 기술능력을 갖추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미국의 원조에 힘입은 한국군은 현대적 경영·기술적 구조와 군대의 특징인 위계질서에 의한 강고한 내부통합력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군부의 조직논리는 무능한 장면정권을 밀어내고 변혁운동세력의 민족주의적 몸일논리를 봉쇄한다는 구실로 정치개입의 여지를 갖게된다。 미국의입장에서도 초기에는 5·16쿠데타에 당황해 하지만 곧 당시까지 고도화하는 과정을 겪는다。

그 자신의 폭압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비극적 종말을 고하게 되는 유신이후, 새로이 대두한 80년대 군부세력의 통치구조도 기본적으로는 「군부통치」라는 맥락에서 인적교체에 지나지 않고 유신통치와 질적으로 다른 것은 발견할 수없다。

그러나 80년대에 대두한 군부통치의 주요 특징은, 그동안의 자본축적과정상의 제반 모순의 급격한 표출, 그리고 광주항쟁을 경험한 민중들의 변혁운동의 질적발전과 이에 대응하는 억압의 고도화, 민중부문에의 착취를 통한 경제위기의 미봉화로 귀정지을 수 있겠다。

따라서 민중과 지배자연합과의 대립은 80년대에 들어 전면적인 대립으로 나아가는 상황이며 국가의 통치기제도 이에따라 보다 체계화, 고도화된 성격으로 나타난다고 볼수 있다。

한국국가의 변혁운동 대응전략
—폭압적 통치기제를 중심으로

글싣는 차례

1. 연재를 시작하며
Ⅰ. 한국국가 분석을 위한 쟁점
2. 제국주의와 한국의 국가
3. 한국국가의 성격규정을위한 모색
Ⅱ. 한국사회의 성격과 국가
4. 분단국가와 민족문제
5. 한국의 지배계급과 국가
6. 한국국가와 반봉건성
Ⅲ. 변혁운동과 국가
7. 한국국가의 변혁운동 대응전략
8. 자주화운동과 통일전선
9. 변혁운동과 국가의 극복
10. 좌담—자주적 민주정부의 성격과 전망

군·경찰은 제반 민족운동 저지의 강력한 물리적 기반
법은 변혁세력을 고도의 수법으로 억압하고
정권의 행동반경을 넓혀주는 효과적 통치기제

Ⅲ. 한국 국가의 폭압적 통치 기제

독재권력과 민중부문의 경제적 이해의 대립, 그리고 이에 기인하는 지배자동맹부문의 민중부문에 대한 정치적 억압의 강화 및 계급적 대립의 첨예화는 80년대에 들어 투드러지고 있다。 제5공화국이 군부통치의 연장인 한, 그 통치기제가 이전과 질적으로 달라진 것은 발견할수 없다。 그러나 통치외의 수준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이며, 여기에서는 그 통치수준에 대한 분석에서의 한부분이라고할 수 있는 제5공화국의 국가지배의 기초들, 즉 상비군·경찰·법적 장치 등 억압과 대립의 조건에 대해 그 구체적 내용을 조명해서는 우익군부세력의 힘을 빈 독재체제가 반드시 필요하였다。

이러한 목표를 수행하는데 있어 군부가 가장 적합한 집단으로 간주되는데 이는 군부가 지닌 엄청난 물리적 강제력과 조직적 위계질서가 한국민중의 변혁의지를 억압하는데에 유효하다는 판단에서 기인하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5·16쿠데타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군부는 종속적 경제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국주의의 충실한 대행자로서 기능을 수행하며 민중의 생존권 요구를 봉쇄하기 위하여 국가기구의 전영역을 장악하고 제반 억압법을 제정, 세계사상유례없는 물리력을 행사하면서 억압구조를 체계화 시켜왔다。

한국에 있어서 군부의 정치권력 장악은 국내적 위기상황과 한국에서의 해외자본의 활동강화를 요구하는 미국중심의 세계체제론적 관점에서 필연적인 것이었으나 이후 이들은 폭압정치의 내적 모순과 민중의 광범위한 정치적 진출로 인해 분절성을 거듭하면서 통치체제를 고도화하는 과정을 겪는다。

그 자신의 폭압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비극적 종말을 고하게 되는 유신이후, 새로이 대두한 80년대 군부세력의 통치구조도 기본적으로는 「군부통치」라는 맥락에서 인적교체에 지나지 않고 유신통치와 질적으로 다른 것은 발견할 수없다。

그러나 80년대에 대두한 군부통치의 주요 특징은, 그동안의 자본축적과정상의 제반 모순의 급격한 표출, 그리고 광주항쟁을 경험한 민중들의 변혁운동의 질적발전과 이에 대응하는 억압의 고도화, 민중부문에의 착취를 통한 경제위기의 미봉화로 귀정지을 수 있겠다。

따라서 민중과 지배자연합과의 대립은 80년대에 들어 전면적인 대립으로 나아가는 상황이며 국가의 통치기제도 이에따라 보다 체계화, 고도화된 성격으로 나타난다고 볼수 있다。

이러한 엄청난 군사력은 이미 군사력경쟁이 북한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한다。 미국의 고위관리들이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한반도는 민족문제에 무관하게 대소봉쇄를 위해 언제든지 가능한 핵실험장으로 상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남북간의 모순관계에 의하여 발발할 수 있는 전면전의 가능성은 미약한 관이며 이들 군사력제가 상시적으로 가능한 것은 외적 침입에 대처하는 국방 보다는 국내적 반란·민중운동 진압의 역할을 더 크게 수행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수 있다。 이는 실제로 79년 12.12쿠데타와 80년 광주학살을 통해 증명된 바있다。

이렇게 한국군은 명목적으로는 대공방위용으로 구성되었으나 국내의 제반 민족·민주운동에 있어서 이를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있는 강한 물리적 기반이되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2) 경 찰

역대 독재정권아래에서의 한국 경찰의 역사는 본연의 기능수행에서 어긋나 사상무례를 찾아볼수 없을만큼 권력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되어온 역사로 점철되었다。 이는 전부경찰제도의 강화등 군과 경찰의 결합이 노골화되어 폭압전선의 전면에 드러나오는 현재의 상황속에서도 예외일 수 없다。

제5공화국에 있어서 경찰의 가장 큰특징은 경찰기본법이 없이행정부에 소속되어 있는 것과 전부경찰의기능강화로 요약될 수있다。

현재 한국경찰은 내무부에서를 팔·관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독자적 조직체계의 결여는 바로 한국에서의 경찰의 주된 기능이 반민주·반민족적 형위에 앞장설 수밖에 없는 근거가 되고 있다。 또 제5공화국에 들어서서 치안유지의 제도적 장치로서 그 기능이 강화된 전부경찰은 현재 4만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서울에 집중 배치되어주로 민중의 변혁운동에 대한 물리적 탄압의 선봉대로 쓰이고 있다。

군대와 경찰은 기본적으로 국토방위와, 사회내 공공복리증진 및 질서유지라는 측면에서 질적으로 서로 다른 관계에 있으면서도 제5공화국에 이르러서 중복된 분업체계를 이루고 있는 것은 군경의 최소한의 정치적 중립을 주장하는 것조차 무의미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작금의 군과경찰의 주요기능이 무엇을 향하여 집중되어 있는가를 알 수 있게한다。 참고로 86년 전부경찰 운영비는 640여억원으로, 이는 범죄예방 및 단속 등에 쓰이는 전체 경찰업무비의 다섯배에 달함을 밝힌다。

(3) 법률장치(제반약법)

제5공화국에 있어서의 법은 그것이 폭력적으로 창출되는 과정을 밟았기때문에 큰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지만 제5공화국이 법치국가의 형태를 띠고 있기때문에 법적장치는 통치기제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있다고 말할수 있다。

그것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제반 행정활동은 법에 근거해야 권력행사의 정당성을 획득할수 있기때문에 군부정권출현의 핸디캡은 어쩌면 오히려 법이라는 외피를 씀으로써 극복가능한 것으로 파악했을지도 모른다。 이는 제5공화국이 등장하면서 서둘러 수행한 일중의 하나가 바로 폭압적 법률장치의 마련이었다는 점과, 최근에 전국민적 도전에 직면한 권력이 개헌이라는 법적 보완과정으로 위기에 대응했다는 것을 보아도 알수 있는 것이다。

제5공화국의 주체로 등장한 군부는 자파세력의 강화와 적대세력(민중을 중심으로하는 변혁운동세력, 유신치하의 보수정치인, 일부관료)에 대한 철저한 도전의 봉쇄 및 통제구조의 완성이라는 조정작업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런 선상에서 국가보위 입법회의라는 「군정별의회」를 통해 계엄하에서 개헌(최근 다시 개정된 바 있는)을 착수하고 있따라 사상무례없는 제반 파쇼악법을 제정·개정해낸다。 이때 개·제정된 법률에서 주목할만한 것은 다음과 같다。

정당법, 집시법, 사회보호법, 국가보안법, 사회안전법, 언론기본법, 노동법, 대통령선거법등。

이와같은 법들은 그 기본적 의도가 정권에 위협의 소지가 될만한 모든 가능한 경우를 사전에 봉쇄하는 것으로 일관하고있는데 그 특징이 있다。 더구나 법조문들의 문구가 애매모호하여 권력의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게 되어있으며 중형주의가 채택되어 있어 인권유린·침해의 정도가 세계적으로 가장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한 법의 제도적 장치는 권력의 임의적 행동을 견제할 아무런 장치도 규정하고 있지 않거나, 있다고 해도 사문화되었기 때문에 제5공화국의 법은 변혁운동세력을 고도의 수법으로 억압하고 정권의 행동반경을 넓혀주는 효과적 통치기제로 활용된다고 볼 수있다。

Ⅵ. 맺음말

한국사회의 지배구조와 성격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국가와 국내외특권자본으로 구성된 지배자연합이 민중을 억압하는 성격을 띠고있고 그 정치적 상부구조는 군부가 정치권력을 장악한 예속파쇼체제이다。

경제와 정치의 불일치로 군부가 자본가계급을 대신하여 민중과의직접적인 대립의 당사자로 나타나는 것은 세계자본주의가 국내에 침투하는 동안 유리한 토양의 조성과정에서 민중에대한 정치적 폭압의 성격이 절실했기 때문임은 이미 밝힌바와 같다。

현재의 지배질서재편기를 둘러싸고 한국과 같은 사회구성체하에서 보수세력 내외 권력교체가 어떠한 적극적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아직도 많은 논란을 유발시키고 있으나 정권의 장악이 단순히 폭같은 부르조아 정파의 선수교체라는 식이 아니란 이땅의 민중이 궁극적으로 국가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가치있는 교두보로 확보해 냄때정권의 교체는 한국사회 변혁과정에서 일정한 규정력을 가질수 있으리라고 본다。

한국에 있어서 정치권력의 성격규명과 통치기제에 대한 앞서외고 할은 바로 이러한 과정을 실현하기 위한 기술적 문제를 처리하는 주요 연구범위가 될수 있는 것이다。

한국사회의 반(半) 봉건성은 농업부문의 지주—소작관계의 광범위한 온존과 한국국가의 반봉건적 폭력양태등 제반 변혁운동 과정상 반(反) 봉건의 모든대상을 포괄하여 설명되고있다。 이글은 반봉건성 (개념상의 논란은 계속되고 있지만) 의 주요한 내용을 이루는 한국국가의 폭압적통치기제를 중심으로 지난호에 다루었던 「한국국가의 변혁운동 대응전략」의 연장선상에서 작성되었다。 <편집자>

젊음이 공감하는 새로운 술—
진로 와인쿨러 탄생!

진로 와인쿨러—세계인이 즐기는 새로운 개념의 와인입니다.
와인의 본고장인 프랑스에서 처음 만들어진 와인쿨러는 순수와인에 천연과일의 상쾌함과 탄산의 상쾌함이 조화되어 더욱 상큼한 맛을 자아낸 새로운 와인.
1980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지역을 중심으로 젊은층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어 지금에 본격 와인시장에 새롭게 등장합니다.
진로가 개발한 본격 와인쿨러「진로 와인쿨러」—부드럽고 깨끗한 맛과 상쾌함을 자아내는 고급 와인쿨러입니다.

진로 와인쿨러—순수 과일로만 빚어진 알콜 6%의 순한 술입니다.
세계는 지금 저탄불의 시대, 한때엔는 부담없이 즐길수 있는 저탄불의 순한 술을 원하고 있습니다.

6도의 순한 저탄불 와인으로 (과즉와인 12도)부담 없이 부담스럽지 않은 과즉와인에게 한발자 새로운 술「진로 와인쿨러」—
사과, 포도, 매실의 100% 순수원액으로 만든 산뜻한 순수와인입니다.
젊음의 술, 여성의 술, 건강의 술—진로 와인쿨러

여성을 위한 와인—진로 와인쿨러
여성에겐 여성의 술을 권하세요.
술자리에 함께 한 기쁨과 많은 위로의 상대로 부담없는 술은 한잔도 두잔도 좋아 부담스럽지 않고 맥주나 위한 술이 있어도 배가 불러 거북하거나 마셔도 술고픈 나만 한 술이다 싶어 술이 없어도 즐거운 맛을 맛보고 마음 편하게 할수 있다.
이제 여성도 위한 와인「진로 와인쿨러」가 있습니다.
여성에겐 여성의 술을—진로 와인쿨러

진로 와인쿨러—차게해서 드셔야 참맛을 느끼실 수 있읍니다 (8℃~12℃)

JINRO Wine Cooler
진로와인쿨러
株式會社 眞露

국회의 실질적 기능회복을 기대하며

——12대 국회를 돌아본다

85년 5월13일 월요일 오후 2시, 총선거 실시(2월12일) 이후 3개월, 외원입기시작(4월11일) 한달만에 대한민국 헌정사 40여년에 일대 획을 긋는 12대 국회가 회기 30일의 125회 국회 입시회를 개최로 개원되었다.

12대국회를 구성하게 된 2·12총선거는 집권당이 역대 총선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35·2%의 저조한 득표율을 기록하며 정계는 물론 4천만 국민모두에게 신선한 충격을 던져주었다.

그러나 총선에선 자유당시절 3·15부정선거, 공화당시절 6·8부정선거에 결코 뒤지지않는 조직적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루머가 돌며 12대국회 개원을 둘러싼 정당간의 이견조정으로 그 시기는 늦어질수 밖에 없었다.

사실상 국무위원 자신들이 여당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에 가담하고 각급공무원, 공공단체말단, 통반장까지 모든 행정조직과 관권이 총동원된 타락선거였다는 구체적 위헌사실로 드러난 바있다.

선거사범의 일례로 총선과정에서 조작보도, 편파적 왜곡보도로 국민의 원성과 지탄을 받았던 한국방송공사 사장등이 구체적 위헌사실로 검찰에 고발되었으나 정부는 공소시효 3일전 음모설을 띄고 불기소처분한 사건이 있었다.

그간의 제도권 잠치로 말미암아 정치는 없고 행정과 통치만이 존재하는 파행적 4반세기의 경험은 국회의 활성화를 당위적으로 부각시켰으며 이는 국회법개정, 국정조사권 회복등 국회의 권능회복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

물론 12대 국회는 125회 국회부터 개헌시비가 핫·이슈가 되었으며 신민당 이민우총재의 기조연설이 「헌법개정심의특별위원회」 구성제의에 초점이 맞춰진 것도 당시 5공화국 헌법의 성립과정이 70년대 유신시대에도 불수 없었던, 국민의 자유의사 표시가 차단되고, 찬반토론이 금지된 비상계엄령하에서 기형적으로 성립된 독재헌법이라는 다각적 비판과 함께 개헌의 필연성이 당연과제였기때문이다.

「국회헌특위」 구성에 관한 한 벌써부터 합의가 있었고 86년시국과만 노리며 헌특구성에 난항을 보였던것도 사실이다. 이는 헌특구성 이후에도 개헌협상이 언제나 원점을 찾아갔다는 점에서도 짚고 넘어갈 일이다.

또한, 11대국회인 84년 11월 여야의 합의사항이었던 지방자치제 「87년부터 단계적 실시」 방침은 2·12총선때도 여야공통의 공약으로 부각되었던 것이며 수차례에 걸쳐 공청회등 그 개정안 발언은 난무했으나 실시의 보류를 압록적으로 시사해 「현정치현실」 「현정치문화」 등을 부정적으로 부각시키려는 경향으로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말았다.

이렇듯 12대 국회는 소위 6·29선언으로 대통령직선제가 관철될 때까지 개헌을 둘러싼 권력구조 형태, 즉 의원내각제나, 직선제 대통령 중심제냐라는 당대당 (黨對黨) 차원을 벗지의 대의명분아래 권력분산을 지향한다는 입각점에서 공통분모는 있었고, 국회를 국정의 최고 산실로 부상시키겠다는 입장, 사법부의 독립을 강화한다는 것이 투드러졌음은 두말할 나위없다.

또한 국민기본권, 인신보호에 각별히 유의하는 못했고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 검열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었다. 나아가서 최저임금제 도입, 노동3권 보장에도 상응한 진취적 자세를 보이려는 노력들이 현저했음도 사실이다.

◇전단 10월12일 개헌안 투표하는 여·야의원들

그러나, 12대국회를 돌아보면 여·야협상의 소치는 분명 이러한 국민기본권에 기초한것이 아니라 정권획득을 위한「권력구조형태」 관철에 있었다고 보는것이 보다 옳을 것이다.

한때 국민을 분노의 도가니로 들끓게했고 아직도 기억에 생생한 부천서 성고문사건, 가증되는 미국의 수입개방압력과 보호무역조치, 건설부 고위관료의 독직사건, 86아시안게임과 연관된 부산수영만의 오염문제, 일본교과서 왜곡사건과 후지오 문부상의 망언등 일련의 사태는 사전적 의미로 되새길 때 국회의 기능이 견제를 통한 권력균형에 있다면 당연원내에서 이에 대한 문책과 대화를 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 교섭단체는 「역사적과제 합의개헌」 이란 구실아래 이를 너무도 경시해왔다.

물론, 사회, 인권문제와 관련 입시국회소집등의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으나, 지난 11월 10일 12대 국회가 137회 정기국회를 끝으로 사실상 폐회될 때까지 여·야는 실상 이런 문제들을 뒤로하고 「헌특위」 「합의개헌」 에 매몰되어 왔음이 분명하다.

국회의 존재이유와 평가의 출발선이라는 이러한 제반 국회기능에 대한 회의감은 박종철군 고문살해사건, 법양사건, 부천서 성고문사건등에서 단한번도 국정조사권의 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상식이하의 운영 형태에서도 찾을수 있을듯싶다. 그 한계성은 출발부터 명약관화했다. 다시말해 국회내에서 해야할 일을 정부가 중여지책으로 서투른격이 지나지않는 유명무실한기구였다는 것이다.

야당의원들이 루머기 기소되었던 85년의 정기국회, 수차례에 걸친 국회내 발언시비와 국시(國是) 논쟁으로 급기야회기중 국회발언과 관련 국가보안법이 적용되어 현역의원이 구속된 86년의 정기국회, 이런 사례들은 면책특권등 국회법을 무시한 관료정치의 면모를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또한, 호헌, 개헌의 극한 대립과 야당측의 서울대회등 장외투쟁 끝에 거의 정부 원안대로 새해 예산일이 2년연속 여당 단독으로 변칙 통과된 85년, 86년의 정기국회, 86년 조세감면규제법의 날치기 통과등은 국민부담 가중의 예산팽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앞아서 발구르며 감전녀 불구경만 할 수밖에 없었다.

유별나게 정치부문에 비해소극적이었고, 성과를도한 저조했던 12대 국회의 경제, 민생부문에 대한 부성의는 개헌정국이라는 허울로 그 변명의 여지를 찾을 수 없음뿐더러 국민경제와 인권부문 등에 제반 사회적 악습의 병근(病根)을 과시하고 나아가 그것을 육성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12대 국회는 사실상 폐회되었다. 내년초 13대 국회의원 선거법개정안을 놓고 임시국회 소집여부가 남아 있으나 12대 국회는 법정임기만료일인 89년 4월 10일까지의 4년 임기를 못마치고 중간 해산될 운명이 확실하다.

51일간의 137회 정기국회는 합의개헌이후 당면한 선거 절박의식으로 관심은 원외로 쏠리고 본회의에선 외사정쟁수미달상태에서 진행되다가 폐회되고 말았다.

12대 국회는 「헌정사상 첫 합의개헌」 이라는 공로뒷면에 이렇듯 무성의와 비능률의 국회였다는 결책을 면하기 힘들것이다. 더군다나 합의개헌 또한 국회 공식기구(헌특위)를 통한 관철이 사실상 실패되고 노선전 이후 부속행위를 국회가 담당하는 격이 되어 버렸다는 점도 다시한번 상기해 볼 필요는 느낀다.

개헌논의의 시발점이 되었어야 할 기본권은 장외공방전과 총10차례(1차례 공전)의 임시국회와 3차례의 정기국회 흐미속에서 철저하게 경원시되었고, 그에 못지않게 중차대한 선거법 개정 논의는 그간 「여당의 공천을 받기만 하면 선거법을 초월한 자중해댁이 당연한 기득권」 처럼 부여되어 왔던 관례속에서 피상적이고 공학적인 선전효과의 절곡을 탈피하지 못했다.

「욕설은 있으나 대화가 없는 국회」, 「정의는 있으나당 변이 없는 국회」 라는 지적은 12대 국회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국회는 결국 폐회 되었으나 국회의 개폐문제가 대권향방과 명화히 차별성을 갖음을 인지한다면 합의개헌이라는 커다란 성과물에 자위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단 한번이라도 국민여망에 부응한다는 의미에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정선거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임시국회등을 소집해 거국중립내각, 선거감시기구 설치등의 현안문제를 놓고 국회의 권위를 회복할 수 있는 실천적 노력으로진지하게 논의해 볼이 옳을 것이다.

〈김상익기자〉

정권쟁탈전에 매몰, 민생·인권등 문제는 전시효과에 그쳐
공정선거, 거국내각 구성등을 위한 임시국회 소집해야

민주주의를 위장한 독재정권에 의해 무참히 유린당해온 우리 헌정사와 함께 이땅의 선거사엑시 공권력과 금권이 난무하는 부정선거의 역사였다. 우리의 선거는 본래의 의미와 목적을 상실당한채 민중으로부터 강제로 빼앗은 권력을 합법화하고 정당성을 확보하는 집권측의 수단으로 전락해왔던 것이다.

그러나 「호헌철폐」 「독재타도」 를 외치며 분연히 일어섰던 6월민중항쟁에서 대통령직선거를 쟁취해내었다. 그 후 개헌은 아주 기만적으로 이뤄졌고, 선거를 20여일 앞둔 시점에서 공정선거에 대한 회의는 당연한 귀결이라하겠다.

이승만장기독재정권 최후의 발악인 3·15부정선거당시 국방장관이었던 김정렬씨가 현 내각의 총수로 이번 선거를 주관, 집행함이 그것이다. 게다가 이번 선거를 공정하게 치르고자하는 국민적요구가 있음에도 여전히 고급공무원의 불필요한 지방출장, 통·반장을 이용한 집권당의 당원배가운동, 불량선심공세등 조직적인 관권개입의 작태가 속출하고있다. 한마디로 현 내각지체가 공평선거로의 길에 역행, 아니 부정할 소지가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렇진대 현 정권은 「거국중립내각」 구성의 필연성에 대하여 위헌, 탈법운동하며 민중의 힘으로 따낸 이번 선거과정자체를 완전히 장악하려들고있다.

따라서 국민대중의 민주화열기를 수렴할 수있는 공평선거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하겠다. 이에 종교계·학생·재야단체측에서의 「공평선거감시기구」 의 움직임들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 볼수있다.

지난11월16일 「민주쟁취 국민동본부」. 이돈명 변호사를 중심으로 불법부정선거를 저지키위한 「공평선거대책위」가 열렸다. 지긋지긋한 독재 40년동족키로 한 예비모임이었다. 20일 발대식을 갖고 채택된 결의문에서 「군사독재정권이 여전히 실권을 장악하고있는 현시점에서 금번선거는 벌써부터국민의 소망을 어둡게하고있다. 이에 우리국민은 민주주의란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스스로 주인된 자세로 지키고 건설하는것이라는 확고한 신념으로 모든 부정을 폭로·저지하고 공정선거감시운동을 전개해야한다」고 밝혔다.

한편「기독교공동위원회」「불교공동위원회」「천주교공동위원회」「대한YMCA연맹」등각 종교단체의 선거감시기구도 구성되고 있다. 이들 선거감시운동의 의의와 목적은 첫째, 국민대중의 공정하고 민주적인 선거참여보장으로 국민주권확립 둘째, 범국민주도에 의한 선거를 치룸으로 민주주의적의식각성 셋째, 선거후에도 민주사회전설을 위한 노력등으로 요약할수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각 단체별로 전반적인 조직연대의 틀은 형성되지못한 채 우선적으로 각각 대중홍보와 자원봉사자모집, 교육에 촛점을 맞추고 선거막바지에 법국민적 선거감시기구의 역할을 해내리라본다.

「천주교공동위」의 실무담당 김영근씨는 『전국의 투표소가 1만4천여개, 개표소가 240여개소이므로 각부·개표소당 평균 10명씩 약14만명의 자원봉사자들을 필요로 하지요. 때문에 민주주의와 공정선거에 대한 의지가 강한 국민개개인의 자발적인 참여가 그 어느때 보다도 절실합니다』고 한다. 선거사상 처음 민간차원의 감시단을 구성하기가 어려워 각 기구별·단체별로 전국민을 상대로 자원봉사자를 모집, 철저한 선거교육과 홍보를 주로 한다고 한다. 가장 핵심이라 할수있는 선거운동속에서의「감시기구」의 위상에 대하여 『어디까지나 감시기구 자원봉사자들은 초당파성을 견지합니다. 후보에 대한 지지는 한표의 행사로만 가능하지요』라며 자칫 선거전에 휘말릴 여러가지 어려움에 대해 정권의 방해책동 대처와 선거운동참여자의 입장을 피력했다.

박원규목사를 위원장으로 하는「기독공위」는 『공정선거운동지침서』 『필리핀자유선거국민운동』 등 자료집 발간으로 대중홍보작업에 들어갔으나 정권측에 의해 인쇄소에서 자료집을 압수당하는 한많이있었다.

지난 23일 YMCA강남지부 대강당에서 「YMCA연맹」은 발대식을 가졌는데 눈앞에있는 대통령선거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선거·지방자치제실시에 따르는 우리국민개개인의 주권의식고양과 부정선거를 방지함으로써 공평선거를 통해 민간민주정부를 수립하는 일이 정치적민주화의 첫 발걸음이라고 그 취지를 밝혔다.

「YMCA」는 실천과제로써 T·V, 신문감시운동과 모니터운동등 구체적으로 활동방향을 제시해 언론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국군장병의 자유투표운동등 전국적으로 이미 결성되어있는 「YMCA」 조직망을 통해 시민에게 교육, 홍보활동을 벌여나가겠다고한다.

선거사상 처음으로 범국민적 선거감시기구를 조직하고 활동하는데 있어 가장 커다란 전기를 마련해준것이 86년 필리핀 2월혁명에서의 민간선거감시기구 「자유선거국민운동」, 곧남프랭(NAMFREL)의 영향력이라하겠다. 이 선거부정은 정치제나가는데 각자가 일조해야하리라 생각됩니다」며 남프랭도 숱한 문제점을 안고있지만 꼭 배워야만 하는 교훈이라고 정토구현승가회 간사 유지호씨는 강조한다.

남프랭은 깨어있는 국민의 협동이 외미있는 선거를 획득하는데 필수적이라 밝혔다. 따라서 그 힘은 그, 자원자들의 용기·성실·기능에 의거했다. 또한 모든 자원봉사자들은 선거과정의 보호에 목적성을 갖고 「초당파성」 의 기본원칙을 고수했던것이다. 그리고 남프랭의 크나큰 업적은 84, 86년 선거를 특징지운 대규모의 조직적인 부정에도 불구하고 부정을 방지하거나 당국의 적절한 조치행동을 위해 그것을 기록했을뿐만 아니라 선거의 정확한 결과를 신속하게 알렸다는데있다.

그러나 염루에 두어야 할것은 남프랭이 필리핀선거위원회(COMELEC)의 합법적 인정을 말아 주로 참관인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중립·초당파적인 활동을 견지했다는 사실이다.

지금도 남프랭은 선거시 사전부정선거고발부터 투개표감시에 이어 새정부하에서는 정부사업에 대한 시민청취(M·onitoring) 등을 계속하고 있다.

단연코 한국과 필리핀의 상황은 같지않다. 기만적인 6·29선언이후 헌법협상, 국민투표, 대통령선거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정치상황은 군부독재종식과 민주화라는 우리의 과제앞에 험난한 장벽이 많음을 알수있다. 선거를 목전에 두고서 조직되어가는민간선거감시기구이지만 군정을 종식시키고 민주주의를 회복키위해서는 그 어느때보다도 주체적인 국민의 참여가 요구된다.

이에 국민대중은 내 한표를 지키기위해서도 끊임없이 부정선거행위를 고발하고 능동적인 범국민운동으로 발전시켜나가야한다.

또한 감시기구는 광범위한 대중의 참여를 유도키위해 공평선거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진행함과 동시에 충분히 예견되는 군부독재의 선거부정을 사전에 봉쇄할수있는 선거감시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조경운기자>

"민주주의와 공정선거에 대한 의지가 강한 국민개개인의 자발적인 참여가 절실합니다."

어둠을 탓하기보다 촛불을 켜자, 의교훈

◇「민간선거 감시기구」를 찾아서

「표감시」만이 아닌 민중의 뜻을 한 치의 왜곡됨없이 반영하는 올바른 장(場)의 민간선거감시기구가 되어야

OPC 그룹 직영 국내 최대시설 교육기관

컴퓨터

전산요원 수강생 모집

⊙개강 : 12月1日(火) 현재 접수중(공휴일도 접수함)

과정		기간	교육내용
정보처리 전문과정		7개월	전산개론, FORTRAN-77, ASSEMBLY STRUCTURED COBOL-I, COBOL-II, 실무BASIC, 실무COBOL, 응용 PACKAGE
정보처리 속성과정		4개월	전문과정과 동일
키펀치 오퍼레이터		4개월	전산개론, 주자, 입키, 입호자, 안내, 안보, BASIC, W-P, KEY OPERATION을 女講師가 개인지도
기업체O·A 연수과정		4개월	전산개론, 실무BASIC, 실무COBOL, 응용PACKAGE, 기계OPERATION
업무전산화 과정		각2주	인사급여, 회계관리, 생산관리, 원가관리 수송·입관리, 판매, 판금·판매관리, MRP 및 자재, 병원관리, 도서관리
방학특강	정보처리 기사과정	1개월	정보처리 기능사, 기사1·2급, 본원저술 원기·심기문제 직접해설 강의
	응용 PACKAGE	1개월	기계OPERATION, MS/DOS, DBASE-II·III, LOTUS 123, MULTIPLAN, WORD PROCESSOR
	C 언어	1개월	C프로그래밍(마이컴C언어 및 대형 C언어) 기법 및 실습

⊙교육방법
「초신자 방향제시에서부터 정보처리 전문가로 양성(완전실무교육), 필요과목 선택 수강 가능,
국내 교육기관중 최대 컴퓨터 실습시스템운용, 초대형 MV-10000슈퍼컴(6미이날256대)과 OP-COM/AT (16 BIT : 95대)로 FULL DAY개인 자유실습

⊙수료후 진로 : OPC개열사 및 612개 MV컴퓨터 및 OP-COM보급사 진출, 일반회사 및 전산공무원 추천, 각군전산병 입대,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응시, 해외이민 유학준비

⊙특 전 : 그룹지원 수강료 감면, 전철등학권 50% 할인 HARRIS및 OP-COM구입시할인, OPC컴퓨터 공장 견학

⊙문의전화 : 566-6266~7(09 : 00~21 : 00)

⊙위 치 : 강남 전철역 뉴욕제과 뒷편, 오른쪽 20m

※방문시 : 대형전산실전체 및 교육과정적성문제가 제제된「컴퓨터 현황과 성보」책자증정

OCI (OPC가족 : 구 동양시스템 전산학원)

동양전산전문학원

동계방학 외국어 특강

시간 \ 강의실	3501	2854	A.V. Room	2306	3106	3306
9:20 | 10:40	아카데미 TOEFL A	이재욱 TOEFL B	Basic English C	영어순해 D	Vocabulary 33,000 E	영어회화 (초급) F
10:50 | 12:10	아카데미 TOEFL G	Vocabulary 22,000 H	TOEFL 종합문제 I	헤럴드 영문독해 J	시사 TOEFL K	영작문 L
12:40 || 14:00			표준 日本語 M	Words People Use N	TOEFL L.C. O	

강의기간 : 12월 28일~1988년 2월 18일(월~목)
장 소 : 중앙대학교 사회과학관
수 강 료 : 각 반 ₩10,000
접수기간 : 12월 14일부터(선착순 마감)
접 수 처 : 어학원 사무실(사회과학관 1층)

시간 \ 강의실	9:20~10:10	10:50~11:40	12:40~13:30
3403	미국인회화 (중급) P	미국인회화 (중급) Q	미국인회화 (고급) R

■ 강의기간 : 1987. 12. 28(월)~2. 18(월~목)
■ 수 강 료 : ₩25,000
■ 접수기간 : 12월 14일부터(선착순마감)

중앙대학교 어학원
FOREIGN LANGUAGE INSTITUTE

SLE
INTENSIVE ENGLISH CONVERSATION PROGRAM

- Placement Test를 거친 Level별 학급편성
- 동일Level로 구성된 12명정원제
- 영격한 학사관리
- TESL(영어교육학)을 전공한 실실한 미국인 강사진 담당

Placement Test매월 20일부터 (1시, 2시, 3시) 3회

PAGODA
I CAN DO
LANGUAGE SCHOOL
274-4000/6821~2

혜진詩選集 29

인당수에 부는 바람

河吉男 詩集

서정의 농숙과 참신성을 지닌 有精卵의 詩篇들!

하길남에 있어서 詩란 바로 인연의 줄을 찾아가는 영혼의 자기구제의 방법일 것이다. 인당수 물의 효험이란 바로 그 죽음과 환생 그리고 눈멀과 눈뜸이란 영혼의 변증법이 아닐 것인가. —

값 2,500원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345-3호 ☎712-7398

혜진서관

한국 방문 최초서구인 「세스뻬데스」에 대한 새로운평가

세스뻬데스는 일본군의 종군신부로 방한한 것이 아닌 복음전파를 위한 예수회선교사들의 노력에 의한 방문

세스뻬데스는 한국의 존재와 모습을 정확하게 서구에 알려

최근 국내외적으로 주준히 「그레고리오·데·세스뻬데스」 (Gregorio de Cespedes) 에 관한 연구가 계속되면서 점차 학계나 일반인들에게까지 큰 관심을 끌어온 것이 사실이다. 16세기 일본땅에서 선교활동을 하던 예수회 선교사들 중의 일원이었던 세스뻬데스 신부는 일진왜란이 일어난 다음해인 1593년 가톨릭 일본대병들의 주선으로 한국땅을 밟게 되었으며, 당시 경상도 일대의 해안지방에 1년동안이나 머물면서 보고 들은 당시의 상황을 글로 적어 일본에 있는 예수회 부관장 뻬드로·고메스신부에게 알렸다.

세스뻬데스 신부는 한국땅을 최초로 밟은 서구인으로서 직접 한국땅에서 당시 전쟁의 상황을 글로 적어 남김에 기록적인 면에서도 그 의미는 매우 큰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세스뻬데스의 서간문들은 당시의 사건을 기록한 것으로 여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동시에 문학적 측면에서도 서구에 알려진 한국에 관한 최초의 직접적인 기술일에 그 의미는 더욱 큰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외의 문헌에 세스뻬데스 신부의 국적뿐만 아니라 한국을 방문한 연도 및 체류기간, 방한 동기등에 대해서 각양각색으로 기록되는등 많은 오류를 거듭해 왔다. 이처럼 세스뻬데스에 대한 연구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일차적인 자료들을 발굴하지 못하였고, 16세기 스페인어 기록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데 있었다. 또한 세스뻬데스의 한국방문이 우리의 역사 속에서 매우 불행한 사건이었던 임진왜란을 계기로 일본의 천주교 대병들의 주선에 의해 한국땅을 밟게 되었다고 하여서, 세스뻬데스 신부를 침입자들과 같이 적대감정으로 잘못 평가했다고 본다. 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는 그동안 직접 발굴한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서 세스뻬데스의 새로운 평가를 하여 지금까지의 오류와 속단을 시정하고자 한다.

1. 세스뻬데스 신부의 새로운 자료

그레고리오·데·세스뻬데스 신부는 지금까지 많은 국내외 문헌에 국적, 출생지, 출생년도등이 잘못 기술되어 왔으며 한국땅에 온 연도 및 체류기간등에 대해서도 부정확한 기술을 해왔다. 더우기 세스뻬데스의 가족상황이나 가계에 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였다. 유럽 고문서보관소및 도서관에서 자료발굴을 토대로 (1983~1985년) 새로운 자료를 찾아 정리할수 있었다. 세스뻬데스는 1551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세스뻬데스·데·오비에도 석사와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당시 마드리드 시장으로 1557년까지 그 직을 수행하였다. 석사학위도 소유한 마드리드 시장이었던 그의 아버지의 신분으로 보건데 세스뻬데스는 명문 가정에서 출생하였음이 밝혀져 스페인 학계에서도 관심을 끌었다. 세스뻬데스신부는 1569년 1월28일 살라망까에서 예수회에 입회하였으며 그곳에서 수업한후 알헤한트로·발리그나노신부에 의해 동양 선교단의 일원으로 선발되어 리스본, 모잠비크를 거쳐 1574년 인도의 고아에 도착하였다.

그곳에서 계속 수업한 후 1575년 신부로 서품받았다. 그 이듬해인 1576년 일본을 향해서 우선 마카오로 건너간 후 그곳에서 14명의 동료와 함께 1577년 6월16~17일에 나가사끼를 향해 출발하였다. 본인의 서간문에서 밝히듯이 극동에 까지 오게된 것은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른 선택으로 이루어졌다. 그가 극동 땅에서 34년동안 선교활동을 하던중 남긴 서간문중에서 모두 14통의 글을 유럽땅에서 발굴하였으며, 그중 4통은 한국땅에서 기록한 글이다. 그는 일본어에 매우 능통했으며 건장한 체격으로 건강을 누렸고, 또한 깊은 인품과 덕망은 그 누구도 그를 따르지 못하였다.

2. 세스뻬데스의 서간문 기록의 의의

오늘날까지 세스뻬데스 신부에 관한 연구는 몇차례 국내외적으로 관심있는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특히 미국인 벌프·커리가 1937년 처음으로 왕립 아세아학회지에 연구논문을 발표한 이래로 그이상의 논문이나 연구가 진척되지 못했다고 본다.

다만 1939년 일본인 山口正之가 벌프·커리의 연구를 토대로 세스뻬데스 신부의 방한 활동에 관한 연구를 발표하였다. 그후 외국인으로는 Johannes Laure에수회 신부의 단편적 연구가 있었으며 최근본인의 연구 후 로마에수회 역사연구소의 『루이스·데·메디나』 신부가 16세기 한국가톨릭연구 속에서 이를언급하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1964년 한국사학회지에 「김양선」 목사가 『세스뻬데스의 방한활동에 관한 연구』를 발표하였는데 슬직히 보아서 전자의 벌프·커리와 山口正之의 연구를 종합·정리한 것이며 여기에다가 다만 루이스·구스만의 1601년 발행 『선교사들의 이야기』의 일야한 번역내용을 인용 소개하였다. 그러나 세스뻬데스를 종군신부로 호칭하는 등 억측과 속단으로 그의 연국논문에서 수많은 오류를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지금까지 국내 종교사 및 사학회에서는 김양선씨의 세스뻬데스신부에 관한 연구를 원전으로 삼고 이를 잘못 인용해 왔다. 특히 방한동기, 방한일자, 방한기간, 방한활동등에 잘못 연구되었음을 지적한다.

이러한 오류를 지적하는 근거로 본인은 유럽에서 직접 발굴한 14통의 세스뻬데스 신부의 서간문과 기타 고문서를 참조한것임을 밝힌다.

세스뻬데스 신부가 임진왜란을 직접 목격한 유일한 서구의 증인이라는 점에서 그의 서간문에 주목할 가치가 있으며 서간문에서 나타나듯이 선교사들은 모두가 임진왜란이 애초부터 일어나지 않기를 바랐으며 일본국민들도 원치않은 전쟁일뿐 아니라 단지 영웅심으로 가득한 히데요시 혼자만의 망상에 의해 저질러진 무모한 모험일을 알수 있다. 또한 필본에서 쓴 서간문을 통해서 히데요시의 인물평가의 묘사를 알수 있는데 그의 성품은 잔인무도하며 재물에 탐욕이 많아서 선교사들이 그를 만나기 위해서는 수많은 서양의 진귀한 물건들을 선물로 주어야만 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간문에서

▲사진은 쎄스뻬데스 친필 편지。

3. 세스뻬데스는 일본군의 종군신부가 아니다

세스뻬데스의 방한은 전쟁중 가톨릭신자 일본 대병들의 주선에 따라서 이루어졌으나 지금까지 국내 문헌에서 기술하는 것처럼 일본군의 종군신부로서 한국까지 따라온 것이 아니라 복음전파를 위한 포부를 갖고 순수하게 선교사업의 일환으로서 한국땅을 밟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세스뻬데스의 한국 방문이 우리의 역사 속에서 불행한 사건이었던 일진왜란을 계기로 하여 일본의 천주교 대병들의 주선에 의해 선교사 추방령으로 인하여교오도지방방을 떠난 세스뻬데스 신부는 규슈의 여러 지방에서 은폐하면서도 비밀리에 선교활동을 하고 있었다. 1592년 일본의 조선 침략이 시작되었고 그 선봉에 규슈의 천주교 대병들이 나섰다. 처음 몇달의 계속적인 승리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상황은 침략자들에게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1592년 일본 예수회 연혁보고서 부록」 편에 따르면 일본은 전쟁개시 몇달후에 이미 병력의 3분의 1을 잃었다고 기록하고있다. 1593년에 일본군은 한국의 남해안으로 철수하여 그곳에 세워진 12개의 요새에 포진하고있었다. 이 무렵에 열렬한 천주교 대병 고니시·유기나가(小西行長)와 몇명의 규슈지방 대병들의 주선으로 신부를 한명 한국땅으로 불러 들인다. 당시 일본 예수회 준관구장 「페드로·고메스」 신부는 침략에 응해 세스뻬데스신부와 일본인 수사 「환안·페응」을 파견한다.

여기서 우리는 세스뻬데스 신부가 일본군의 종군신부로서 방한한 것이 아니라 순수한 복음전파를 위한 예수회 선교사들의 노력의 결실로 방한한 사실을 밝혀보기로 하겠다. 역사적으로 볼때 1571년 예수회선교사 「가스빠르·비렐라」 신부가 처음으로 한국땅에 복음전파 시도를 했던 서간문을 접할수 있었다. 그는 3차례나 편지에서 한국방문 의도를 간절히 갈구했음을 알렸다. 앞에서 기술했던 「안토니오·브레세스띠노」 신부도 1578년 한국땅에 복음을 전파했으면 하는 기원의 뜻을 서간문에서 적었던것이다.

그후 예수회 선교사들이 한국땅에 복음전파를 하고자 하는 노력은 1592년 이전까지는 굳게 닫힌 폐쇄적인 한국의 문호를 열지못했기때문에 이루지 못했다고 본다. 1592년 전쟁으로 인하여 일본군 중에 2,000여명의 가톨릭 병사와 대병들이 한국땅 내부로 들어갈 수 있었음에, 이 기회를 이용하여 선교사들은 평소 가까이 친분을 가졌던 천주교 대병들의 도움에 힘입어 한국땅을 밟고자 기다렸을 것이다. 그러나 주지하는 바처럼 1587년 이미 히데요시의 천주교 탄압령이 공포되었으니 선교사들의 포면적인 활동은 금지된 상황에서 이를 어기고서 서구의 신부들이 한국땅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앞에서 기술했듯이 세스뻬데스의 방한은 고니시 (小西行長.) 를 비롯한 규슈의 천주교 대병들의 주선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졌다. 이들은 예수회 선교사들의 1571년부터 한국 선교의 의지를 알고 있었을 것이었다. 또한 일본군 가톨릭 대병들도 이국땅에서 신부의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다.

정리하자면 세스뻬데스 신부는 일본 천주교 대병들의 주선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된 동기가 되었으며 종교적 임무가 그에게는 가장 큰방한의 이유였음은 확고하. 다또한 열렬한 천주교 신자 대병 「고니시」 와 규수의 대병들이 예수회 선교사들의 조선땅에서의 오래된 복음전파를 위한 숙제를 풀어주기 위하여 히데요시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은밀하게 세스뻬데스의 방한을 주선하였던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전후 상황을 고려하여 크다.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 주는 자료로서 세스뻬데스 신부가 실제로 한국땅에 머무는 동안 「고니시」 가 불릭대병의 주선과 호의로 중국의 사절과 만나 중국과 조선에서 선교사들의 복음전파 활동문제를 얘기한 사실이다.

그후 이러한 세스뻬데스의 노력은 1596년 고니시·유기나가 대병의 주선으로 「오르간띠노·솔도」신부와 「프란시스꼬·빠시오」 신부에 의해 재시도되었다. 즉 히데요시와 평화협상을 위해 일본에 왔던 중국 사절들에게 다시한번 중국과 한국땅에서 복음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물론 이러한 예수회 신부들의 노력은 평화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이루어지지못했다.

이와같은 이유에서 본인은 세스뻬데스 신부를 1593년 일본군의 종군신부로 방한하였다고 속단한 지금까지의 주장은 옳지 못하다고 본다. (김양선 『일진왜란중군신부세스뻬데스의 내한 활동과 그영향』, 사학연구 제18호, 한국사학회, 1964).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 주는증거로써 세스뻬데스신부의 서간문내용을 토대로 제시할 수 있다. 즉그의 방한은 히데요시 몰래 은밀히이루어졌고, 일년만에 그의 형적이발각되어 타의에 의해 일본으로 돌아간세스뻬데스는 서간문에서 자신은 은밀히 남해안 고푼가이(웅천)부근에 도착하여서 천주교 대병의 영접을 받았다. 특히 그는 고푼가이 성에 주로 머물면서 일반 병사들와는에 띄지 않게 성채의 제일높은 윗부분에서 지냈으며 주로 밤을이용하여 선교활동을 했음을 그의 편지에서 볼 수 있다. 세스뻬데스의 1597년 자필 서간문에서 말한대로 당시 한국땅에는 불과 2,000여명의 일본군 천주교병사들 밖에 없었다.

이는 오늘날 국내 문헌에서 당시 임진왜란에 참전한 일본군 중에서 10%이상이 천주교신자 라거나 12,000~20,000명이라고 한 사실을 지정해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국내문헌에서는 이렇게 과장된 천주교병사숫자를 근거로 세스뻬데스 신부가 일본군 사제로 온 것이양 잘못 주장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세스뻬데스의 방한 사실은 불과 일년만에 발각되어서 불교신자 대병인 가또·기요마사 (加藤清正)에 의해 히데요시에게 고자질 당하고 일본으로 돌아가야만 했다. 민일 그러한 밀고가 없었다면 그의 한국 체류는 훨씬더 길어졌을 것이며, 예수회 선교의 의도대로 한국땅에서 본격적인 복음전파 계획을 실행에 옮겼을 것으로 볼 수 있다. 루이스·데·구스만의 『선교사들의 이야기』 (1601년 발행)에서 기록하듯이 세스뻬데스 신부는 귀환 길에 대마도에서 포로로 잡혀있던 한국어린이 한명을 일본의 신라고로 데리고 간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후 예수회 선교사들의 노력으로 수많은 한국인 포로들이 일본땅에서 천주교 신자로 개종시킨 흔적은 서구문헌에 너무나 잘 나타나 있는 사실이다.

4. 세스뻬데스의 새로운 평가

스페인과 플루갈인들을 중심으로한 예수회 선교사들이 외해 처음으로 동양과 서양의 문학적 접촉이 16세기에 이루어졌다. 그러나 서구 선교사들은 1592년 전까지는 한국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지도 못했으며 접근조차 이루어지지 못했다. 당시 조선 왕국은 임진왜란을 계기로 하여 굳게닫혔던 문호가 바의에 의해서 열렸고 전쟁을 통하여 그때까지 가려졌던 베일이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다. 이 때를 놓치지 않고 일본에서 활동중이던 서구 선교사들은 한국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전쟁의 상황과 함께 한국에 대한 기술을 하였다. 바로 세스뻬데스 신부도 1593년12월27일 전쟁의 와중에 한국땅을 밟게 되는 최초의 서구인 되었으며 보고들은 당시 상황을 적은 서간문을 남겼다. 이런 점에서 세스뻬데스 신부동료 예수회 선교사들은 16세기에 처음으로 『한국의 존재와 모습』을 정확하게 서구에 알린 사람들이 틀림없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세스뻬데스 신부의 출생과 가계에 대하여 처음으로 직접적인 자료발굴을 통해 밝혀내었으며 오늘날 국내문헌에 플루갈인으로 잘못 쓰여진 세스뻬데스 신부가 1551년 당시 마드리드시장의 아들로서 출생하였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것은 한·스페인 양국간에 첫 역사적 접촉의 흔적에서도 더욱

박 철

<서반아어과교수·스페인문학>

큰 의미를 던져준다고 하겠다. 또한 지금까지 부정확하게 기술되어온 세스뻬데스 신부의 방한 일자, 기간, 활동등을 그의 서간문 발굴을 통해 올바르게 정립하였음에 앞으로 역사및 교회사 문헌에 참고가 될줄로 믿는다.

또한 세스뻬데스 신부의 방한은 예기치 않게 한국해안에 표류한 플루갈 상인 (조앙·멘데스) 의 도래와는 근본적으로 역사적 의미가 틀림을 알수 있으며 풍랑으로 제주도에 표착한 헨드릭·하멜보다 정확히 60년전의 일이다.

또한 세스뻬데스 신부의 방한은 동기적 의미에서는 천주교 일본대병들의 주선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복음의 활동의 의미를 국내문헌에서는 임진왜란중 일본군의 종군신부라고 근거없이 단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본다. 1592년 전까지 굳게 쇄국정책을 펼친 한국땅을 세스뻬데스 신부는 전쟁을 계기로 일본군을 따라 왔지만, 그것은 한낱 동기에 지나지 않으며 그가 한국땅에서 남긴기록들은 우리에게 긍정적이고 매우 귀중한 역사적 자료임을 부인할 수없다. 임진왜란이 우리에게 불행한 역사적 기억이었다고 세스뻬데스의 방한의 역사적 의미를 함께 망각해서는 안될 것이다. 세스뻬데스 신부와 그의 예수회 동료들이 남긴 기록을 통해 역사적 사건을 재음미하고, 올바른 역사의 교훈을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직도 우리의 지난 역사를 기술한 수많은 자료와 그들이 해외의 도서관 등지에 산재해있다.

본인의 연구는 시작일 뿐이며 앞으로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해외에 있는 직접적 자료발굴의 연구에 초석이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아울러 국내 사학및 종교사 연구에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金小葉詩集

발간 석 달만에 7판 발행

님을 그리는 승화된 사랑의 詩美學, 영혼으로 만나는 순정한 사랑의 갈구

그대는 별로 뜨고

文學世界社 (764)2672.

2,000원

MUCH 더치모어 MUCH • MORE

New 영동의 더치모아 새롭게 모습을 바꾸었읍니다.

그리고

더치모아는 젊은 활력 있는 영업 합니다.

디스코텍 더치모아 영동제일상명 뒤 568-3003

비만

10일에 약10kg 감량

명동에서 5분거리 한국동에 출장한 솔속과 같은 500여평 국내 최대 최신 호텔식 건물로 살이 빠지면 다시 찌지 않고 고생없이 더욱 많은 체중감량을 위해 일반 단식원의 문제점을 완전히 보완하고 국내 최초로 테이저 싸우나, 분무타슬림(지방분해) 임파베트·코머스트(지방제거)·데모비냐(48시간 살독분해)·바이블레이션(지방·근육·피부마사지 혁명) 오존과부미용기기 등등 일본 독일에서 도입하여 확실한 감량을 위해 써비스해드립니다.

단식+다이어트+침단기계+철저한개인지도 =완벽한 성공률 보장!!

● 옛날와고 아기한 갈려온방, 피부리사 맛사지실 완비
● 효가·에어로빅·웰스닝·싸우나(독립, 개인전세계) 독립실 독립실·개인상담실 완비, 생체에너지요법실
● 국내최대의 분화, 오락, 여가시설완비(컴퓨터슬롯, 당구장, 배드민턴, 배구, 산책로, TV, VTR, 음악감상실 등등)
● KBS·MBC·TV 수십회 보도(22년역사) CBS 매주방송출연 최신형 비스코 관광지·온천·수영장 개발지요소개
● 출퇴근한 자가용으로 시켜줌.
※ 2주에 7kg이상 빼는 식품 판매.
● A코스 : 10일에 단식과 원단기계로 8~12kg 감량한.
● B코스 : 20일에 단식에다가 원단기계 10~14kg 감량한.
※ 일반단식원의 5배이상 규모, 선진국처럼의 국내 최첨단시설, 최상의 분위기, 체중 원건감량후 체질 검사에 의한 개인별 원장직접 식단제공
※ 버스 : 현대빌딩, 한국일보사 또는 정독독서실, 한국병원앞, 낙원상가뒤 덕성여대 앞에서 전화요망.
※ 전철3호선을 타고 종로 안국역에 하차 전화요망.

☎ 744-2000, 3000 2100, 3400

코리아다이어트센터

컴퓨터

통학권 발급,휴일도 접수함.

18년의 전통 높은 취업률 풍부한 실습시설 국내 최대의 전산학원

프로그래밍 정규과정

개강 : 매월 첫째 월요일

프로그래밍 정규과정 (7개월)
프로그래밍 전문과정 (1년)
프로그래밍 속성과정 (4개월)

과목별 선택수강 가능

EDPS입문, FORTRAN, COBOL, ASSEMBLY BASIC, DOS 및 CP/M, DATA BASE, SYSTEM분석 및 설계, WORD PROCESSOR, 자료구조, 기초통계, C-LANGUAGE, PASCAL

※ 대학생 동계방학 특강 ※

1. 프로그래밍 특강
● 과목 : PASCAL, FORTRAN, BASIC
● 기간 : 12월 14일~2월 12일 (8주)
● 시간 : 오후 2시~5시까지
2. 정보처리기사 대비특강
● 기간 : 12월 14일~2월 12일 (8주)
● 시간 : 오후 2시~5시까지

본 원	종 로
이대입구 전철역앞(중앙빌딩) 313-1711~4	단성사앞 비원쪽 (중앙빌딩) 745-0461~2
영등포 영등포역 아의도쪽 100m(한진앞) 678-3785,0750	영 등 영 등 시가리 주택은행앞 546-4255~6

부 산 부산역앞(중앙빌딩) 43-0444~6

컴퓨터 교육의 명문

중앙전산학원

디자인 DESIGN COURSE

겨울방학 특강반 모집

■학과	■코스
인테리어과	3개월/5개월반
그래픽디자인과	〃
컴퓨터그래픽과	〃
패션일러스트과	〃
디스플레이과	〃

수료생전원 책임 취업추천

■비전공자 大學生 진학 합격지도 (최고합격율)
■유학 희망자 포트폴리오 제작지원
■日本MELON DESIGN SCHOOL 자매결연
■IBM CAD SYSTEM 및 최신 기자재 설치
■現 大學강사 및 실무경력 디자이너 출신 강사진
■MBC-TV및 각 매스컴 참단 디자인 교육기관으로 취재보도

院長 金秀昊

現 한양大 講師·弘益大·同大學院 卒

세잔디자인스쿨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40-20

TEL : 312-9914/9915 (이대입구)

당신의 미래를 위해 지금 日本語를 배우십시오!!

일본어는 일반교양물이, 전산, 컴퓨터, 정보, 패션등의 일부 전문직종에서만 필수적으로 쓰이는 언어가 아닙니다. 일본어는 몇개의 분야만 제외한 사회전문직에서 광범위하게 요구되는 현실적인 「누구가 배우기 쉽고 높은 언어」입니다.

「일본어」는 전문학원에서 가장 빠르고 쉽게 배울수 있읍니다. 「時事日本語學院」은 「일본어 전문학원」입니다.

기초에서 고급 독해까지

● 정통문법코스
● 日本人회화코스
● Free-talking
● 유학시험시험대비종합반
● 유학, 考試일본어
● 고급독해, L C집중코스

日本유학 특별종합코스

강의 및 위치안내 735-3939, 2636

종로 2가 서울예식장에서 조계사쪽으로 30 m

時事日本語学院

「선지원 후시험」 대학입시의 대처방안

이 은 진

〈 교양학부교수·교육학 〉

1988년부터 대학입시제도가 급선회되었다. 종래의 선시험 후지원이 선지원후시험으로 바뀌고, 문제형식도 4지선다형재관식 위주에서 약간의 주관식을 가미하고, 또 논술고사는 없어진다. 그리고 중앙교육평가원은 시험 문제의 출제만 맡고, 시험의 실시, 채점 및 합격자 발표는 각 대학에서 하도록 하고 있다.

사실, 그동안 7년여 동안 실시해 온 대입학력고사에 의한 선시험 후지원제는 해가 바뀔수록 지탄의 목소리가 점점 거세지면서 작년에는 그 결정을 이루었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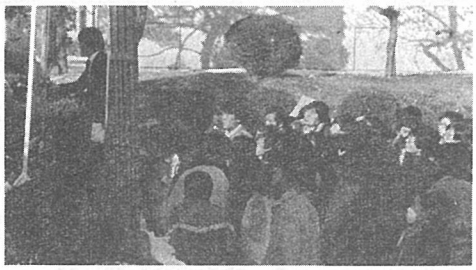
지원자들이 대학및 학과를 선택하고자 할때 일단 붙고보자는 심리에서 연유한 극심한 눈치작전은 대학의 지원접수창구에서 큰 혼란을 일으키는등 그 후유증은 지금도생생하다.

그 보다도 이러한 눈치 지원은 학생들의 적성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대학 진학후의 학업에 대한 관심과 열의의 이탈은 더 큰 문제로 연결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오랜기간 객관식 선다형 위주의 학력고사는 학생들의 요령신만키울뿐이라는 비판도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폐단을 극소화하기 위해서 교육개혁심의위원회는 대학의 자율적 기능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대입 제도의 장기적인 개선을 건의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그 시발로서 첫 해인 1988년에는 일단 시험문제는 중앙교육평가원에서 제작하고 시험의 실시, 채점및 발표는 대학에서 하도록하며, 종래의 선시험 후지원을 선지원 후시험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따라서 이렇게 바뀐 입시제도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 1988학년도 대입지원생들은 종래와 다른 진학전략을 세워야할 것이다. 즉, 대학및학과선택, 주관식 문제에 대한 대비등 여러가지 사항들을 생각할수 있다.

이렇게 바뀐 입시제도에서 지원생들을 괴롭히는 가장 큰 변수는 대학 및 학과를 지원한 학생들끼리 경쟁을 벌여 합격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다시말하자면 선시험의 경우는 자기가 획득한 점수를 먼저 알고 대학 및 학과를 선택하는 경우로 자기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및 학과의 수준에 비추어서 지원하기 때문에 적중율을 높일 수 있다는 잇점이 있었다. 그러나 선지원의 경우는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가진 학생들이 지원할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만큼 합격에 대한 기대율이 낮아지게되는 셈이다. 마치 안개 낀 날에 멀리떨어져 있는 과녁을 맞추는 격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원자가 우선하여 고려할 사항은 자기의 관심영역이 무엇이며, 자기의 적성은 어디인가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대학은 교육의 마지막 단계이자 긴 인생의 출발점이라고 말할수 있다. 대학을 떠나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사회의 많은 일들 가운데 자기가 해야할 일을 찾아 긴인생의 여정을 걷게 된다. 그러므로 그 첫걸음으로서 대학의 학과선택은 그만큼 신중해야 한다.



▲입학철마다 보다는 그 후유증이 지금도 생생하다. 사진은 본교의 지원상담관에 몰린 지원자들. 87년

다면 안개속에 묻혀진 과녁은 머얼리 달아나 적중율은 그만큼 낮아질 것이다.

다음으로 자기의 지망 학과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학과의 전공분야에 대한 흥미와 적성을 가장 먼저 알아보아야 할 일이다. 그러한 점에서 담임 선생님이나 진학지도 선생님의 충분한 진학 상담을 가지는 것이다.

선시험의 경우에는 자기의 점수를 먼저 알고 지원하므로 선배, 친지, 또는 기타 자료를 참고하여 결정할수도있으나, 선지원의 경우에는 종래와 여러가지 참고자료는 그만큼불확실하게 작용하므로, 자기의 실력과 적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학교 담임선생님이나진학지도선생님의 조언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지원 마지막날 눈치작전은 금물이라 생각한다.

다음으로 지원자가 염두에 두어야 할일은 주관식 문제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그동안 학교에서 단답형 또는간단한 서술형의 주관식 문제에 대비한연습을 쌓았을 것이다.

앞으로 3주 남짓한 이 시점에서 주관식 문제에 대한 대비라면 각 교과목의 기초적인 개념을 중심으로 공부해야할 것이다. 학생들의 변경된 대입준비에 따른 혼란과 부담을 줄일려고 복잡하고 고차적인 정신능력을 들어보는 문제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소홀히 대해서는 안되고, 각교과목별 요점을 정리하는 정도로 대비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110여개의 4년제 대학들이 있다. 이들 각 대학은 그들 나름대로의 전통과 학문적 풍토를 형성하여왔다. 그러나 작금에는 각대학의 독특한 풍토를 찾아 보기가 힘들정도로 보편화되는 추세이다.

그러나 한국 외국어대학교는 다른 대학과 뚜렷이 구별되는 전통과 학문적풍토를 쌓아온 학교이다. 그 하나는 본교는 외국어를 중심으로 발전해 온 대학이라는 것이다. 오늘날 세계는 교통·통신의 발달로 모든 나라들이 가까운 이웃에 사는것 처럼 교류가 늘어났다. 이렇게 가까이 상호교류를 유지하려면 다른 나라의 언어를 모르고서는 불가능 하다. 한편 우리나라는 정치적, 경제적, 지리적 위치를 생각할 때 외국과의 교류 및 교역의 확대는 필수적이다. 이 경우에도해당국의 언어를 모르고서는 불가능하다. 이러한 배경아래외국어 교육을 중심으로 발전해온 독특한 풍토를 가지고 있다.

세간에는, 외국어대학교에서는 마치 앵무새처럼 외국말을 흉내낼 줄아는 사람을 길렀지 지성인이 갖추어야할다양한 학문경험을 쌓는데 불리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들을 하고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은 하나의 기우일 뿐이지 근거없음을 외대의 교육과정을 살펴보면알 수 있다. 외국어대학교는 바로 이점을 감안하여 설립 당시에 부전공제도를 도입하여 현재까지 존속시키고있다. 이 부전공제도는 다른 대학에서는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제도이다. 왜냐하면모든 학생들에게 부전공을 이수시킬 수 있도록 하려면 그만큼 강의 시간의 증가및 교수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외대는 앞에서 말한 외국어만으로써의 편식을 막기 위해서 현재 18개학문 영역의 부전공을 별도로 개설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학생들은 외국어를 기본으로하고 경제계, 정치계, 사회계, 어문학계중 1개의 학문영역에서 다양한 학습경험을 쌓아 보다 차원높은지성인으로서의 자질을갖출 수있다. 한편, 사회계, 인문계, 자연계열의학과를 전공으로 하는 학생들은 외국어를 부전공으로 택하여 공부할 수 있으므로 자기의 전공에 외국어를 부장시킬수 있다.

외대의 부전공 제도의 장점은 이에끝나지 않는다.

부전공을 이수한 학생은 이것을 기초로 하여 복수전공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지치, 대학 진학시 자기의 적성과 어긋나는 학과를 지원해서 입학한 경우, 부전공을 살려 부전공 영역의 학점을 더 이수하여 자기의 적성에 맞는 실질적인 전공으로 삼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다. 바로 이 복수전공은 부전공을 택할 수 있는 기회가 개방됨으로써 가능하다. 그래서 다른 대학에서는 복수전공은 불가능하며, 현재 외대는 약 300명정도의 학생들이 복수전공을 하면서 5년간 2개의 졸업장을 갖고 사회에 진출하고 있다.

> 본교는 18개 학문영역의 부전공을 개설, 전공학과를 기본으로 정치계·경제계·사회계·어문학계 중 1개의 학문영역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 차원높은 지성인의 자질을 갖출수 있다

자칫, 편식에 빠질까하는 염려하에 외대는 교과과정에서

학업성적과 적성을 통한 지망학과 선택이 필요

주관식 문제의 대비책은 각교과목의 기초적인 개념을 중심으로 요점 정리해야 한다

언어학과

언어학과가 신설되었다. 따지고보면 33년 지각탄생인 셈이다. 사실은 개교와 함께 설립되었어야하는 학과이다. 그러나 그 동안 언어학교수들은 여러 학과에서 활동하고있었기 때문에 33년의 격차를 금방 메꿀수있다. 보편언어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각기 다른 언어들은 특수언어에 불과하다. 역으로 말하면, 특수언어들의 공통된 속성은 보편언어의 골격을 이룬다. 따라서 보편언어이론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언어학과의 출범은 각기 다른 특수언어들의 연구에 구심점이 된다는 외미에서 외대에 언어학과의 출범은 극히 당연하며 필요불가결이다.

교과운영은 전공과목과 부전공과목으로 이루어지며, 전공분야는 첫째로, 지성인에게 필수적인 배경학문으로서 철학, 논리학, 심리학, 사회학, 문화사 등을 하급학년에서 이수케한다. 둘째로, 외국어는 영어를 기본으로 하고, 그외에 두개의 외국어를 합해서 세개의 외국어에 능통케 한다. 셋째로 상급학년에서는 언어학이론에 접함으로써 과학적 논리적 사고방식을 기른다. 이것은 대화의 논리적 전개와 직결된다.

졸업후 진로는 네가지의 길이있다. 첫째로 외국어교사 또는 외국어교수의 길이 있다. 외국어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부전공으로 외국어교수법 중심의 교직과목 이수가 요구된다. 외국어교수의 진로를 위해서는 대학원 진학이나 해외유학의 길을 택해야 한다. 둘째로 동시통역사의 길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통시통역대학원에로의 진학이 필수적이다. 셋째로 매스컴 계통에로의 길이 있다.

2천년대를 향한 새도약

—88학년도 신설학과 소개

언어학과의 출범은 각기 다른 외국어의 연구에 구심점이 돼

이를 위해서는 신방학을 부전공해야한다. 넷째로 통상외교에로의 길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상경과목과 외교 학과의 부전공이 필수적이다.

위에서 지적했듯이, 첫째, 지성인으로서 갖추어야할 교양과목을 이수하고, 둘째, 세계의 외국어를 구사하며, 셋째 논리적 사고에 필요한 언어이론을 터득하고, 넷째 각기 선택의 부전공을 잘 조화시킨다면, 어느대학 어느학과에 못지않는 인기집중의 학과가될 것이다.

양 인 석

〈 영어과 교수 〉

체코·유고 헝가리어과

동구권 (east-bloc) 이란 단어가 2차세계대전의 정치적인 산물로 오늘날 자본주의체제, 즉 서방진영 국가들에 상층되는 외미로서 동구 사회주의체제 제국 (諸國) 들을 일컬고 있듯이 동구권어 또는 동구어란 어휘 역시 언어학적인 표기라기 보다는 지역적이고 정치적인 관점에서 사용된 신조어 (新造語) 로서 동구 제국에서 쓰여지고 있는 언어들을 총칭하는 외미로 사용되고있다.

동구어를 언어학적인 측면에서 일별 (一瞥) 하자면 오늘날까지 기원이 아직 확증되지 않은 알바니아어를 제외하고는 크게 슬라브어와 비 (非) 슬라브어로 나눠 진다. 루마니아어는 동구에 위치하고 있는 유일한 로망스어로 속해 있는 언어다. 로망스어란 고대 로마인들이 사용했던 구어체 라틴어에서 유래된 언어군을 일컫는 학술용어로서 이태리어, 불어, 서반아어 및 포루투갈어 등이 이에 속한다.

함가리어는 스칸디나비아의 핀(f)란드어와함께 피노—우그리안 (Finno-ugrian)어족에 속하며, 이 피노—우그리안 어족은 극동 시베리아 지역의 사모에드 (Samoyede)말과 더불어 우랄어군에 속한다.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 슬라브어족은 남·서·동슬라브어 3군으로 구분된다. 유고슬라비아에서 사용되고 있는 세르보—크로아티아 (Serbo-Croatia) 어와 슬로베니아 (Slovenia) 어 및 불가리아어가 남슬라브어에 속하며, 서슬라브어에는 체코슬라바키아어에 사용되고 있는 체코어와 슬로바키아어 및 폴란드어가 있으며 동슬라브어란 대략 백(白)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방을 포함한 광범위한 대러시아어를 포괄하여 일컫는 것이다.

이상 언급된 바와 같이 동구제국 (東歐諸國) 언어들간에도 많은 차이점이 있으므로 동유럽 국가들을 단지 지역적인 과 정치적인 이념만을 고려해서 일괄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려고 한다면 커다란 오류를 범할수도 있을 것이다.

근간 메스콤을 통하여 보도된 바에 의하면 소련을 비롯한 동구 제국들이 경제개혁 내지는 경제의 분권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측되며 (비록 그들 경제의 근원적 형태인 계획경제체제의 범주 내에서 실시 하겠지만) 동구 제국들의 이러한경제개방 노력은 오늘날 국제경제추세로 판단컨데 불가피한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가까운 장래에 우리나라와 동구제국간에 경제교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현재의 국제정세로 보아 경제교류 뿐만 아니란 각종 분야의 교류가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는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이런 시점에 외대에 금년 초에 이미 신설된 루마니아어와 폴란드어과를 포함하여 내년 신학기에 체코어, 함가리어 및 유고어과가 신설됨으로서 모두 5개동구어과가 설치된다는 것은 우리 외대만이 누릴 수 있는 장점이며 자랑거리가 아닐 수 없다.

다른 나라와 제반 교류를 시도하기 이전에 우리는 그 나라의 국민성은 물론이거니와 역사와 문화·경제수준 등을 파악한 다음 접근을 꾀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기정 사실이다. 그러자면 우선 그 나라의 모국어를 터득하고, 각종 문헌이나 정보자료들을 수집하여 연구·분석하는 준비작업이 선무일 것이다.

그러나 어문학도들은 이러한 실용주의적인 면만 추구하는데 그치거나 만족할것이 아니라 대학교육의 근본취지를 명심하여 문자그대로 어학과 문학을 연구하는데 조금도 게을리해서는 안될 것이다. 순수학문적인 전통이 없는 어문학과의 앞날은 마치 뿌리가 없는 나무와같은 결과가 될 것이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 문 수

〈 루마니어과 교수 〉

깨끗한 마음 깨끗한 생활
유한킴벌리

너무 다른 기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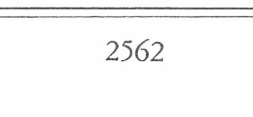
재미없는 강의 들을때와
재미없는 강의 끝났을때와,

시험 보기전과
시험 마쳤을 때와,

샤워하기 전과
샤워한 뒤와,

팬티라이너 안한 날과
팬티라이너 한 날과,

너무 다른 기분!



●후리덤 팬티라이너의 용도—
여성들은 생리가 아닌때라도
늘 약간의 분비물이 있지요.
후리덤 팬티라이너는 이 분비물을 깨끗이
흡수해 주는 팬티청결대입니다.
팬티안쪽에 살짝 붙여두고, 하루에 서너번만 갈아주면
항상 상쾌하고 깨끗하게 지내실 수 있답니다.

코텍스 후리덤* 팬티라이너

*표는 미국 킴벌리·크라크의 세계적인 등록상표입니다. ●REGD. TRADEMARK KIMBERLY-CLARK CORP. U.S.A.

PRINTED IN KOREA. 1987 OCT

노벨평화상 「아리아스」대통령과 중미(中美)평화

최 영 훈
〈동아일보 기자〉

1. 머리말

87년도 「노벨평화상」은 중미5개국 평화안(平和案)의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코스타리카」의「오스카르 아리아스」대통령에게 돌아갔다。「아리아스」대통령이 평화상을 수상하게 된것은 중미지역의 평화문제가 절실하게 대두된 이래 최초로 강대국의 개입을 배제하고 분쟁당사국들에 의한 독자적인 평화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면에서 금년 「노벨평화상」은 사실상 「아리아스」 대통령 개인이 아니라 중미평화안 그 자체에 주어졌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중미지역에선 6년 내전이 계속되고 있는 「니카라과」, 8년 내전에 휘말려 있는 「엘살바도르」, 20년간 좌익게릴라와 산발적인 반정부무장공세가 계속되고 있는 「과테말라」 등 3개국과 이들 반정부게릴라들이 국경을 넘나드는 「온두라스」 「코스타리카」국경부근에서 저마다의 문제로 유혈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그동안 이지역의 분쟁으로 지금까지 사망자만 20여만명이 넘게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중미는 소련이 지원하는 「산디니스타」좌익정권과 미국의 지원을 받는 「콘트라」반군의 내전이 치열한「니카라과」「산디니스타」의 지원을 받는좌익게릴라의 준동이 그치지 않는 「엘살바도르」라는 화약고를 안고 있다。또 이들 반정부게릴라들의 인접국월경, 「콘트라」 반군지원을 위한 미국지원기지설치문제, 「니카라과」에 주둔하고 있는 소련, 「쿠바」의 군사고문단등 외세개입까지 겹쳐 중미분쟁은 끝이 보이지 않는 미로처럼 얽혀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중미분쟁의 종식을위해 과거 여러차례 평화안이 제시되긴했으나 관계당사국들의 이견으로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던차에 「코스타리카」의 「아리아스」 대통령은 지난 8월7일 「과테말라」시에서 열린 「과테말라」 「니카라과」 「온두라스」·「엘살바도르」 등 중미5개국 정상회담을 통해서 협상가능한 평화안을제시, 중미평화의 길을 열었다。

지난 86년 국민해방당(PLN) 후보로 나서 「코스타리카」의 최연소대통령 (당시45세)으로 당선, 중미평화를 위한중립외교를 활발하게 펼쳐온 「아리아스」 대통령은 각각이해가 엇갈리고 적대적인 관계로 까지 악화된 중미5개국 정상들이 포괄적인 평화안에 합의토록 하기 위해 탁월한 조정능력과 함께 끈질긴 설득력을 발휘했다。

그렇과 도저히 합의가 나오지 않을 것이란 대다수 분석가들의 예상을 뒤엎고 중미평화의 서곡이 울려퍼지기 시작했다。

2. 중미평화안의 내용

중미5개국 정상들이 회동했던 담시회담에서 「아리아스」 대통령은 자신이 이보다 앞서 지난2월 제시했던 평화안을 일부 수정 ▲「니카라과」「엘살바도르」 내전의 90일내 휴전및 정부·반정부게릴라간의 회담개시 ▲외국의 대반정부게릴라군사원조 즉각중단 ▲모든 정치범사면 및 정당활동등 정치적자유허용▲90일내 자유선거실시▲언론자유보장등을 주내용으로한 「아리아스」 평화안을 제시, 다른 4개국 정상의 전폭적인 동의를 얻었다。

「아리아스」 평화안중 ▲90일내 휴전▲정치적 자유및 언론자유회복등은 이지역의 막후연출가인 미국의 요구사항을 반영한것이며 ▲대반정부게릴라지원중단등은 「니카라과」 정부의 희망사항이었다。이 평화안은 중미에서의 공산혁명확산을 우려 「니카라과」의 「콘트라」 반군과 권위주의적인 「엘살바도르」 정부에 대해 군사지원을 해온 미국이나 오탠동안 내란에 시달려온 「니카라과」정부등 모든 관계당사자의 이익을 고루 배려한 아심적인 것이었다。

밝히고 있지 않고 있어 중·미평화안의 실현전망은 더욱 예측할수 없는 상태다。미국은 최근까지도 「콘트라」 반군지원을 지속하기 위해 의회에 2억7천만달러의 추가원조를 요청할 뜻을 표명하는등 이 평화안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왔다。

「아리아스」 대통령은 미·소 강대국 세력의 각축장이 되고 있는「니카라과」 사태해결에 특히 촛점을 맞춘 중·미평화안에서 자신이 소속한 「코스타리카」 국민해방당의 이념인 중도좌파노선을 살려 강대국의 개입을 배제하는데는 성공했으나 분쟁지역의 미·소지원을 어떻게 종식·감소시킬 것인지에 관해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

이 평화안은 또 실질적인 분쟁당사자인 「니카라과」·「엘살바도르」·「과테말라」정부와 반정부게릴라간의 직접대화문제를 제외하고 있어 분쟁해결을 위한 선의를 표명한 이외에 어떠한 구속력도 발휘할 수 없다는 결점적인 약점을 갖고있다。

「아리아스」 평화안은 현재 중미분쟁의 핵심인「니카라과」의 좌익 「산디니스타」 정부와 정통성을 인정, 미국이 지원하는 「콘트라」 반군에 대한 원조중지를 요구하면서도 「산디니스타」 측에 대해서는 군사력감축이라든가 소련및 「쿠바」의 지원중지등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어 「레이건」 미행정부는 「산디니스타」 정부는 또한 4개지역에서 일방적인 휴전을 실시하기도 했으나 「콘트라」반군의 후원국인 미국과의 직접협상만을 고집하며 「콘트라」반군과의 직접대화를 거부, 휴전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다。

또한 「엘살바도르」와 「과테말라」 에서도 좌익게릴라들이 그들의 타도목표인 우익정부와 각각 협상을 시도했으나 「과테말라」의 협상은 결렬되고 「엘살바도르」 에서도 가까운 장래에 휴전이 성립될 전망은 거의 보이지 않고있다。

8년간 「산살바도르」의 우익정부에 대항해 게릴라전을 펴고있는 「파라분도·마르티」 민족해방전선(FMNLF) 측과 정부, 그리고 25년간 대정부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과테말라」의 좌익게릴라와 정부간의 협상은 양국정부가 모두 반군의 선 투항과 후 정계복귀만을 주장하고 있어 답보상태에 빠져있다。

이중에서도 특히 중미평화실현의 가장큰 장애가 되고 있는 문제는 미국의 「니카라과」 분쟁개입과 여기서 나온「레이건」 미행정부와 「니카라과」 정부의 상호불신에 있다。

「산디니스타」 정부측은 「콘트라」 반군과의 협상은 의미가 없기때문에 이들을 지원하고 있는 미국측과 직접협상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이에대해 미국측은 「산디니스타」정부와「콘트라」의 협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중미평화안을 이행할수없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레이건」 미행정부관리들은 오는 89년 중반까지 18개월동안 매일 50만달러씩 모두 2억7천만달러의 추가원조를 의회에 요청할 계획을 수립, 「산디니스타」 정부의 신경을 곤두서게 했다。

이는 최근 미국으로부터 「메드 아이」 지대공미사일을 도입, 그동안 「콘트라」 반군에게 치명적 타격을 가해온 소련제 MI25헬리콥터를 포함한 다수의 무장헬기를 격추시킴으로써 유리한 전략적 위치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콘트라」 반군의 전력을 강화시켜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다니엘 오르테가」 「니카라과」대통령은 포함한 중미평화안 협정서명국 대통령들은 당초 합의사항을 11월5일 자정을 기해 시행하고 내년 1월4일 다시 만나 그성과를 점검하기로 했었는데 외교소식통들은 이같은 협정이행의 지연은 앞으로 미의회내에서 「레이건」 미행정부와 대「콘트라」 추가원조요청을 둘러싸고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조지 슐츠」미국무장관은 하원 외교위에서 11월5일이라는 시한은 『우리가 아닌 그들이 정한 것』이라며 평화협정이 실패할 경우 「콘트라」 반군을 계속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해 「집 라이트」 하원의장 (미·민주당) 의 경우 『중미국가들이 평화를위해 노력하는한 「콘트라」에 대한 새로운 원조제공문제는 검토될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미행정부의 일부 관리들은 협정부가 내년 1월까지는 의회에 대한 대「콘트라」 원조요청을 보류할지 모른다고 말했는데 「레이건」 행정부는 중미국가들에게 일단은 기회를 주고 관망하되 만일 이들의 계획이 실패로 끝난다면 즉각「콘트라」에 대한 원조를 재개할 태세를 갖추고 있음을 의도적으로 내비치고 있다。사실상 미국은 얼마전 추가대폭락사태로 재정적자감소가 전면에 떠오른데다가 임기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레이건」 대통령이 강력한 정책을 펼수 없는 입장에 놓여 있기 때문에 「콘트라」에 대한 추가원조를 요청하기는 힘든 실정이다。

5. 맺음말

중미평화의 핵심은 결국 미소강대국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니카라과」내전의 종식에 있다。종래 미국측과 직접협상만을 고집해온 「오르테가」 「니카라과」 대통령이 최근 오는 12월5일부터 내년 1월5일까지 한달동안「콘트라」 반군과의 전면휴전 제의 간접평화회담을 미국에서 개최하자는 획기적인 제안을 하고나서 중미평화의 앞날을 밝혀주고있다。

「오르테카」 대통령은 미국 주재 교황청대사관에서 「콘트라」 반군과의 간접평화회담을 중재하는 일부를 맡은 「미겔오반도 이 브라보」 추기경과 회담한뒤 그에게 「산디니스타」 정부측의 11개항휴전안을 제시했다。

「오반도」 추기경이 지난 13일 미국이 지지하는 「콘트라」 대표에게 전달한 「오르테가」 대통령의 11개휴전안은 다음과 같다。

◇정부군과 「콘트라」 반군은 12월5일부터 전투를 중지하며 휴전은 내년 1월5일까지 계속된다。◇정부와 「콘트라」의 간접평화회담을 「워싱턴」에서 즉각 개최한다。

◇휴전기간중 반군에 대한 군사원조는 일체 중지돼야 한다。◇휴전중 반군의 위치는 3개지역으로 한정한다。◇휴전이 준수되면 평화회담 진전에 따라 반군은 무기를 버리고 정부군에 편입토록 한다。◇휴전이 성공할 경우 「콘트라」 반군이 무기를 버리고 정부의 사면제의를 수락한다면「콘트라」는 정부측과 반정부단체들이 11월5일 「니카라과」에서 시작한 평화회담에 내년 1월5일이후 참가할 수 있다。

이러한 「오르테가」 대통령의 제안에대해 미국측도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 「콘트라」와 「신디니스타」 정부간의 협상이 이뤄지는것을 전제로 미국과 「신디니스타」정부간의 직접협상도 가능하다는 유연한 입장을 표명해 중미평화안의 실현가능성이 어느때보다 높음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니카라과」정부의 이러한 제안의 실상은 미국의 대통령선거가 얼마남지 않았다는 판단하에 시간을 벌기위한 전술의 변화에 불과하다는 비관적인 관측도 없지않다。

중미평화안이 성공을 거둘것인지 아니면 사문화되지는 좀더 두고 보아야겠지만 실패할 경우 중미지역의 분쟁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니카라과」 정부에 「콘트라」 반군과 협상할 것을 거듭 촉구, 최근 「니카라과」 정부의획기적인 제안을 끌어낸 「아리아스」 대통령은 7일이전 그 누가 기대했던것 보다 큰 진전을 이룩했다。『아직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시간의 흐름을 낙관적으로 생각한다』며 중미평화를 희망적으로 보고있다。중미평화계획은 예정보다 지연되고있을뿐 「평화의 열차」는 아직정상궤도를 달리고 있다。

▲자동소총으로 무장한 한 엘살바도르 게릴라가 수도 산살바도르 부근의 고속도로 검문소에서 경계임무를 펴고있는모습。

중미(中美)평화의 핵심은 미소 강대국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니카라과」내전의 종식에있어

학술단신

□흥사단－정기 금요강좌 척자 강좌

11월27일 오후7시「예절과 화법」(강사 : 전영호) 이라는 주제로 흥사단 대강당에서 열린다。전화문의는 743—2511

□전·진·상(全·眞·常)교육관－월요강좌

11월30일「역사와 시대인식」이라는 주제로 고은씨가 강연하며 오후 7시이다。전화문의는 776—1712

□한길 사회과학 강좌

지난 11월2일부터 시작된 제3기「오늘의 한국정치를 해부한다」라는 주제로 12월21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7시에 한길사 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6회, 11월30일「군부와 한국정치」강사 : 김영명 (한림대교수)

7회, 12월7일「유신체제의 정치사적 인식」강사 : 최완규 (경남대교수)

8회, 12월14일「한국정치와 세계체제」강사 : 손영원 (계명대교수)

9회, 12월21일「한국정치와 민족주의」강사 : 차기벽 (성균관대교수)

전화문의는 922—9523

□한길 역사강좌

매주 목요일 오후7시에 한길사 세미나실에서 열리는 한길역사강좌는 제12기「한국고대사의 새로운인식」의 주제로 열린다。

마지막회 11월26일「발해사의 전개와 남북조시대」강사 : 이우성 (성균관대교수)

문의전화는 922—9521

□역사 문제 연구소－화요강좌

지난 11월10일부터 시작된 한국사교실은 제2기「한국근현대사의 변혁운동」이라는 주제로 열려 12월22일까지 매주화요일 오후7시에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실에서 열린다。

Ⅱ. 일제하 민족의 저항

4회, 12월1일「한말무장투쟁과 상해임시정부」강사 : 강만길 (고려대교수)

5회, 12월8일「민족협동전선과 신간회」강사 : 이준영 (동덕여대교수)

Ⅲ. 해방정국과 민족의 진로

6회, 12월15일「민족통일정권수립과 한민당, 남로당」강사 : 신병식

7회, 12월20일「민족통일운동과 남북협상」강사 : 이호재 (고려대교수)

문의전화는 738—2181, 736—2084

□도서관 신착도서안내

세계현대사—우동수역음, 청아출판사。

한국자본주의와 농업문제—김홍상외지음, 아침출판사。

식민지시대 사회운동론연구—배성찬편역, 도서출판 돌베개。

사회발전의 변증법—홍윤기옮김, 미래사

촌락공동체의 법리—이광범저, 세영사

한국민중의 사회전기—김용복저, 한길사

근세한일관계사—송승철편저, 강원대학교 출판부

미군정 정보보고서—임필서각。

세계자본주의체제와 주변부사회구성체—김영철편역, 인간사랑。

자본주의경제와 사회주의경제—배연수저, 영남대학교 출판부。

발해의 역사—송기호역, 아시아문화연구소。

한국현대사의 제문제Ⅰ·Ⅱ—한국사학회, 을유문화사。

녹두서평—이산하외지음, 도서출판녹두

비평과 이데올로기—윤희기역, 열한해들

아프리카신학—조동호역, 한국신학연구소

파리콤뮨—편집부역음, 지양사

러시아혁명과 레닌의 사상—이동한역음, 지양사

노동자 농민병사 소비에트—박경옥옮김, 지양사

신정치학개론—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서울대학교출판부

아름다운성과 사랑을 위하여—편집부편, 백산서당

자본주의 혁명—이원희역, 지문사

●뜻모아 하나로 힘모아 세계로

롯데골든인삼맛껌에는
인삼엑기스가 들어있읍니다

인삼의 맛을 껌으로 즐긴다!
인삼 엑기스를 넣어 만든 골든 인삼맛껌은
대한민국 전매청 허가품입니다.
입안이 텁텁할 땐 골든 인삼맛껌을 씹으세요.
인삼 엑기스의 쌉쌀한 맛에
입안이 개운해지고 기분마저 상쾌해집니다.

롯데 골든인삼맛껌
희망소비자가격 :100원

롯데제과

사회주의의 이념과 마르크시즘

19C 사회주의자들의 출발은 프롤레타리아 궁핍의 소멸에있어
맑스 사회주의는 인간주체로서 자기자신의 세계를 획득하는것

외대논단

이 승 희
〈 동국지역학과 강사 〉

사회주의 (Sozialismus,Socialisme조직이 빈곤과 착취를 제거하고 평등의 기본원칙에 맞는 재화의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신념이다.

이런한 대강의 공통적인 성격을 제외하고는 사회주의적인 강령들은 여러부문에서 서로 구별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소유권의 소멸은 찾아볼수 없었다.

주로 사회주의는 노동자계층의 문제로,또한 모든계층에 호소되는 인간적인 이상의 실현을위한 것으로 여겨졌다. 이를위해서 정치적인 혁명의 필연성을 주장한다거나, 모든 국가질서의 소멸을 예고한다거거나, 자유를 최상의 가치로 인정하나, 평등을 위해서는 이를 희생할 각오가 되있거나, 민족적인 한계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피압박계급의 국제적인 이해를 선동한다거나 또한 역사발전속에서 그리고 그의 법칙성속에서 사회주의적인 전망을 발견하려는 생각속에서 완전한 사회상을 그리는 것들이 사회주의자들의 일반적인 사고였다.

Ⅱ.

「사회주의」라는 표현은 주로 1832년「Globe」라는 잡지에 기고했던 생시몽주의자였던 피에르 렉스에 연원한다.

이러한 표현은 또한 1830년대「영국의 오웬주의자(Owenist)」에 의해서도 씌어졌다.

사회주의에 대한 이념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표현도 역시 그당시 사상가나 학자들의 관심을 자연히 역사적인 선지자들에 쏠리게한다.

즉 플라톤의 공화국, 중세적인 공산주의운동, 르네상스의 이상주의자들, 특히 토마스모어와 캄파넬라 그리고 17세와 계몽주의시대의 이들의 모방자들에게서 어떤 공통된 동기들이 재현됨을 볼수있고, 이들 여러가지 철학들에 의해 고취 되어 왔다.

계층성을 지닌 플라톤적인 조직체가 현대 사회주의자들의 대부분이 연계하고 있는 평등사상에 소원하고, 중세 학자들의 금욕적인 이상들이 너무 강하게 독특한 종교적 내용에 연루되어 있는 반면에,19세기의 사회주의자들의 이상향은 근원적으로 자본주의적 부의 축적에 대한 성찰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사회주의의 대변자들은 이러한 이상향에 대한 열망에서 이와 관계된 여러가지 이념들을 인식할수 있다. 즉 사적소유의 지양, 일반적인 노동의무, 소득과 권리의 균형, 일반적인 생산의 국가적 조직화,착취와 빈곤의 퇴치등이 그것이다.

16세기, 17세기및 18세기의 사회개인들은 근본적인 의미에서 같다. 인간본성의 개념은 기술적이며 규범적이다. 이것을 우리는 진실로 인간이 인간답게 되기위하여 이미 인간에게 주어진것들에서 추론해 낼수있다. 이러한 작업이전에 우리는 이미 이러한 요구의 내용이 어떤것인가를 짐작할수있다.

인간본성의 개념은 인간이 인간됨에 필요한 규정에대한 서술이라할수있다. 사회주의자들은 그들의 이상주의적 저서에서 인간적인 사명은 평등과 협제해이고 비인간적인 사명은 투쟁, 이해갈등, 불평등, 착취와 억압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나 그들은 왜 이러한 비인간적인 명제들이 대두하게 되었느냐에 대해서는 분명한 대답을 주지못하고 있다. 그들은 원죄에대한 믿음도, 여기에 적용할 도구나 연장도 갖고있지 않다.

그들에게서 악과선은 감지할수없는 것이고 또한 설명불가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서 인간본성의 개념도 분명치 못하다. 자의적인 규범을 부정하고, 오히려 모든인간에 내재해있는 일정한 현실 자체를 중히여긴다. 즉 인간의 본성을 실현할 조건들을 아는것이 중요하다.

누가 교육자를 교육시킬 것인가?

Ⅲ.

18세기까지의 신앙적인 사회주의 이념과 달리 19세기에 들어와서 사회주의자들은 (Babeuf, Saint-Simon Owen, Fourier, Proudhon, Weitling, Cabet, Blangui, Blanc) 및 및 독특과 적인 가치와 더불어 그들의 주장을 펼쳐나가는 사회주의자들도 (Weitling, Cabet, Lammenais)있지만 공통적으로 이상향에대한 철학적인 배경을 갖는다. 그들은주로 인간본성에대한 개념에 몰두한다.

인간본성에대한 그들의 관심은 인간으로 단지하나의 그리고 같은 인간존엄을 함유한다는 생각을 전제로 하고있다. 출생에 따르는 모든차이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들은 근본적인 의미에서 같다. 인간본성의 개념은 기술적이며 규범적이다. 이것을 우리는 진실로 인간이 인간답게 되기위하여 이미 인간에게 주어진것들에서 추론해 낼수있다. 이러한 작업이전에 우리는 이미 이러한 요구의 내용이 어떤것인가를 짐작할수있다.

인간본성의 개념은 인간이 인간됨에 필요한 규정에대한 서술이라할수있다. 사회주의자들은 그들의 이상주의적 저서에서 인간적인 사명은 평등과 협제해이고 비인간적인 사명은 투쟁, 이해갈등, 불평등, 착취와 억압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나 그들은 왜 이러한 비인간적인 명제들이 대두하게 되었느냐에 대해서는 분명한 대답을 주지못하고 있다. 그들은 원죄에대한 믿음도, 여기에 적용할 도구나 연장도 갖고있지 않다.

그들에게서 악과선은 감지할수없는 것이고 또한 설명불가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서 인간본성의 개념도 분명치 못하다. 자의적인 규범을 부정하고, 오히려 모든인간에 내재해있는 일정한 현실 자체를 중히여긴다. 즉 인간의 본성을 실현할 조건들을 아는것이 중요하다.

누가 교육자를 교육시킬 것인가?

▲마르크스 묀겔스의 기념비 제막식 (1918년11월 7일, 모스크바)

Ⅰ.

Marx가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이론가로 등장하기 시작할때, 사회주의 이념은 이미 오랜 역사를 갖고 있었다. 사회주의의 역사적인 발전과정을 볼때, 19세기 전반에서 사회주의라고 일컬어지는 사상의 공통된 특징들은 인만적이고 관법위했다.

프랑스혁명과 산업혁명의 영향을 받은 사회주의 이념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신념에 근거한다고 할수 있다. 첫째, 부(富)의 무제한적인 집적과 시장경쟁이 가져오는 침증하는 빈곤과 위기에대한 자각. 둘째, 이러한 부와 자본의 집중적인 체제가 적어도 이의 단점을 극복할수 있는 어떤 다른 체제에 의하여 대체 되어야하며, 세째, 이를 통찰여 생산과 교환의 주의적 이념들은 대개 차별받는 동시대인들의 분했에 대한 성찰에 뿌두하여, 이러한이념들은 거의 감들없는 사회생활에대한 인간적 소명을 믿는 어떤특정한 철학적및 종교적인 신앙에근거한다. 이들은 대개 적대관계, 이익투쟁, 불평등및 억압을 위대한 자연이나 신에의해서 예정된 인간본성에 반한것이며, 규범적인 의미에서의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조건들은 공동생활과 조화이다」라는 데에서 출발하고 있다.

더구나 완벽한 사회는 모든면에서 그사회 구성원들이 총체적인 일체를 이루는 것을 전제한다는 것을 확신하는데에서 그들신앙의 원점을 이룬다.

이러한 완전한 일치는 권리와 의무에서 뿐아니라 사고와 생활의 방식에서도 의식주면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는데까지 이르고있다.

이물음은 맑스적 이상향을 이제까지 맑스이전의 이상향과 크게 구별지워 준다.

즉 이 문제는 해겐적인 현상학적 유산과 불란서 유물주의의 유산과의 차이이기도 하다.

맑스이전의 사회주의자들 생각은 첫째, 역사철학적인 전제조건에 연관되는것 둘째, 자본주의적 사회의 분석에 관한것 · 세째, 사회주의적인 전망에 관한것으로 대별해 볼수 있다.

첫째와 두번째의 연관점들은 그때까지의 사회현상에 대한 그들의 경험을 토대로한 비관적안목에서의 관찰이고, 세번째의 연관은 그들이 생각한 바람직한 사회주의 사회건설에 대한 미래상에 관한 것이다.

19세기 전반의 사회주의자들의 비관적인 안목에 생산체제와 소유관계의 총체적인 변혁없이는 재화발휘를 위하여 분업및 특화에 따른 부정적영향을 해소한다. 산업의 집중경향을 온존하면서 도시와 농촌의 간격을 지양한다.

인간의 인간에 대한 지배와 인간의 인간에 대한 착취는 종식되고 경제운용을 위하여 정치권력은 지양된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민족간의 간극을 해소하고, 권리와 기회에 있어서 남성과 녹같은 여성의 지위가 확보된다.

이러한 사회주의 미래사회에 대한 사회주의자들의 이상들은 사회주의를 우주적 인간가치로서 높이 평가한다고 있다.

Ⅳ.

이러한 사회주의의 이상들이 Marx의 주요 이념에 깊숙히 자리잡고 있는것은 사실이나, Marx의 이념과 다른 19세기 초반의 사회주의 이러한 세계를 이해하는데의 두가지형식인, 결정론적이고 규범적인 형식을 피하기위한 노력은 Marx의 사고에 있어서 독특한 특성인데, 이는 이상향적인 사회주의 이론과 대조적으로 해결적인 전통과의 연결을 나타내주고 있다.

이상향주의자들(Utopisten)은 어떤경우에도사회주의를 자유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계획으로 보지는않았다. 오웬, 푸리에르와 생시몽주의자들에게는 역사적인 필연성과연관된 형식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일정한 선언적인 명시가 문제 이었지, 이들중에 누구도 그의 역사적결정론으로 무엇을해야할지 그리고 이러한 결정론적 구상으로서의 사회주의 이념과 그리고 또한 도덕적인 가치로서의 사회주의의 이념을 어떻게 일치시켜야할지 몰랐다.

모두를 단지 사회주의는 세계를 지배해야하고 이러한 양자의 산만함을 분명히하지 않으면서 양자간의 사이를 배회하면서 단지 사회주의를 풍부한 정신력의 흘륭한 소산으로만 여겼다.

한편 그들은 단순히 정치적인 변화, 즉 새로운 경제정서나 재화분배제도의 수립들은 실제로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할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정치적인 혐동을 무시하였고 경제개혁은 직접 경제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해결되어져야한다고 믿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혁명적인 전망을 포기했다.

무엇보다 소멸시키고자 한것이 프롤레타리아의 궁핍이며 이것이 19세기 전반의 사회주의자들의 확신의 출발점이었다.

그러나 Marx에 있어서 프롤레타리아의 빈곤은 출발의 계기가 아니며 탈인간화 (Entmenschung)란 현상에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인간개인이 자신의 일과 이러한 일의 물질적, 정신적및 사회적인 산물들 (상품, 이념,정치제도) 소외된 현실로서 관찰하도록 강요하는데에 있다. 노동의결과들들이 그들에 의해서 참조된 세계 타인간들과 마지막으로 자기자신들에게 소외되어지는 것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사회주의의 요체는 이러한 탈 인간화에대한 자각에 있는것인지 빈곤에대한 자각에서 보듯이, 단지 혁명적인 실제로서 파악되고 합리적으로 이해되어질수 있다 · 위와같은 Marx의 서술에서볼때,그가 원칙적인 측면에서 이상향 주의자들의 미래사회상을 함께하나, 이룩적을 이루기위한 광화적인 수단에 대한 희망은 갖지않는다는 외미에서 그를 그의 종말론이 아니라, 구제론으로 이상향주의자들로 부터 구분할수 있다는 생각은 자못 오류인것같다.

헤겔의제자인 Marx는 진리라는 것이 결과에 있는것이 아니라 그에 이르는 길이있다 라는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 인간의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분명과 갈등이없는 조화있는 공동사회에 대한 생각들을 우리들은 흘륜 이상향주의자들이 서술한 형식으로 Marx에게서도 발견할수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arx에 있어서 사회주의는 단순히 하나의 복지사회나, 경쟁과 궁핍의해소, 인간을 "서로 적으로 만드는 관계의 소멸들이 아니다.

Marx의 사회주의는 무엇보다도 인간과 세계사이의 소외감 (Fremdheit) 의 해소, 즉 인간주체로서의 자기자신의 세계를 획득하는것이다.

프롤레타리아의 계급의식속에서 사회는 주체와 객체의 대립,교육자와 추종자간의 대립이 사라지는 상태를 요구한다. 왜냐하면 혁명적인 실제를 통하여 그리고 그사회에 대한 자의식의 도움으로 그사회는 변모하기 때문이다. 의식은 그자체를 만들어지게한 관계의 구성요소 그 자체인것을 알고있다. 의식은 또한 인간들이 스스로 자신의 최사슬을 만들어 냈으며 인간자신만이 이사슬들을 떨어버릴수 있다는 것을 안다.

사회주의는 소비만족일뿐만아니라, 인간적 에너지의 해방이다. 이는 곧 자신의 개인적 에너지가 사회적 에너지이다라는 것을 의식하게 되는 힘의 해방이기도 하다.

생산관계는 생산력에 의해서 조건지워지고 생산관계를 통하여 정치적 제도가 결정된다는것이 Marx에 따르면, 곧 사회주의가 경제현상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을 통하여 실현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정치적 제도는 결코 생산환경의 수동적인 산물이라기보다 그의 보호장치이다.

생산관계가 변할수 있기 위해서는 우선 정치제도가 지양되어져야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사회주의는 단지 「사회적인 정신」을 포함한 정치적 혁명의 결과 일수 있다.

사회주의는 임의적으로 결정된가치도 자연메카니즘에 따른 역사적법칙의 산물도 아니며, 인간성회복과 인간적 세계의 재획득을위한 탈인간화된 인간의 외식된 투쟁의 결과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투쟁을시작할 프롤레타리아는 결코 비인격적인 역사의 도구가아니며 이를위한 주도권의 중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투쟁을 가능할수있게 하는데는 우선 역사의과정이 프롤레타리아의 계급상황에서 탈인간화의 결정에 도달해야 하는것이다.

〈 다음호에계속 〉

석쇠불고기 방식의
햄버거-버거킹

세계 26여개국 5,800여개의
레스토랑에서 즐기는 석쇠 불꽃구이
방식의 버거킹 이런점이 다릅니다.

- 100%순 쇠고기로 만듭니다.
- 회전식 석쇠위에 불꽃으로 굽는 쇠고기는 버거킹만의 독특한 맛을 냅니다.
- 고객의 취향에 따라 재료를 가감할 수 있는 즉석 주문 생산방식입니다.
- 주문 후 1분 이내의 신속한 서어비스 체제와 조리후 10분 경과시 자동폐기 처리로 최상의 맛과 질을 유지합니다.

아르바이트 학생 모집
버거킹 레스토랑에서 근무할 용모단정한 남 · 여(주 · 야) 대학생을 모집합니다.
연락처 : 버거킹 각 점포

입안가득한 만족!

'88대회 운영요원 급식 공급업체

안국점(ANKUK RESTAURANT) (안국역4번출입구 주차가능) 777-6577
명동점(MYUNG DONG RESTAURANT) 756-7467
용산점(YONGSAN RESTAURANT) 794-8211
이태원점(ITAEWON RESTAURANT) 795-4683
송탄점(SONGTAN RESTAURANT) (0333)62-6405
동두천점(TONGDUCHON RESTAURANT) (0351)62-3189

햄버거의 왕
버거킹
BURGER KING®

공명선거 최대의 장벽, 부재자투표

임 평 호
〈법정·행정3〉

1. 현 대통령선거의 의미

정국은 온통 선거열기에 휩싸여 있다.

이래의 서포짜수가 조사한바에 따르면 조사대상 유권자의 약 90%이상이 투표를 하려 가겠다고 대답하는 등 그야말로 선거로 인해 나라 전체가 술렁이고 있다. 게다가끝도없이 부려지는 선거자금은 국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기에 충분하다.

이번 선거의 제일 큰 의의는 유신이래 제 5공화국에 이르기까지의 군부독재 정권을 국민의 이름으로 끝장내고 국가의 정통성을 확립하기 위한 6·10 국민 대투쟁의 소기의 성과물이라는 점이다. 즉,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국가의 정통성 회복」이라 할 수 있으며 이것은 61년 5·16 군사쿠데타 이래 지금까지 근 26년간 군부독재정권에 의해 빼앗재자 부정선거의 실상들을 폭로하고 현 선거운동기간에 나타나고 있는 부정선거로의 움직임들을 우려하면서 공명선거 보장을 위한 몇가지 대안을 제시하여 지난 26년간 지속되어 왔던 군부독재정권을 영원히 종식시키고 국가의 정통성을 확립하여 이땅 모든 민중의 민주적 제권리를 회복하는데 미약한 도움이라도 되고자 이글을 쓴다.

2. 2·12총선 당시 군 부재자 투표에서 나타난 부정선거의 실태

군대조직은 집단 특유의 폐쇄성과 엄격한 지휘계통으로 인해 부정선거의 소지를 항상 가지고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재자의 약 90% 이상을 군인(60만 현역군인 및 전투경찰, 의무경찰병력 포함)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군 부재자 투표의 공정성 보장은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군부독재 정권

▲선거의 비밀·자유성이 보장된 부재자투표가 절실하다. (사진: 73년9대국회의원투표광경)

토론회를 갖고 그 후 각자 소감문을 의무적으로 제출케하였으며 이에 소대원들은 거의 모두가 분노를 했으나 어쩔수가 없었다. 선거 며칠전부터는 보안대, 대대장을 비롯한 고위참모들이 나와서 대통령은 군의 최고 상관이므로 당연히 민정당을 찍으라고 했다.

2)비밀선거의 원칙 위반사례(사전 개표및 감독)

▲육군 ○○학교 교육대의 경우…

확실한 부정선거사례는 다음과같다.

첫째, 투표전에 중대장 앞에서 여당지지를 종용받고 둘째, 투표용지 일봉시 보안대에서 전달받은표로 일봉했으며(10~12시간 후 접착제이 사라져 자동 개봉됨) 세째, 소령급 8명이 철야하면서 기표내용을 확인 야당표는 무효가 되도록 여당란에 다시 기표하여 우송한다.

▲제19××부대의 경우:

선거 1주일 전부터 정신교육을 받으면서 민정당 선전을 들음. 병장들은 매모잡하는 학교 출신들을 집합시켜 놓고 민정당에 찍을것을 강요.

투표당일 부대장실에 투표소를 설치, 부대장이 직접 기표하는 것을 지켜보고 신민당을 찍는 사병들은 당일 저녁 군장을 메고, 소대장에게 구타를 당하면서 연병장 구보를 하였고 민정당을 찍은 사병들은 휴식을 하였다.

3)직접선거 원칙의위반 사례(대리투표및투표기회박탈)

▲육군 ○○훈련소의 경우 선거일 며칠 전부터 중대장이 각 내무반장을 통해 야권지지자의 수를 파악하고 정신훈화를 통해 「군의 최종 상급자는 대통령이며 상관을 기쁘게하는 것이 군인의 도리」라고 강요

선거당일에는 비밀투표여야 할 기표장소에서 중대장이 앉아서 일일이 손을 잡고 어깨를 에 표를 찍을 (사유는 혹시 잘못찍을 것을 우려한 때문이라나), 선거후 100%의 민정당 표가 나왔다고 연대장이 막걸리를 보내 회식을 시키기도 했다.

▲육군 6×××부대의경우:

A, B, C급으로 분류하여 C급은 본인에게 투표용지를 주어 본인이 투표를 하였으나 기표시 중대장이 지켜보고 B급은 중대장의 종용하에 여당을 찍도록 강요당했고 A급은 아예 투표용지를 주지도 않고 중대장이 찍은 뒤 건네주는 형식을 취하여 대대원중에 단 1명만의 신민당 표가 나왔는데 그것은 감독관이 발심하는 틈에 C급에서 1명이 찍어버렸기 때문이다.

3. 현재선거운동기간에 나타난부정선거의 양상

이제 선거가 채 한달도 못남은 상태에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나타나고 있는 '부정선거를 위한 움직임을 볼 때 심한 슬픔과 함께 강한 분노를 느낀다. 하기야, 80년대 제5공화국 출범과 광주사태의 관련자들이 지금에와서 다시 민주화의 선봉에 서겠다고 나서고 있으니, 조작적 국민의 합의에의한 정통성을 부여받으려는 과정에서 나타날 부정선거의 양상들은 눈에 보지 않아도 쉽게 짐작할 수 있는 노릇이다.

1)금전에 의한 부정선거 양상

선거유세장에서 일당 3만원이니 5만원이니 하는 것들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 되어버렸고 누구누구는 비누 한 셋트 누구누구는 부슈 선물 이라는 것들은 오히려 구태의연하게 되어 버렸다. 금전 선거만큼 선거 분위기를 타락시키고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은 없다. 각자의 냉철하고 이지적인 판단을 흐리게 함으로써 돈의 유혹에 빠지게 하는 물량공세야 말로 유권자를 모독하는 행위이며 부정, 타락선거의 제1차적 요인이라 하겠다.

물론 지금은 여·야 모두 금권선거를 조장하고 있으며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선거자금의 방출은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돈은 결국 일반시민이 부담해야 하는것이니만큼 어느정도 제한이 가해져야하며 여·야가 거의 대등한 비율로 선거자금을 활용해야하는것이다. 그런데 현재 나타나고 있는 양태들은 자금의 단위가 그야말로 천문학적 숫자이며 그것도 특정당에 편중해 있는 듯한 느낌이다.

2)관권에 의한 부정선거 양상

그리고 통·반장들의 선거운동에 관여하는 것이다. 통·반장들은 보수도 없고 정식공무원도 아니기 때문에 이들의 특정정당 입당 권유 (실제는 반강제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한다) 협위의 위법성여부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이 보류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법성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이들이 한결같이 특정당의 당원이며 그 특정당을 지지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태의 서포교수는 『공명선거의 본질적 요소는 공권력의 개입여부에 있다. 만약 공무원들이 상사의 정치적 아심때문에 중립을 지키기 어렵다면 그리고 기왕에 정부여당이 한 통속이 될 수 밖에 없다면 상당한 문제가 된다』고 말하고 있다.

3)언론매체에의한부정선거양상

선거가 본격화되면서 언론매체 특히 방송은 집권층의 충실한 하수인으로 전락하고 있다. 방송은 국민의 전파를 이용하여 국민의 일상적인 환경과 의식을 지배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의 공정성은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즈음의 방송은 마치 특정 정당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것과 같은 느낌을 준다. 우리나라 방송의 불공정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인식되어왔지만 특히 이번 선거국면에 있어서 공영방송은 관훈토론회의 보도부터 각종 유세현장에 대한 보도에 이르기까지 거의 일방적일 정도로 편파보도를 해대고 있다. 그런면에서 또 야당 당수의 「토론회에선 내가 썩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TV에서 보니까 형편없더라」라는 비난섞인 푸념과 「KBS의 시청료를 절대로 내지 말자!」라는 강한 주장은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4. 군부재자투표 부정에관한대책

지난 2·12총선에서 나타난 군 부재자의 부정투표는 이번 선거에서 만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것이며 이를 위해서 다음의 몇가지 대책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군인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위해 사전에 공정한 선거관리인단에 의한선거소개및 교육이 정기적으로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이때는보안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군 자체내 여건을 갖추어야 한다.

둘째, 투표시 참관인은 공정한선거 관리인단에게 맡겨져야 하며 군 지휘계통내의 상급자는 이에 관여하지 말아야한다. 세째, 사후보복의 우려가 있으므로 철저한 비밀투표를 보장해야하고 투표함이송은 공정한 선거관리인단에게 맡겨져야 한다. 네째, 각 후보들의 유세내용 및 정강정책이 담긴 홍보물을 공평하게 소개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이 전제되어야만 군의 공정한 부재자 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군의 정치적 중립이 이룩될 수 있을것이다.

5. 현재의선거운동기간에 나타나는 부정선거양상에 대한대책

현재의 대통령 선거에서 대규모 부정선거에 의한 조작적 국민의 합의를 막기위한 방법으로 다음의 몇가지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거국선거감시내각및 민간 선거감시단의 즉각적 구성이다. 거국선거감시 내각은 현재의 김정열 내각이 정부 여당의 지원하에 이루어졌고 군사독재정권을 비호하고 있다는데 그 필요성이 있으며 공정한 민간선거감시단의 즉각적 구성의 경우 필리핀에서도 그 중요성이 나타났듯이 공정한 선거를 위한 제1차적 선결 과제라고 하겠다.

둘째, 행정의 중립성 확보이다. 즉 공무원은 정치운동을 금해야 하며 비록 정식공무원은 아닐지라도 특정정당 가입 내지 선거운동을 위한 통·반장들의 반강제적 권유 행위는 사라져야 한다. 정부도 그리고 그산하 공무원도 그리고 실제 선거운동을 담당하고 있는 통·반장들도 민주화를 향한 전 국민의 단결된 외지와 시대적, 역사적인 업숙한 사명을 망각해서는 안될 것이다.

세째, 매스컴의 공정성 확보와 T·V유세의 즉각적 실시이다. 매스컴 특히 공영방송은 그 책임이 막중함을 깨닫고 즉각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번 선거는 진정한 민의 합의에 의한 국가권력의 정통성 창출이라는 역사적 사정이 부여되어 있음을 깊이 자각하고 공영방송은 어떠한 강제적 물리력에도 굴하지 말고 객관성과 엄정한 중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이것은 그동안 수많은 편파보도의 장본을 저질렀던 공영방송의 마지막 양심이기도 하다. 이러한 방송의 공정성이 확보된 후에 각 대통령 후보들에 대한 방송유세및 정책토론이 실시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요즈음 문제가 되고있는 지방색도 타파될것이고 금전및 관권개입도 어느정도 해결해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네째, 부정투표의 실상을 계속 폭로케해야 한다. 이제는더 이상 군부독재의 계속적 집권을 방관해서는 안된다. 지난 6월 부정에서 보여 주었던 전 국민의 요구들이 자칫 흘러 흠이 되어 버릴 수도 있는 것이다. 위에서 제시한 모든 것들을 실현시키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범국민적인 요구와 투쟁이 계속되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나간 부정선거에 대한 사실폭로와 함께 현재 나타나고 있는 부정선거의 양태들을 모든 국민이 거부하고 전국적으로 폭로해내야 할 것이다.

6. 결론에 대신하여

이번 제 13대 대통령 선거는 우리나라의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지난 26년간 지속되어 왔던 군부독재를 청산하고 민간정부에 의한 정권의 정통성을 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통성은 바로 국민의 합의에 기초하며 국민의 올바른 합의를 위해서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보장되어져야 한다. 우리국민은 지난 6월 투쟁에서 지긋지긋한 중속의 굴레를 벗어버리고자 과감하게 일어섰던 진정 용기있는 국민이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대통령 후보들 중에서 진정한 민중의 대표자가 나타날 수 있도록 희망을 걸어보면서 정부·여당은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 부정선거를 획책하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떳떳하게국민의심판을 받기를 강력히권고한다.

공정 선거관리인단 참여하에 절대적 자율성과 비밀보장이 군의 공정한 선거 보장의 필수요건

부재자의 90%를 차지하는 군은 그간 부정선거를 잉태하는 최대의 질곡으로 작용해 왔다

겠던 국민의 민주적 제 권리를 회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선거 열기가 점점 고조되면서 정부와 여당은 이번 선거가 사상초유의 완벽한 공명선거가 되리라고 호언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을 믿을수가 없고 또한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부정선거로의 타락현상이 우리를 슬프게하고 분노하게 하고있다.

3·15부정선거에서 2·12선거에 이르기까지 과거우리나라의 모든 선거에서 엄청난 부정이 있었음은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다. 그러기에 공명선거에 대한 우리의 바램은 더욱 절실하고 당연한 것이다.

이에 2·12 총선당시 군 부재자 부정선거의 실상들을 폭로하고 현 선거운동기간에 나타나고 있는 부정선거로의 움직임들을 우려하면서 공명선거 보장을 위한 몇가지 대안을 제시하여 지난 26년간 지속되어 왔던 군부독재정권을 영원히 종식시키고 국가의 정통성을 확립하여 이땅 모든 민중의 민주적 제권리를 회복하는데 미약한 도움이라도 되고자 이글을 쓴다.

이번 2·12총선당시 업청난 군부재자 부정선거를 자행하였다. 이제 그 위반 사례들을 제시해 보려고 한다.

1)자유선거의 원칙 위반사례(여당지지 강요)

▲육군 카추사 ○○부대의경우: 투표전에 수차례에걸친 내무교육을통해서 선임하사가 간접적으로 선태권의 자유를 무시하고 특정당을 찍으라는 강요를 하였다. 『다들 알고 있겠지만 군인은 투표에서 어떻게해야하는지 알겠지? 지금국군은 투표때문에 매일 교육당하고 강요당하는 것을 생각하면 그래도 여러분은 나은 줄 알겠』이라고 말했다.

기자의 눈

대학(大學)의 회복

지난 11월18일(수) 신문방송학과 학생들은 학과장실에서 「무능교수 김△△씨 즉각 사퇴」를 내걸고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다음날 신방과 학생들과 대학원생들이 통해 밝힌 내용에 따르면 「교수직악용, 학과장직남용, 강의불성실및 학문적무능등에 대한 학생」을 지고 퇴진할것을요구하고있다. 또한23일(월)오전 11시 까지 서면으로사퇴서 제출을 요구하였지만, 교수가 공청회에 참석하지 않고 사퇴거부의사를 표명함으로써 신방과학생들은 무기한 철야단식농성을 하고있다.

학원민주화 투쟁기간중에도 서울캠퍼스에서는 서양어대 모과 학과장퇴진요구, 용인캠퍼스는 기숙사사감 퇴진요구 등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문제의 완전한 해결보다는 학생들의 주장을 무마시키는 정도이거나, 무반응으로 일관하여 재단및 총장퇴진으로 맞추어진 학원민주화의 대세속에서 문제의 촛점이 흐려지게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지난 80년 학민투쟁에서도 「무능」 「어용」 「비양심」 등의 이유로 교수퇴진요구가 전개되었다. 당시 무능교수문제는 교수양성과정과 임용절차에 그 원인이 있었다. 또한 교수재임용문제에서는 재단운학과 어용교수문제등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그 양상은 발전적인 내용이었다.

교수퇴진 문제에서 제기되고있는 「무능교수」에 대한 문제는 그 측정기준이 애매모호하며, 특히 배우는 학생이 교수의 능력문제로 가타부타하는것은 문제시 되고있다. 하지만 그 실상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보면 어느누구도 학생만을 탓할수는 없게되었으며, 「무능교수」의 퇴진은 대학의 학문적 발전을 위해 당연한 과제로 지적될수 있다.

금번 신문방송학과 김교수의 문제는 서명교수로서 시대양심을 대변하던 대학교수의 문제점이 「비양심」으로 등장하여 일시에 봇물터지듯 터진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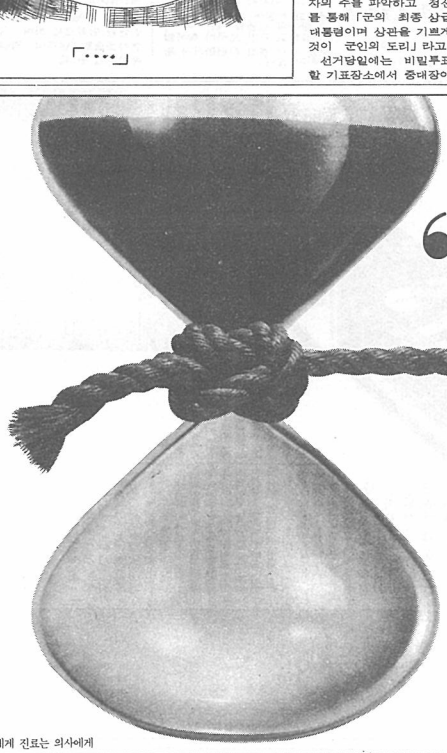
더욱 문제인것은 교수퇴진요구를 들고나온 학생들을 향해 타교수들이 「학생지도에 한계를 느낀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문제해결에도 직접 나서기를 꺼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학의 진정한 주인이라고 자처하는 교수와 학생간의 불신(不信)이 해소되기는 커녕, 오히려 학원민주화 사업과정속에서 괴리감만 더해가고 있는 교수·학생모두는 대오를 정비해야 할때이다. 그리고 문제의 본질을 왜곡화·오도하려는 「대화」가 아니라 진정한의미의 「대화」 마련하여야 할것이다. 교수학생간의 고유한 권위를 되찾고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대학(大學)의 회복」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류계환기자>

종근당

"변비를 풀어드립니다"



6가지 생약성분이
변비를 부드럽게 풀어드립니다

"변비 때문에 몸과 마음이 꽁꽁 묶여 버렸어요!"
변비가 생기면 신체의 모든 건강리듬이 흐트러지고 마음도 편치 못해서 아무리 즐거운 일도 그리 즐겁지 못합니다.
마이락은 장내 부패물을 배출시키는 대황, 소화기질환을 치료하는 후박 등, 생약성분이 6가지라 변비에 관련된 신체의 각 부위에 골고루 작용해서 변비를 통증없이, 빠르고 부드럽게 풀어드립니다.

"변비도 변비지만 나빠진 피부가 더 걱정이에요!"
변비가 생기면 신진대사가 원활치 못해서 기미, 여드름, 거친 피부 등 변비로 인한 다른 증상이 더욱 속상하게 만듭니다.
마이락의 6가지 생약성분 중에는 피부질환을 치료하고 피부에 윤기를 주는 토복령, 천궁 등의 성분이 있어 변비치료는 물론 피부미용에도 좋습니다.

6가지 생약성분의 변비치료제
마이락정
新發売
표준소매가격 : 90T-8,800원/45T-4,400원
변비 및 변비로 인한 증상의 완화: 두통, 상기, 거친피부, 여드름, 식욕부진, 복부팽만, 장내 이상발효, 치질.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북으로 간 작가, 돌아와야 할 작품

문화시론

50여년의 공백을 뛰어넘어 다시 그들의 작품을 접하기 위하여

월북·납북작가들의 작품해금논의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50여년의 세월이 지난 오늘날 분단사적 위치나, 그 작품의 성과를 떠나서 역시 도 한 시대인들의 작품세계를 접할 수 없다고 하는 점은 크나큰 아픔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50여년의 공백을 뛰어넘어 다시 그들의 작품을 접하기 위해서는 역사를 대하는 신중한 자세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당시 거론되었던 논쟁들이 아직도 매듭지어지지 않은채 우리앞에 그대로 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과 문학이 반공이데올로기에 가려 거의 왜곡되거나 은폐되어 온 점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더구나 현재 한국문단내에서의 현대적 영향력을 완전히 무시한 채 한때 유행했던 조류로 파악되고 있다는 점은 가슴 아픈 일이다。

헛된 명예욕에 사로 잡혀 자신의 문학적 재질을 민족사의 왜곡과 친일에 바쳤던 춘원 이광수를 비롯한 많은 작가들이 아직도 근대 문학사에서 대표적 위치를 점하고, 친일 문학작가들이 『그것은 어쩔수 없었던 일이고 후에 민족을 위한수많은 작품을 썼노라』는 궁색한 변명으로 자신들의 과오를 덮어버리려는 것을 보면 역사적 아이러니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때문에, 그간 가리워져 온 월북·납북작가들의 삶과 문학을 올바른 민족문학의 입장에서 재검토하는 작업은 더 더욱 절실한 것이다。

이제까지 갖은 이데올로기적 억압으로 민족문학의 유산이 제대로 연구되지 못한 실정을 감안해도, 그간 의도적으로 잊혀지은 일제시민지 시대의 중요문인이었던 월북·납북작가들에 대한 재평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월북·납북작가는 대부분 사회주의 작가

소위 월북작가로 지목되어 그들의 작품이 출판금지된 작가들은 세가지 부류로 나뉘어지고 있다。

먼저 당시 문단에서 크게 각광을 받아 남북의 소지를 갖고 있는 순수문학작가들로는 요즘 부분적으로나마 해금된 정지용을 비롯 김기림 이태준 안회남 박태원 오장환 현덕 백석 이근영 이용악 최인준등을 들수 있다。

다음으로는 일제시대 프로문학을 하다가 카프가 해체된 이후 일제의 혹압에 반압에의해 전향, 다시 해방과 함께 사회주의 문학을 전개했던 임화 이원조 김남천 안함광 설정식등으로 소위 카프해소파라고 불리우는 작가들이다。이들은 월북했으나 북에서 숙청된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20년대 이후 줄곧 사회주의 문학을 고수했던 작가들로 이기영 한설야 송영 박팔양등인데 월북 이후 북한 문단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이들 월북·납북작가들의 해금논의가 그동안 거의 되어오지 않거나, 되었다해도 소극적 차원에서 그쳤던 이유는 이들이 소위 사회주의 문인들이었다는 점에서 였다。1920년대 당시 대부분의 외식있는 작가들은 조선 프롤레타리아 동맹(KAPF)에 참여하여 작품활동을 전개하였기 때문에 하여 그 누구하나 간과해서는 안될 작가들이 주옥같은 작품들과 함께 잊혀져가고 있는 점은 문학단체인 「염군사(焰群社)」와 「인생을 위한 예술」 「현실과 싸우는 외지의 예술」을 주장했던 「파스큐라(PASKYULA)」의 두 조직체가 일단의 중립적 작가들과 함께 결성했던 문학가 동맹이 KAPF이다。

부당한 안보 이데올로기에 묶인 월북·납북 작가들의 작품은 객관적 시각의 평가와 전면적 해금이 당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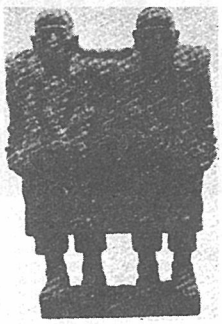
조선 프롤레타리아 문학가 동맹

1925년 8월 「해방문화연구및 운동을 목표」로 했던 정치적 즉, 인간의 의식 및 행위등이 계급적 생활과 계급투쟁의 제조건에 의해 결정되는 계급사회에 있어서는 의식활동을 포함한 인간적 사회활동을 계급투쟁에 봉사하게 해야한다는 일정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때문에 KAPF는 민족해방 이라는 존재기반 아래 부당한 현실에 참가하는 「주체의식」을 부여, 작품을 통한 민중의 계몽을 시도하였다。비록 무산 계급의 입장에서 그들의 해방을 위한 무기로서의 예술이 되어야 한다는 단순한 효용론적인 예술만을 강조, 구체적인 현실의 예술 운동 과정에서 생생하게 구체화 되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었지만, 당시의 계급운동은 일제를 조선 민중의 적(敵)인 동시에 이 민중을 억압하는 부르죠아로 간주하고 있었기에 프로문학 속에서도 계급투쟁 못지 않게 조선의 해방을 위해 싸운다는 의미가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문학이 민족해방에 미친 역사적 의의 이외에도 프로문학은 문단사에 빛날 많은 논점을 남겨놓았다。

첫째로 형식과 내용의 문제를 들수가 있다。프로 문학이 조직성을 띄면서 작품의 경향은 점차 목적의식을 갖게 되었고, 이 문학의 목적의식은 「내용과 형식의 논쟁」을 불러일으킨 것이다。「작품이 지나친 목적의식에 치우쳐 추상적 설명에 그쳐서는 안된다는 형식적 완결성의 주장과 「아직 형식을 논할때가 아니며, 프로문학에서 예술적 함락요소및 예술의 독립적 가치를 말하는 것은 공론(空論)」이라는 주장이었다。이 논쟁은 카프가 방향전환을 하여 이 논쟁에 개입하면서, 무산계급의 통일전선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논쟁의 종결을 종용,승리는 내용의 우선에 돌아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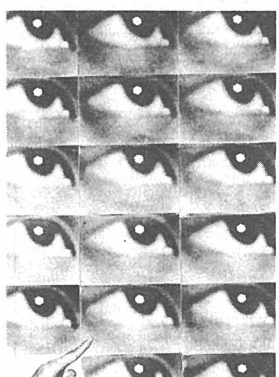


◇사진자료 「민족미술 제2호…월북문인재평가는 50년동안의 문학을 이룩하게 한 민족 문학의 재평가로 새로운 민족 문학을 이룩하게 한다」

프로 문학의 논쟁을 어느 시기에 따라 구분짓는것은 매우 애매한 일이지만 형식의 문제 이후 일제의 탄압기에 대두된 것이 대중화론이었다。즉,프로문학의 주체는 대중이므로 프로문학운동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중이 접근하기 쉬운 형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었 시킵으로 해서 와해되고 만다。

북으로 간사람들의 돌아올수있는 작품을위해

1930년대를 전후한 문학가들의 활동중에서 KAPF를 중심으로 한 프로 문학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마 논한 것은 월북·납북 작가들의 삶과 작품세계를 약간이나마 이해하기 위함이었다。그러나 당시 문학의 자료미비 이외에도 필자의 무지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강요된 희망

스패너로 옥죄여진 눈은
내 눈이 아니다。

프레스로 바짝 눌리어진 눈은
내 눈이 아니다。

독한 담배를 흡입하는 느낌으로
적도(赤道)속으로 말달려간
우리들의 눈들이
백주사막의 땡볕을 가로질러
오아시스같은 생명을 만날때까지

나의 가슴같은 너의 눈으로
너의 가슴같은 나의 눈으로
벗들의 갈라진 손금 발바닥틈새로
뜨거운 하나임을확인하고 말때까지

저 소리없는 지침 (指針)
빙들러선 눈의 줄떼에서
빛을 입은 새벽녘
벗의 눈길 혹은
어머니의 멍든 심장을 보듬는
벗의 손길에
나의 두 손을 얹을 때까지。

시와 사진

시: 곽 경 용 <동양·아랍2>

사진: 윤 덕 주 <아간·경영2>

새로운 가을을 기약하며

수필 춤

양 승 윤

<마인어과 교수>

가을은 언제나 아름답다。

하늘이 아름답고 단풍이 아름다우며, 갈잎을 밟 아래 담뿍 밟구고 저 만치 서 있는 소나무의 짙은 녹색은 조락(凋落)의 가을에 눈부시게 아름답다。그러고 보면 계절에 어울리는 아름다움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이른 봄 갓 깨어난 계곡의 물 소리와 소나기 지나간 여름의 흙 냄새, 가을 길가의 키낮은 코스모스의 물결 그리고 덤 빈 대공(大弓)의 겨울 해변…, 이 모두가 아름답고 아름다운 것이다。

가을의 아름다움은 그러나 아쉬움을 간직한 채 덥치거리다가 뒷걸음 쳐 물러가는 아름다움이기에 더욱 애틋하게우리를 사로잡는다。현란한 원색의 화훼(花卉)를 봄에, 반나무회들의 선정적인 율동을 여름에, 웅장한 오케스트라와 협연하는 성장(盛裝)한 피아니스트의 완숙한 몸놀림을 겨울로 다소 무리하게 비유한다면, 머리에 수건을 쓰고 바랜 옷차림으로 감자 캐는 일에 몰두하고 있는 시골 아낙네의 「정갈한 일 모습」을 가을적인 아름다움으로 묘사할 수 있지않을까…?

지난 여름이 무덥고 지리했었을 수록 가을의 소슬바람과 뜨락마다 쌓아 올린 가을걷이가 더욱 애틋한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이제 가을 골에 선 우리는 지난 여름의 열제(炎帝)와 철 늦은 두 차례 장마로 인해서 우리의 결실이 봄과 여름 내내 밤잠을 설쳐가며 노력한 만큼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새삼스레 되새기며 안타까와 한다。

폴렘이를 피해 철망으로 얼굴을 가린 시계탑과 꺼멓게 그을린 채로 웅크리고 앉아 있는 교문, 시커먼 열 개의 괴롭 아가리를 벌리고 엄거주춤 서 있는 학생회관, 그리고 비틀어진 창틀과 어지러운 계단, 두 번 세 번 쇠때를 뒤집어 쓴 왕산교(旺山橋)。그리고 여기저기 틈새 마다 흠흠히 박혀 있는 오류의 파편과 구석구석 쌓여있는 우리학생들의 함성, 함성들。이 모두는 우리가 함께 안타까와 하며 어루만져 사랑을 쏟아야 할 것 들이다。우리 것 들, 이 가을에 만난 아픈흔적들은 우리 모두의 분신(分身)이다。

왕산의 추색(秋色)은 왕산에 있기에 더욱 돋보이며, 개미 잠들 만한 미네르바도 에나 변함없이 이문동산에 있기에 이 가을에 더욱 아름다운 것이다。우리는 이 가을에 또 다른 가을을 기약하여야 한다。

가을을 희망의 새 봄과 여름에 이어 다시 맞게 될 풍요로운 가을을 향한 우리 모두의 결전한 마음 지세이기 때문이다。이제 마지막 며칠의 가을을 남기고 저물어 가는 이문동산과 왕산의 산등성이는 너와 나와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함으로 해서 결코 허전하거나 황량하지 않다。

우리말의 쓰임새 (128) 휭허케

<그리고 바구니를 다시 집어들더니 이를 꼭 악물고는 왈덕질 못 자빠질 죽 논둑으로 휭허케 달아나는 것이다。「김유정」의 「동백꽃」에서>

휭허케=휭허니의 방언으로 지체하지 않고 매우 빨리 가는 모양이다。

휭하다는 놀라거나 피곤하거나 또는 머리가 띵하여 정신을 차리기가 어렵다는 뜻으로 휭허케는 사부리 이지만 많이 쓰이고 있다。

신간소개

태백 산맥 4·5

—조정래지음

이책은 여순반란사건 당시의 민족사적모순구조를 다룬 1부에 이어지는 2부로서 여순사건과 한국전쟁사이의 발발과정의 실상을 그리고 있다。

토지개혁을 갈구하는 농민의 저항과 지주의 횡포, 빨치산의 조직적인 공격과 가난속에 목숨을 이어가는 농민의 몸부림을 미시적이며 동시에 거시적인 시각으로 박힐하게 형상화하고 있다。

<한길사펴냄 값3.000원>

베트콩 해방전선

—류옹 뉴 탕 지음

—김명욱 옮김

사이공 민족해방전선에 투신, 상류계급과 청년층의 사상교화와 혁명을 위한 대중의 조직화에 전력했던 작자의 회고록인 이책은 월남전에서 군사적인면 이외의 또다른 정치국면을 다루고 있다。

<사상사펴냄 값3.500원>

역사소설론

—루카치 지음

—이영욱 옮김

이책은 사회적토대와 그에 상응하는 의식이 작가들을통해 작품에 실현되는 방식과 대중에게 형사하는 영향력을 역사소설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총체적으로 다루고있다。

근대문학사의 유물론적 검토와 아울러 맑스주의 미학에대한 이해를 돕고있다。

<겨름펴냄 값5.800원>

권력과 혁명

—컨퀘스트 지음

—최승 옮김

이책은 볼셰비키 혁명이후20여년동안 혁명의 주도세력이 권력에 의한 범죄각본, 강제자백, 고문, 쇼우재판등 온갖 방법을 통해 희생되는 과정을 기술하고 있다。

권력에 의한 혁명주체세력의 몰락과 개혁주도세력의 비극적종말등을 통해 사회주의 과정의 역사에서 혁명과 권력의 관계를 살피고 있다。

<슬라브연구사 펴냄 값3.500원>

문화단신

극단현대 대학로 극장 개관

—극단현대

최근 흥행목적하에 소극장에서 행해지는 그릇된 공연풍토에 도전하여, 진정한 연극정신을 펼칠 장으로 극대현대의「대학로극장」이 오는 12월 1일 개관된다。

3편의 무대형태와 객석수 총150석의 규모로, 평일은 1회공연, 주말과 공휴일은 2회공연을 원칙으로 하며 개관공연작품으로 「당통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다。

해태제과

'사랑의 언어'—'허쉬'

젊은 날의 지성과
젊은 날의 낭만으로
수놓는 사랑이야기!
눈에서 눈으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감미롭게 스며드는
그 이름—허쉬!
사랑한다는 말없이
사랑을 느끼게 한다。
허쉬초콜렛—
한 조각의 허쉬초콜렛으로
사랑을 고백한다。
감미로운 사랑의 언어、
—허쉬!
영원한 사랑의 언어、
—허쉬!

50일간의 투쟁, 방관할 수 없는 「학민」

◇본교 학원민주화투쟁을 정리하며

대화 부재는 사태를 장기화 시키기도해

학생·교수간의 구체적인 실천 노력 절실

공전을 거듭하던 50여일간의 기나긴 학원민주화투쟁이 지난 14일 용인캠퍼스공청회를 끝으로 일단락 되어졌지만그에따른 교수·학생간의 구체적인 해결방안 모색은 더욱 치열히 경주되어야 할것이다。

6월투쟁이후 민중들의 끊임없는 민주화실현의지는 사회전반에걸쳐 광범위하게 표출되었고 각각의 대학 역시 학원의 비민주적 요소를 척결하기위한 학원민주화투쟁으로 발전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전개된 본교의 학원민주화투쟁은 학생들의 많은 오류와 학교당국의 불성실하고 투핵일한 태도로 업록지며 숱한 우여곡절을겪으며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즉 학민투쟁의 전반에걸쳐 드러난 지도력의 부재현상이나 학교당국의 불성실한 태도, 교수·학생간의 불신의 벽, 학생대중의 주체성 결여 등등 이루 열거하기조차 힘든 문제들이 그동안 보여지며 농성을 장기화시키는 내적외적 요인으로작용하였다.

먼저 학원민주의 올바른 위상을 정립함에 있어 애초 학민추나 학민투가 발족할때 지니던 의미는 농성이 장기화됨에 따라 희석화 되어버려 복지차원의 투쟁으로 전락할 우려마저 낳기도 하였다。 또한 재단퇴진과 건준위구성의 주장에서 보여주듯 학민에 대한 견해차이는 학생대중의 참여를 저조화 시키는등 학생전반의 의견을 수렴하려고 했다기보다 지도부에서 결정된 사항을 전달하기에 급급한 인상을 종종 보여주었다。

거의 매년 학원문제를 들고나오는 용인캠퍼스의 경우 예년에 지적되어오던 학원과 사회의 모순관계를 개별적으로 인식하는 사고의 편협성을 그대로 답보하며 학원차원에 매몰되는 우를 자초하기도 하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한편 양캠퍼스에서 거의 동시에 학민투쟁이 전개되었음에도 지도부자체의 통일적인 교류참구나 학교당국과의 대화참구가 전무했다는 측면은 이번 투쟁을 장기화와 재단퇴진 주장의 극한 상황까지 몰고가는 요인이 되었었다。

실제로 총장퇴진 발표후 학원이 정상화되기까지 20여일간이나 소모되었던 것은 이를 잘 반증해준다。 문제해결을 어렵게했던 교수·학생간 뿌리깊은 불신의 심화는 과거 농성과 징계의 악순환이라는 경험속에서 자연스럽게 발산되었던것이며 앞으로 학원민주와 더불어 깊은 자기반성이 뒤따라야할 과제임엔 틀림없다。

이렇듯 투쟁기간동안 여러문제점이 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50여일간이라는 외대초유의 장기간 농성은 교수협의회 산하 학민자추와 대화참구가 열림으로서 일로 급변하게된다。

그러나 현재 교수나 학생 양자 모두 문제해결의 당위성을 십분이해하면서도 그 대안은극히 미진한 상태에 놓여있다。 일례로 학칙개정의 경우 위원장을 기획실장으로 선정해놓았으나 현재 공석인 상태로서 형식적인 인상을 주고있으며, 학생들 역시 학교측에서 대안이 제시될때까지 방기하고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은 여타특위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입원구성만 마친채 가장중요한현실적인 실현방법은 언급조차안된 상태이다。

그러나이번학원문제와관련한 해결방법에 있어서 여타대학에서 찾아보기 힘든 교수·학생간의 해결노력은 고무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이 결코 학민투쟁의 종식이나 마무리가 아닌 앞으로의 학원민주의 실질적인 쟁취라는 맥락에서 이해할때 교수·학생 평의회건설의 단초로 작용할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아울러 내려질수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단결적인 시기로서 국한되어져 표출되었던 학민투쟁의 오류는 현재 교수·학생간의 노력으로 모처럼 학원민주화에 접근할수있는 위치에 다가섰다。

교수측의 이번 학원정상화노력이 단순한 사태수습차원에 합류필이 아닌 차후 지속적인 교수·학생간에 상호비판과 견제하에서 학원민주의 노력이 경주되어질때 외대내의 학원민주는 새로운 자리를 찾아나갈 수 있을 것이다。 <기획부>

「용·성 문화제」 지난 11일 개최

「용인·성남지역 대학생 문화제」가 지난 11월16일(월)오후 1시 어문대앞 해방광장과 입시전시장에서 열렸다。

본교를 비롯한 경원대, 강남사회복지대등 용인·성남지역 대학교 문화제가 참가, 힘찬놀이, 고사, 마당극등의 순서로 약4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문화제는 어문대식당과 구내마당에서 판화전이, 어문대현관·로비에서는 시화전, 판화전시등도 있었다。

대동(大同)의미 상실한 써연제

지난 11월17일부터 써클연합회 (이하·써연)주최로 개최된 써클연합제가(이하·써연제)서울캠퍼스는 20일 「해방영화제」를 끝으로 막을 내렸으며, 용인캠퍼스는 현재 진행중에 있다。 그러나 이번 써연제 역시 예년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고있는데 특히, 써클인과 본교생이 어우러질수 있는 대동의 장이 마련되지 않아 고립분산적인 행사에 그치고 있다。

써연제는 각기다른 성격을띠고 자체적인 활동을 해오던 써클들이 공동의장을 마련, 「대학문화참조」라는 궁극적 목적을 공유함과 동시에 대학문화창도를 조성한다는데서 그 의미를 찾을수 있겠다。

그러나 행사의 진행과정을 볼때, 주최측의 계획성없는 준비자세와 써클인들의 주체적인 행사참여의식결여, 홍보미비에서 오는 재학생들의 동참저조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캠퍼스에서 진행된 「써클인 한마당」은 민속악놀이반의 「자, 이제 합성이다」, 카클럽합생반의 「촌극」, 외대연극회의 「아일랜드」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각써클의 주체적인 행사준비가 없어 써연에서 책임을 분담시키는등 적극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형식적인 행사가 진행되었다。

특히 용인캠퍼스에서는 장기적으로 계속될어온 학내 농성으로 인해 써연제의 진행상 많은 난항과 문제점이 뒤따르고 있다。

학내문제에만 전념해 써연제에 따르는 사전 계획을 세우지 못한 써연은 몇몇 써클들이 자체적으로 준비해왔던 프로그램을 대학적으로 묶어 써연제 기간동안에 맞춰 진행시키고 있을 뿐이다。

이에대해 용인캠퍼스 써연장 박수민군(어문 포어2)은 「학내 민주화에만 몰두하다보니 집행부로서 책임을 방기하는 결과가 되었다」며 「앞으로 써연을 재정립하여 새로운 이미지부각과 침체되어가는 왕산문화활성화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힌다。

이번 써연제는 양캠퍼스 모두 홍보작업의 미비에다 학내 투쟁으로 무기한 연기되었던 중간고사가 산발적으로 치루어지고있어 본교생들의 낮은 참여도가 두드러진다。

또한 크게내두되고있는 문제점은 써클인들의 대동의 장으로 발전되어 학교측의 재정지원은, 학생측요구에의 절반에만 지급하는 등 기획행사·초청강연회를 취소할수밖에 없게 하였다。

「모대학인이 결집할수 있는 장이되고 민족자주문화 건설의 목적을 둔 이번 써연제는 학교당국의 재정지급액이 예산액과 현저한 차이가나 상당히 힘들었다」며 「대학생들의 정당한 요구에 학교측도 성실한 태도를 보여달라」고 서울캠퍼스써연장 김지영군(문리·철학3)은 말한다。

예년까지 학교당국으로부터 공식승인되지 못한 기구로써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아오던 써연이 이번부터 독립된 학생자치기구로 인정받게 된다。

써연제, 전외대인의 대동의 장으로 발전돼야

「써연」독립됨에 따른 활동기능 활성화 필요

보는 써클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동질감을 회복시킬수 있는 대동의장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수 있다。 써클인과 본교생들간의 동질감회복을 궁극적 취지로하고있는 써연제에 대동단결의장 마련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문제인 것이다。

한편 매년 행사때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학교측의 재정지원이다。 이번에도 문제가 되어 행사준비에 많은 어려움을 초래한학교측의 재정지원은, 학생측요구에의 절반에만 지급하는 등 기획행사·초청강연회를 취소할수밖에 없게 하였다。

「모대학인이 결집할수 있는 장이되고 민족자주문화 건설의 목적을 둔 이번 써연제는 학교당국의 재정지급액이 예산액과 현저한 차이가나 상당히 힘들었다」며 「대학생들의 정당한 요구에 학교측도 성실한 태도를 보여달라」고 서울캠퍼스써연장 김지영군(문리·철학3)은 말한다。

예년까지 학교당국으로부터 공식승인되지 못한 기구로써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아오던 써연이 이번부터 독립된 학생자치기구로 인정받게 된다。

활성화 필요

학생활동에 규제를 해오던 지도교수제폐지와 신규써클등록과 써클폐지등도 써연의 책임이 되었으며 교비·예산문제등도 학교측과 직접 의논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4명은 개개써클의 도제로써, 기존의 고립분산적인 써클활동에 공동의 장을 마련, 써클활동의 활성화를 우선시하여 건전한 대학문화풍토조성에 일익을 담당하는 역할수행을 성실히 해내야 할 것이다。 <안미숙기자>

입학 장학금 수혜폭 확대

수혜기간 연장, 각 단과수석자등 대상 늘려

재학생장학금 1억원증액, 구체적지급계획 미확정

대학입시가 한달앞으로 다가오면서 각대학은 「우수신입생유치」를 목적으로 신입생에대한 장학금지급규정을 개정하고있다。

본교에서도 올해까지 실시되었던 기존의 입학장학금제도를 폐지하고 왕문, 외문, 왕산, 우수입학Ⅰ·Ⅱ, 비둘기장학금등으로 확장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장학금지급내용을 보면 서울·용인캠퍼스 전체수석입학자에게 입학금과 4년간의 등록금을, 각 캠퍼스별 수석입학자에게는 입학금과 3년간의 등록금을, 각단과대학 수석입학자에게는 입학금과 2년간의 등록금을, 각과 수석자에게는 1년간의 등록금을 면제해주게된다。

예년에 각과석차 1백분의10이내의 학생에게 입학금과 1학기등록금을 면제해 주던 제도를 이번신입생부터는 해당학생들에게 1년간의 등록금만 면제해주는 제도로 바뀌게 된다。

작년의 신입생장학금혜택규정을 보면 특별대우장학금이라고 하여 학력고사 전국등위 2천등이내인 입학생들에게 입학금과 등록금의 4년면제, 매달학자보조장학금으로 20만원을 지급하던 것에 불과했다。

특별우대장학금이 폐지되고 캠퍼스별 단과대학별 과별수석입학생에게 장학금이 지급되는데 대해 장학과 한관계자원은 「극히 제한된 일부학생들에게 학력고사성적으로만 4년간등록금을 면제시켜주고 월학자보조금을 지급하던 종래의 제도보다는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낫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선지원 후지원제로 바뀌어 하향지원이 예상되는 올 입시에서는 우수한 신입생의지원이 다소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본교와 같이 수석입학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 일정법위의 학생이 장학금을 급여받는 장점이있다。

재학생 장학금의경우 학원민주화투쟁을 통해 장학금 1억원의 증액을 다음학기부터 실시하기로 약속한 상태이다。 그러나 1년을 단위로 증액되는 것이며 서울·용인캠퍼스를 포함하게 필요로서 현재 성적우장학금을 기준으로 했을때 본교생중 약1.4%가 더 지급받는 것에 불과한 실정이다。

재학생 장학금이 1억원증액되고 신입생장학금이 증설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나 타대학과 비교했을 때 아직도 신입생장학금이나 재학생장학금에 있어서 열악한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현재 미미한수준의 장학제도 확충은 본교의 면학분위기 조성과 연구하는학교로서 발돋움할 수있는 계기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고 하겠다。

<문정완기자>

움직임

<서울캠퍼스>

▲화곡·덕원고 : 11월 24일(화) 오후5시 도서관 1층로비。

▲열혼고 졸업생 환송회 : 11월25일(수)오후5시 도서관 1층로비。

▲대일고 : 11월25일 (수) 오후5시 미네르바 (학교앞 미네르바)

<용인캠퍼스>

▲춘천향우회 : 12월1일(화) 오후6시 문리대식당。

▲성동고 : 11월25일 (수) 오후5시30분 문리대 식당 회비 : 천원

▲열일고 : 11월28일 (토) 오후2시 어문동현대식당회비 : 3천원

▲대원고 : 11월29일 (일) 오후4시 코리아 세헌드 스카이라운지 회비 : 일만5천원

상영안내

◇서울캠퍼스

—시청각비데오룸(2309호)

▲11월26일 (목) : 오후2시 「욕탕이라는 이름의 전차」 오후5시 「가을소나타」 ▲11월27일 (금) : 오후2시 「에덴의동쪽」 오후5시 「만다라」

◇용인캠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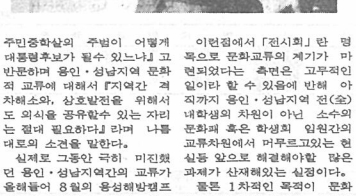
—영사실 (1412호)

▲11월26일 (목) : 오후1시 30분 「Aliens Ⅰ」

▲11월27일 (금) : 오후1시 30분 「all that Jazz」

바로 여기

용인·성남지역의 5·18사진전을 돌아보며…



「용인·성남지역 (이하 용·성지역) 대학생문화제」에 이어 용·성지역총학생회 후원으로 「광주학살사진전시회」가 지난11월18일부터 20일까지 어문대와 문리대 입시전시장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전시회는 용인·성남지역 대학생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각 캠퍼스간의 교환공연등 문화행사 교류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마련되었는데 비록 시설이나 자료는부족하였으나 연일 찾아오는 학생들의 열기는 뜨겁기만 하였다。

이번 전시회를 주관한 「제3세계연구회」 회장 이영대군(어문·스와힐리어3)은 「비록「광주학살사진전」이 시기상 늦은감이 있지만 선거국면과 관련 현정부의 폭력성을 지적하고 아울러 그동안 고립분산적인 형태를 면치못했던 용인·성남지역의 문화적 교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라며 이번 전시회의 취지를 밝힌다。

또한 시종일관 굳은 표정으로 전시장을 둘러 본 이모군(사회·무역1)은 「2천여 광주민중학살의 주범이 어떻게 대통령후보가 될수 있느냐」고 반문하며 용인·성남지역 문화적 교류에 대해서 「지역간 격차해소와, 상호발전을 위해서도 의식을 공유할수 있는 자리는 절대 필요하다」라며 나름대로의 소견을 밝힌다。

실제로 그동안 극히 미진했던 용인·성남지역간의 교류가 올해들어 8월의 용성해방캠프개설과 11월16일 개최한 연합문화제 순환공연 그리고 이번 전시회로 이어지며 그 교류의 폭은 점차 확대되어가고있다。

그러나 지역간 외식의 격차, 공동체로서의 동질감부족등의 이유로 부분적인 형태와 교류외에는 문화적 접촉이 활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점에서 「전시회」란 명목으로 문화교류의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측면은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음에 반해 아직까지 용인·성남지역 전(全)내학생의 차원이 아닌 소수의 문화패 혹은 학생회 임원간의 교류차원에서 머무르고있는 현실등 앞으로 해결해야할 많은 과제가 산재해있는 실정이다。

물론 1차적인 목적이 문화적교류를 통한 의식의 공유이지만 용인·성남지역의 연대감형성과 대동단결이라는 부분도 무시할수 없을 것이다。

작금, 용인·성남지역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동일곳에 맞추어 해방춤을 춥수 있는 대동 (大同) 의 자리로의 승화가 자못 아쉽기만하다。

<강병준 기자>

크로클

전용(專用)법안(?)

○…대통령 선거가 막바지에 다다른 착금 선거유세장 못지않게 전국감옥도 발덜을 틈 없이 초만원사례인데。

선거사법 단속이 가속되어지며 모후보 벽보는 조금만 낙서하고 용시해도 가차없이 즉각 구속이라는데, 문제는 선거법안이 모후보 전용법안으로 사용돼가고 있다는것。

이런 상황하에 선거감시기구발족의 의외는 두말할 필요조차 없겠지만, 선거 빙자삼아 민주세력압살하려는 저들의 흑심 언제나 개가천선할수 있을런지……。

○…「부정선거」가 특재자의 전유물만은 아닌듯 최근 단대학생회 선거철을맞아 이문법에서도 공공연히 부정선거(?)사례가 목격되고 있다고。

단대장 선거가 막바지로치달으며 유세를 거의 끝내고 투표에 들어가기 시작하자 모모후보 선거참모들, 아는 흡산들은 모두 암팔끼고 투표소에 가서 공개투표를 시킨다는 고발(?)이 크로니를 자에 접수되고 있는바。

이에분개한 모흡산 왕 「이래서야 12·16선거부정 방지하겠다고 외칠자 누가 있는 지 모르겠다」고 각성을 촉구。

○…요즘왕산끝의 전반적인 상황은 바깥세상의 선거바람에 시달리고, 학민부장후유증에도 몸시 시달리고 있다는데。

왕산끝 흡산들의 딱한사연인즉, 학민부정이후 제반문제가 봇물처럼 터져나오며 니 손쓸여유도없이 기말고사마저 수업과 병행해서 실시해야 할 형편까지 치닫게되었다고。

선거철을 맞아 조기방학은 서슴치않고 하면서도 연장수업은 사회문제의 핑전에 썹사리 밀려나고 보면 흡산들 정신바짝차려야 이번학기의 흡쓸굴레 벗어날수 있을 듯。

○…학원민주화부장의 후유증이 남은 왕산끝, 며칠전엔 솔부경반보고 놀란 가슴되었다고 흡산들 투덜대고있어。

내용인즉한 흡산이 퇴근하는 교수차에 승차하며 니 교수들의 학원민주에대한 안일한 행동에 따끔한 일침을 했건만 반성과 비판으로 결허히 받아들이는 교수보다시장바닥이나 가서 떠들라고 손짜검 (?) 까지 하는 식자가 있어 왕산끝을 한때 긴장시켰었바。

학원민주와 더불어 일었던 교수·학생간의 신뢰회복이 급선무일진데 교수님들의 어진아량 명수당 벗삼아 키우셔야할듯。

○…최근 「존경받는교수=지탄대상의 교수」라는 신(新) 등식이 뭇 흡산들 사이 회자되어 본크로니를자동식을 틀어본 즉。

논문표절, 여서강매등으로 불협화음을 일으키던 모과의 모교수가 교내에서 덕망받는 노(老) 교수를 지목 「이사람은 안돼」 등등 입에담기조차 부끄러운 폭언을 서슴치않아, 이에 격분한 모과생들 부농·어용교수퇴진을 요구하며 철야농성에 돌입하였다고。

오호, 통재라!

제자가 제자다워지고, 스승이 스승다워질 참민주가 자리할 날은 그 언제 도래할지。

존경과 지탄의 함수

종합 일렉트로닉스 세계 No.1

GoldStar

人間·技術·未來 럭키금성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했던
테크노피아의 실현이
곧 나의 과제로 변했읍니다.

입사하자마자 바로 첨단 VCR용 IC회로를 설계하라는 것이었읍니다.

학교에서의 전공이 비록 전자공학이긴 했으나 첨단의 IC회로를 설계하라는 것은 참으로 누리운 일이었다.
그러나 선배 연구원들의 끈질긴 집념을 피부로 느끼면서 "불확터전압"을 따지고 "바이어스"가 어떻고 하면서 나는 어느덧 IC의 마이크로 세계를 만끽하는 탐험가가 되어있음을 발견하곤 한다.
VCR의 선명화면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내가 개발한 GS20111 Servo Control IC등을 떠올리고는, 이것이 바로 테크노피아를 실현하는 또하나의 길이라 생각하며 뿌듯한 감회에 젖어본다.
아우들이여! 우리 연구소, 우리 사회는 바로 아우들의 명석한 지혜와 섬세한 손길, 그리고 끈질긴 집념과 용기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꼭 명부해둔다.

*금성 중앙연구소 주임연구원 이 문 기

최첨단 기술의 상징 금성

•금성사•금성반도체•금성소프트웨어•금성부품•금성통신•금성전기•금성알프스전자•금성정밀•금성산전•금성계전•금성기전•금성하니웰•금성전선

1988학년도 제1학년 학생모집요강

1. 모집학과 및 입학정원

대학	계열	전공학과	학과코드번호	입학정원	부전공및복수전공	비고
서양어대학	인문	영어과	01	140	어학계	①※표가 있는 대학을 우치가 응시함 ②인문계과 체육과 학과는 유니폼과 교복 신체검사실시
		불어과(야)	02	40		
		독어과	03	70		
		독어과(야)	04	40		
		일어과	05	70		
		일어과(야)	06	40		
		노어과	07	35		
		서반아어과(야)	08	30		
		포르투갈어과	09	30		
		이태리어과	10	40		
		헝가리어과	11	25		
		루마니아어과	12	25		
		체코어과	13	20		
		핀란드어과	14	20		
동양어대학	인문	중국어과	15	75		
		국어과(야)	16	40		
		불어과	17	75		
		일본어과(야)	18	40		
		말레이·인도네시아어과	19	25		
		아랍어과	20	40		
		아랍국어과(야)	21	40		
		태국어과	22	20		
		베트남어과	23	20		
		몽고어과	24	20		
		인도어과	25	20		
		이란어과	26	20		
정책과학대학	인문	정치외교학과	27	40	문화계	
		행정학과	28	40		
		신문방송학과	29	40		
법과대학	인문	법학과	30	110		
		법학과(야)	31	40		
상경대학	인문	무역학과	32	45		
		무역학과(야)	33	40		
		경제학과	34	58		
		경영학과	35	45		
		경영학과(야)	36	40		
사범대학	인문	영어교육과	37	30	정외계	
		불어교육과	38	30		
		일어교육과	39	30		
		독어교육과	40	30		
※문리과대학	인문	철학과	41	40		
		사학과	42	40		
		인류학과	43	40		
	자연	수학과	44	40	상경계	
		물리학과	45	40		
		화학과	46	40		
		전자계산학과	47	40		
※서양어문대학	인문	영어과	48	120		
		불어과	49	80		
		독어과	50	80		
		노어과	51	50		
		서반아어과	52	80		
		포르투갈어과	53	50		
		이태리어과	54	50		
		헝가리어과	55	30		
		루마니아어과	56	30		
		체코어과	57	30		
		핀란드어과	58	30		
		헝가리어과	59	30		
※동양어문대학	인문	중국어과	60	50		
		불어과	61	50		
		아랍어과	62	40		
		말레이·인도네시아어과	63	40		
		태국어과	64	40		
		베트남어과	65	40		
		몽고어과	66	30		
※사회과학대학	인문	무역학과	67	50		
		경제학과	68	50		
		경영정보학과	69	40		
총계		69개학과		3,090		

2. 지 원 자 격

①고등학교 졸업자 및 1988년2월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거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3. 입 학 전 형

가. 방 법

①대학입학 학력고사 성적, 고등학교 내신성적, 면접 및 신체검사로 전형한다.

②제1지망생으로 총점순위에 따라 입학정원의 70%를 우선 선발하고 나머지 30%는 제1지망 탈락자와 제2, 3지망생에서 선발한다.

③위 2항에 의거 응시자가 입학정원에 미달될 경우 추가 모집에 의하여 선발한다.

④교포및 외국인으로서 본 대학교에 입학을 원하는 자는 특별전형한다.

⑤예·체능계의 특기자는 특별 전형하지 않는다.

⑥주간강좌와 야간강좌는 구분하여 별도로 사정하고 운영한다.

나. 학력고사 성적, 고등학교 내신성적 반영비율

구분	비율	점수
대학입학학력고사성적	70%	340점
고등학교내신성적	30%	145.7점
(교과성적)		(131.1점)
(출석성적)		(14.6점)
계	100%	485.7점

①면접고사는 합격, 불합격의 자료로 활용한다.

②대학입학 학력고사의 각 과목별 낙제 점수제는 없으며, 전 과목 총점 순위에따라 대학입학 학력고사 성적 순위를 결정한다.

③고등학교 내신성적의 교과성적과 출석성적의 배점비율은 90 : 10으로 한다.

가.교과성적의 등급은 10등급으로 구분하고 등급간 점수 격차는 2점으로 한다.

나.출석성적의 등급은 5등급으로 구분하고 등급간 득점 비율차는 10%로 한다.

④고등학교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등의 내신성적은 검정고시 합격자가 지원한 계열(인문, 자연 계열별)과 동일한 계열의 전체응시자 중에서 검정고시 합격자가 얻은 대학입학 학력고사 점수와 동일한 점수를 얻은 고등학교 졸신자들의 내신등급을 평균하여 해당등급을 결정한다.

⑤지체 부자유자의 체력검사 성적환산방법 : 15+5×총학과 취득 점수／총 학과 점수(320점)
(소수점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처리한다.)

다. 신체검사

다음의 신체결함이 있는 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①전염성질환, 유전성질환, 수학에 지장을 주는 내과적 질환을 가진자.

②수업, 실험실습, 실기 등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없고, 제3자의 지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수업의 이행및 수업의 진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타 신체적 결함이 있는 자.

③사범대학 지원자는 교사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불합격 판단대상자)

④문리과대학 물리학과, 화학과 지원자는 색맹·색약및 실험을 원활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라. 전형일정

내용	일시	장소	비고
1. 원서및요강교부	1987.11.23(월)~11.30(월)	서울소재 총무과및 용인소재 서무과	가. 원서및 요강대 : 1,000원 나. 우송을 원하는 원서및요강대 1,000원(소인환)외에 반신료(1,010원 또는 무표)를 동봉할것
2. 원서접수	1987.11.27(금)~11.30(월) (09 : 00~17 : 00시)	①서양어대학, 동양어대학, 정책과학대학, 법과대학, 상경대학, 사범대학지원자 : 서울소재교무과 ②문리과대학, 서양어문대학, 동양어문대학, 사회과학대학지원자 : 서울소재교무과와 용인소재교무과	가. 전형료 : 25,000원 *본대학교 수업중지 나. 원서는 출신학교장인감문서로 제출할것 다. 우송시 등기우편으로하여야하며, 마감일 17 : 00시까지 본대학교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3. 예비소집	1987.12.21(월) (14 : 00시정각)	서울소재교정 (문리과대학, 서양어문대학, 동양어문대학, 사회과학대학지원자 포함)	가. 접수증또는 등기증을 지참할것 가. 학력고사및면접시장소를 공고하니 필히 참석하기바람
4. 학력고사및면접	1) 학력고사 : 1987. 12. 22(화) (08 : 40~17 : 10) 2) 면접 : 1987.12.22(화) (17 : 20~17 : 40)	예비소집일에 공고함	가. 면접에 불참한 자는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나. 본년도대학의 문리학과, 화학과는 면접과별협하여 색맹·색약검사를 실시한다
5. 합격자발표	1988. 1. 4(월) (14 : 00시 이전)	서울소재교정 (문리과대학, 서양어문대학, 동양어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지원자포함)	
6. 신체검사	1988. 1. 6(수)~1. 7(목)	①서양어대학, 동양어대학, 정책과학대학, 법과대학, 상경대학, 사범대학 합격자 : 서울소재 신체검사장 ②문리과대학, 서양어문대학, 동양어문대학, 사회과학대학 합격자 : 용인소재 신체검사장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원서교부및 접수는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평일과 같이함

마. 학력고사 시간표및 계열별 고사과목

계열별 \ 교시	1	2	3	4	5
시간 / 고사과목	08 : 40~10 : 10 (90분)	10 : 40~12 : 30 (110분)	13 : 30~15 : 00 (90분)	15 : 30~17 : 10 (100분)	17 : 20~17 : 40 (20분)
인문계고사과목	국어Ⅰ(한문Ⅰ포함) 국사	수학Ⅰ, Ⅱ-1 사회Ⅰ, Ⅱ } 택2 지리Ⅰ, Ⅱ 세계사	영어 공업일반, 독일어 농업일반, 프랑스어 수산업일반, 중국어 가사, 에스파냐어 } 택1	국민윤리Ⅱ 물리Ⅰ, Ⅱ 생명과학Ⅰ, Ⅱ } 택1 지구과학Ⅰ, Ⅱ	면접
자연계고사과목	국어Ⅰ(한문Ⅰ포함) 국사	수학Ⅰ, Ⅱ-2 사회Ⅰ, Ⅱ } 택1 지리Ⅰ, Ⅱ 세계사	영어 공업일반, 독일어 농업일반, 프랑스어 수산업일반, 중국어 가사, 에스파냐어 } 택1	국민윤리 물리Ⅰ, Ⅱ } 택2 생명과학Ⅰ, Ⅱ (물리, 화학중 택1) 지구과학Ⅰ, Ⅱ	면접

4. 유 의 사 항

①대학(교) 지원은 전기 전형 대학중 1개교에 한 한다

②본대학교 (아간강좌 개설학과, 문리과대학, 서양어문대학, 동양어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지원자포함) 내에서의 복수지원 (예 : 원서 2장내는것) 은 무효로 처리한다

③제2·3지망은 본대학교 (아간강좌 개설학과, 문리과대학, 서양어문대학, 동양어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지원자 포함) 제1지망과 같은 동일계열 학과내에서할수있다 (인문계와 자연계 교차 지망금지)

④본대학교 합격자는 등록 여부를 불문하고 후기대학 (교) 과 추가모집 대학 (교) 에 지원할 수 없다

⑤본대학교 사범대학의 지원자 (제1·2·3지망자) 는 출신학교장의 사범계대 학 입학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입학원서 뒷면에 인쇄되어 있음)

⑥입학 지원자가 입학정원에 미달한 경우에도 그 입학 전형성적이 다른 지원자에 비하여 현저히 부족하여 입학을 허가하는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입시사정위원회의 결정에따라 총장은 입학을 불허한다

5. 제 출 서 류

①입학원서 (소정양식) 1부

②고등학교 생활기록부사본 1부

③사진 2매 (3㎝×4㎝로 입학원서 소정란 첨부) : 최근 3개월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탈모 명함판 (동일 원판)

④사범대학지원자 (제2·3지망자 포함) 는 출신학교장의 사범계대학 입학추천서 (입학원서 뒷면에 인쇄되어 있음) 1부

⑤기타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을 인정하는 증명서와 성적증명서 각 1부

6. 장 학 제 도

가. 신입생

장학금종류	선발기준	지급액	비고
왕문장학금	서울캠퍼스, 용인캠퍼스 입학생중 전체수석	입학금+수업료+기성회비 : 4년간 (8개학기) 면제	단, 매학기 성적평점 평균 2.8이상 이수한 경우한 지급
외문장학금	서울캠퍼스 입학생중 전체수석	입학금+수업료+기성회비 : 3년간 (6개학기) 면제	〃
왕산장학금	용인캠퍼스 입학생중 전체수석	입학금+수업료+기성회비 : 3년간 (6개학기) 면제	〃
우수입학장학금 Ⅰ	자단과대학수석(서양, 동양, 정책과학, 법과, 상경, 사범, 문리과, 서양어문, 동양어문, 사회과학, 야간강좌)	입학금+수업료+기성회비 : 2년간 (4개학기) 면제	〃
우수입학장학금 Ⅱ	각 학과별 수석	수업료+기성회비 : 1년간 (2개학기) 면제	〃
비둘기장학금	과석차 10／100이내인 자	수업료+기성회비 : 1학기면제	

나. 재학생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총장장학금을 비롯한 교내장학금과 정부특별장학금등 외부 제공 장학금이있으며, 학생의 20%이상에게 장학금혜택을 주고있음

(1) 교내 장학금

(87년 2학기 기준)

장학금종류	지급액	장학금종류	지급액
총장장학금	620,000원	등록원장학금	620,000원
학장장학금	500,000원	대학장학금	450,000원
성적〝수〟장학금	350,000원	성적〝우〟장학금	300,000원
시장학금	300,000원~350,000원	보훈장학금	등록금전액

기타 : 학과, 근로, 공로 장학금

(2) 외부제공 장학금

가. 정부특별 장학금

(년기준)

구분 / 학기	장학금종류	장학금총액	지급자수	비고
연간	대통령장학금	4,800,000원	12	4학년 전공과목 최우수자
	국무총리장학금	4,200,000원	12	3학년 전공과목 최우수자
	상공부장관장학금	3,600,000원	12	2학년 전공과목 최우수자
계		12,600,000원	36	

나. 공공장학금

정수장학금, 산학협동재단장학금, 한국지도자육성장학재단장학금, 인촌기념회장학금,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장학금, 일해재단장학금, 연강학술재단장학금, 해운사관후보생장학금, 경찰공무원채용후보장학금.

다. 기타장학금

제월장학회, 정우장학회, 인송문화재단, 세씨문화재단, 한국과학기술장학재단, 사리원시봉산군장학회, 평산신씨종친회, 일산장학회, 조산장학회, 한불문화재단, 보은장학회, 전혜여향재단, 제주장학재단, 삼미문화재단, 학산기술장학재단, 신타문화장학재단, 동원육영재단, 재외한국인모국수학생장학금, 등문장학금.

추 가 모 집

1. 방 법

가. 전기전형 결과 입학정원에 미달된 학과에 한한다

나. 추가모집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1988년 1월 4일 (월) 전기 전형합격자 발표시 공고한다

2. 일 정

내용	일시	장소
원서및요강교부	1988년 2월10 (수) ~ 2월12 (금)	서울소재 총무과
원서접수	1988년 2월10 (수) ~ 2월12 (금) (09시~17시)	서울소재 교무과 (문리과대학, 서양어문대학, 동양어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지원자포함)
전형	1988년 2월15 (월) (08시~17시10)	서울소재 고사장 (문리과대학, 서양어문대학, 동양어문대학, 사회과대학 지원자포함)
면접및신체검사	1988년 2월16 (화) (10시~12시)	서울소재 교정 (문리과대학, 서양어문대학, 동양어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지원자포함)
합격자발표	1988년 2월20 (토) (10시이전)	서울소재 교정 (문리과대학, 서양어문대학, 동양어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지원자포함)

*원서교부 및 접수는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평일과 같이함

*우편접수 기간및 방법은 전기모집과 같다

3. 제 출 서 류

본 대학교 전기 전형제출 서류와 동일함

4. 기 타

가. 전·후기대학 (교) 에 합격한 자는 등록여부를 불문하고 추가모집대학 (교) 에 지원할수 없다.

나. 기타 상세한 것은 본 대학교 교무처에 문의할것

韓國外國語大學校

서 울 13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번지
전화 : 직통 962-7113 교환 965-7001~16

용 인 170-41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왕산리 산89번지
전화 : 직통 (0335) 33-1687 교환 (0335) 33-1700~10